留美學生雜誌

# 우라키

第六號　臨時號　1933

## 重要目次




北米 留學生總會 發行

祝 우라키 發展



(2)



(1)

(3)



(4)



(1) 親友部新任幹事 李 哲 源 氏

(2) 李承晩博士와 뉴욕學生一同

(3) 콜럼비아大學圖書館
조선文化協會本部

(4) 빼엘로市에서 開催되엇든
學生志願大會 조선代表들

# 留美學生雜誌「우 라 키」第六號 目次



## 後進學友에게보내는메세이지

# 北米苦學生活百鏡集



## 文藝

THE ROCKY

Official organ of
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

No. 6 January, 1933 New York, U.S.A.

# 國際聯盟의過去現在及將來

哲學博士 리 묘 묵

李묘묵敎授는 延專 文科를 畢한 후 負笈 爾來 씨라큐스 뽀스톤 하바드大學에서 歷史를 專攻하며 畢也 榮譽의 哲學博士의 位를 받으셧다。現在는 母校 씨라큐스大學 史學科에서 敎鞭을 잡고 育英事業에 專力하는 一便 繼續연구를 거듭하시는 少壯 史學家 —(編者)—

『地震이 난 後에 새 샘이 솟는다』는것은 아마 「칼라일」의 말인듯하다。宗教의 이름을 비러가지고 歐洲大陸을 蹂躙하든 三十年戰役이 끝나자 「그로시어쓰」는 國際法을 匡訂하여世界平和를 持來하려하엿으며 「콜씨카」의 風雲兒 「나폴레온」이 東伐西征하여 歐洲天地를紅塵萬丈化하는 下場에는 『神聖同盟』과 「大使會議」를 利用하여 勢力均等을 維持하려하엿거든 하믈며 우리가 바로 目睹한 世界大戰은 그 範圍로나 戰費로나 피값으로나 有史以來 未曾有의慘事요 더구나 現代文明이라는 利器 앞에 人生이 草虫보다도더 無能하다는것을 正確히 暴露하나마 뜻 잇는 사람으로 戰爭 以外에 다른 手段으로 國際問題를 處理하여 人間社會를 한층向上시기려 꿈꿈이 어찌 時代의 絕叫가 아니엇으리오?

◇ ◇

「戰爭을 撲滅하기 爲한 戰爭」「民本主義를 保證하기 爲한 戰爭」「人類文化를 維持하기爲 戰爭」等의 「슬로간」으로 人心을 煽動하여 也 聯合軍側에 參戰한 米國은 近代 偉人中에 先頭를차지할 「윌손」의 指導下에 잇어 그 나라의 財源이 豐饒하니만큼 指導者의 理想이 明哲하니만큼 그의 地位가 重大하니만큼 大戰末에 主役을 맡게되엿다。그의 一句一節을 戰國 非戰國이 한결 같이 귀를 기우려 듣도록 되엇으며 그의 十四個條가 休戰平和의 基礎이엇다는것은 아직 우리 記憶에 똑똑히 남어잇는것이다。그러나 「윌손」으로 國際聯盟의 全理想의 著者요 創立者라함은 時代의 輿論과 絕叫를 無視함이며「우리 文化制度가 人類經驗의 總合體라」는 斷案에 비치어 過分한 感이 없지 아니한가한다。그가 제니바市民에게 "Fondateur de la Societe de Nations" 라는 榮冠을 닫음이 그의 時代思想에 順應兒인 所以며 그의 芳名을 偉人堂에 새김도 그가 時代의絕叫를 了解한後 그것을 事實化하기에 惡戰苦鬪한 勇士인 까닭이다。

◇ ◇

國際聯盟의 理想을 歷史的立場에서 考察한다면 그 淵源을 周나라나 希臘에까지 밟어갈수 잇으나 그時代의 周圍環境이 오날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理由下에서 現代 存在한 聯盟을 實現하기까지에 努力햇다는 몇 사람의 理想을 講究하고 그들의 理想과 實體와를 對照함도 한갓 滋味스러운 일이라한다。

◇ ◇

「윌손」의 思考를 確把하기 爲하야는 적어도 그의 對中南亞米利加政策을 窺示함이 바른進路라한다。所謂 「몬로」主義라는것이 歐洲列國에게는 無干涉主義라하면 中南亞國等에 對하여는 棒子主義로 干涉主義로 甚至於 侵畧主義까지의 發達이 잇엇고 따라 米國에 對한 中南亞國의 態度는 한결같이 敵愾가 濃厚하엿다。「윌손」이 執政하면서 이런 氣分을 一掃하고 調和와 共存心을 代入하려고 一邊으로 國務卿을 시켜 仲裁條約을 締結하게하며 同時에 「판•아메리카니즘」을 主唱하여 及其也 一九一六年 四月에 이르러는 一種의 「판•아메리칸」同盟을 樹立하고저 四個條의 秘案을 提出하엿다。그러나 「윌손」의 「메라•쿠루즈」事件과 「헤이티」占領은 中南亞諸國에게 米國의 立場을 한층 더 曖昧히 만들고 終乃 米國의 動機를 疑心하도록하여 凡節이 水泡에 도라가고 만것이다。

失敗임에 不拘하고 「윌손」의 「판•아메리칸」同盟秘案을 重要視함은 여기에 그의 國際聯盟에 對한 理想과 目的의 輪廓이 表現된 까닭이니 即 第一로 領土保全과 政治的 獨立을 互相 保證하며 領土로 因해서 생기는 國際紛爭을 仲裁로 調停하고 國威와 獨立과 國利에 切迫한 問題以外의 모든 國際誤解는 戰爭代身 外交와 仲裁로 處理하라는것이다。

이 秘案은 어떤手段을取하여 領土保全과 獨立保證을 하라는 方法論에는 沈默을 지키엇다。이는 米國이 自取한 「몬로」主義下에서 獨單으로 惱亂을 이르키는 隣國을 罰할 能이 잇다는데 理由가 잇을터이나 世界를 網羅하여 平和와 正義維持策을 論하는데는 어느 一個國의 힘으로는 到底히 不可能할것이다。그러므로 一九一六年 十二月 十八日 國際聯盟이 世界平和를 保存함에 不可缺할 機關이라는것을 明聲한後 米國 上議院에서 「윌손」은 비로소 (一九一七•一•二二) 列國의 힘을 모아 다시는 一二個國의 힘으로 世界의 「公正한平和」를 顚覆하도록 하라는 「폴리」를 하엿다 그에게는 「公正한 平和保證」이라는것이 國際聯盟의 眞髓요 生命이엇다。그러면 「公正한 平和」라는것은 무엇인가?

公正한 平和 (Just Peace)는 國의 大小强弱을 不拘하고 同一한 權利를 認定하며 民族의 抱負와 民族自決을 尊重視함을 말함이다 이런平和를 保全하기에 國際聯盟이 必需한 機關이요 이 새 社會의 會員인 列强은 誠力과 武力으로 公正한 平和를 維持할 義務가 잇다。故로 「윌손」의 思考한 國際聯盟은 調停이나 仲裁의 機關이나 列國의 協同中价所나의 中和體라느니보다 한 거름 더 나가 一國家의 主權을 毁損한다든가 一民族의 抱負와 自決을 無視하는 廢가 없도록 할만한 新興國際團體를 意味함이다。

◇ ◇

太西洋 이便에서 「윌손」은 公正한 平和保證策을 講究하는 동안 太西洋 저便에 잇는 英國에서는 自由黨의 首領인 「애스커트」와 「그레이」도 亦內閣과 下議院에서 累次 戰爭防止策으로 國際機關의 必要를 主唱하엿다。그러나 政運의 變遷으로 두 政客은 下野하고 「씨실」이 代入하여 「로이드•쫄지」의 聯合內閣에 國際聯盟期成部를 作成하도록 周旋하고 巴里講和會 國際聯盟期成委員의 一人으로 英國을 代表하엿다。

◇ ◇

「씨실」의 「뻘밍햄」大學演說은 (一九一八•一一•一二) 아나도 그의 聯盟理想의 最頂點을 發表하엿다 할것이다。聯盟으로 戰爭을 防止하자는 點이다。巴里 講和會에서 聯盟을 設立하자는 點에는 「윌손」과 「씨실」이 共鳴하엿으나 聯盟의 根本的目的을 實行하자는 方法論에 드러서는 顯隔한 異見이 잇다。兩人이 다 軍縮을 希望햇으나 「씨실」은 極히 想觀的態度를 取하엿고 主權毁損과 侵犯을 두려워하여 그는 戰爭防止나 平和保存에 公開的外交 世界輿論의 增長及 列國會議等의 策을 主論하고 萬一問題가 非常히 重大한 境遇에는 經濟的威脅까지를 是認하엿다。그러나 「윌

손」과 같은이 國際聯盟의 大使命은 民族自決主義에 依하여 安定된 領土를 保全함에 잇고 이任命을 遂行하기에는 經濟的武器는 勿論 武力까지도 使用하자는 點에는 「쐬씰」이 肯定치못하엿다。그가 본 國際聯盟의 切要는 國際紛爭이 잇을때 어떤 機關이 잇어 그問題를 公平沈着히 調査討議하도록 하며 따라 西方의 戰熱을 冷却케하여 開戰을 延引 或은防止하자는것이다。그는 國際裁判이나 다른 司法行爲보다도 列國會議와 協同에 더 많은 信任을 두엇다。

◇ ◇

「윌손」이 巴里에 이르기前에 民族自決主義를 强論하고 따라 波蘭人의 獨立을 固執하엿으나 敗戰國의 領土와 植民地에 關한 確實한 對策은 없은듯하다。一時 大英帝國의 權威를 南亞弗利加에서 흔들든 「뽀엘」戰士의 一人이요 그後 歸化한 「떠취」政人의 하나인 「슈뭍」大將의 冊子 (The League of Nations, A Practical Suggestion, LonIon, 1918)가 講和會前에 巴里에 나타낫다。聯盟의 目的이 世界平和를 保存하는데 잇다는데는 「쐬씰」과 다름이 없으되 仲裁를 重要視한다든가 强制裁判을 奬勵한다든가 軍縮을 固執한다는 點에서는 「론돈」代表者와 매우 다른것이다。무엇보다도 이著書에서 「윌손」은 委任統治의 方案을 얻어 오날 存在한 國際聯盟의 一部有機體를 만든것이다。

◇ ◇

世界平和機關을 論하는 者로 佛人 「레온•뿌주아」를 黙過할수 없다。그는 「윌손」「쐬씰」「슈뭍」같이 巴里講和會 國際聯盟會委員이 되여 直接 貢獻이 잇을것은 아니나 그의 一生의 多部分을 國際機關樹立主唱에 드린 까닭이다。大戰前 (一九一〇)에 그의 著書 "Pour la Société des Nations" 가 出刊이 되엇고 바로 休戰前에 그가 佛蘭西 國際聯盟期成會 會長으로 被撰이 되엇다。그의 나라가 大戰의 重役國의 하나요 모든 慘劇이 自己나라 땅에 登演이되니만큼 그의 愛國心이 鼓吹되엇고 따라 그의 聯盟의 目的과 理想도 利己的이요 復讐的이엇다。平和도 聯合軍의 勝利가 잇고의 맡이요 國際聯盟도 그의勝利의 捉進機關이나 戰利品의 守護者라야 할것이다。그의 會長 就任式 演說의 一部「아 이것이 바야흐로 우리의 自由를 찾을 때이며 賠償을 求할때ㅎ며 復讐를 行할 때이요 復舊의 때는 아니다。」"Voici que l'heurs des liberations, des réparations, des restitutions as sonne. Etvoici egalement que vient l'heure des chatiments." 云云은 平和主義者의 言辭라하기가 어렵다。

◇ ◇

이렇듯 佛蘭西의 態度가 猪突的이요 復讐的임에 不拘하고 國際聯盟을 平和條約의 一部로 編入햇다는것만은 「윌손」의 百折不屈하는 勇力에 「쥬리붙」을 드릴수 밖에 없다。猜忌와 私利가 洶洶한 講和談判에서 國際聯盟을 건커내려고 佛蘭西의 要求도 一應 英國의 貪慾도 一應 日本의 威脅에도 一應하고나니 「윌손」의 理想과 主義主唱에 不可한 破傷을 내고 及其也 自己의 친구까지도 잃게되엇다。「勝利가 없는 平和」라는 「마토」의 著者인 그로 敗戰國으로 國際聯盟會員權을 拒絶한다든가 大戰責任을 全혀 獨逸에 돌리는類의 條約에 自署를한다는것까지 그의 理想과 事實의 矛盾을 明確히 보인다。그러나 今日의 國際聯盟이 이러한 犧牲과 矛盾과의 비싼 값과 「윌손」의 「리덜쉽」이 없엇든들 그 存在가 잇엇을까 疑問이다。

◇ ◇

우에 엉성히 「쉘예이」한 國際聯盟理想에서 어느程度까지 事實化가 되엿나보자。領土의 保安과 現存한 政治的 獨立을 尊重視하고 保存하자는 「윌손」의 中樞理想은 盟約第十條에 뚜렷이 남어잇고 及其也 列國의 經濟及武力의 方法論까지도(第十五 十六條)실려잇고 「쐬씰」의 列國會議와 協同으로 開戰을 延引或은 防止하자는 「아이디어」는 그의 생각以上 精密히 記入施行이되며 「슈뭍」의 委任統治의 範圍는 「윌손」의 無邪氣한 「아이디알리즘」과 주린 獅子같은 强國의 弄絡으로 前獨逸植民地까지를 包含하게되엇고 佛國의 復讐的影響은 獨逸에게 會員權을 拒絶한다는데 結晶化되엇다。

◇ ◇

그러나 理想은 理想이요 實行은 實行이라 過去 十有餘年의 「우랙코드」를 보건대 聯盟은 그 會員의 領土와 獨立保全의 義務도 堪當치 못햇고 侵畧者에게 經濟와 武力의 威脅도 試用치못 햇으며 强制仲裁와 强弱國無差別待遇도 아직 忘想이요 正義와 公開를 國際關係의 基礎로 삼는다는것도 講座에 不過하고 軍縮도 成功의 希望이 極히 적어보인다 그러면 國際聯盟存在의 辯明은 어대잇는가?

◇ ◇

한 機關의 價値를 事業으로 따질진대 國際聯盟의 事業을 一考함이 宜當하다。

(一) 聯盟自體가 「벨사일」平和條約의 共產物이니만큼 그 條約의 施行擔任機關이다。爲政家들의 愚見은 世界平和를 保存하려면 그條約을 一一히 實行하는데 잇다하며 所謂 勝戰强國과 그外 몇 臨時會員國으로 組織된 理事會에 委任統治 少弱民族 「사알」 「땐직」問題 같은것을 大概 맡기게 되엇다。벌서 不公平한 戰利品인 平和條約의 守護者가 되엇다는 그 點에서 國際聯際이 不偏不黨한 鄭重性을 잃고 더구나 政治的 色彩를 가진 問題에 極少數의 理事會會員의 勢力이 弱少會員國의것보다 크다는데서 다시 國際聯盟은 强國의 拳鬪場이요 弱國의 雄辯練習場에 不過하다는것이다。聯盟의 「투로픠」(勝戰紀念品)라는 「오렌브」島 「엘라」 「메멜」 「콜뚜」 「스씰리시아」 「모술」 及 希臘 弗加利亞國境紛爭等의 落着을 보라 어느것 하나나 强國의直間接 利害關係를 不顧하고 調停한것이잇나?

(二) 그러나 聯盟이 公式 非公式으로 國際協力을 增長하는데는 不可한 成功이 잇다 한다。아직 强國의 利害相衝으로 國際聯盟의 威權인 經濟及武力을 利用한적도 없고 强國間의 紛爭을 干涉하여 圓滿히 調停햇다는例가 없다하며 無能한 機關이라는 冷笑를 받으나 이런 中央機關이 잇어 少多數의 會員의 意見을 한 場所에 登錄해놓는다는點에서 聯盟의 存在가 不可缺하다한다。「지니바」取引所에서 國際輿論이라는것이 생기며 敏捷한各國 新聞紙를 通하여 昔日에 疎遠하든 國際問題가 隣家의 일 같이 看做하게된다。이런 世界輿論集中分配所가 없이는 國際協同이라는 것이 極히 어려울것이며 國際間 協力과 共存心이 없고는 聯盟의 成功을 企待할수가 없다。聯盟은 아직 敎室이요 實驗室이다。그러므로 聯盟의 失敗 成功을 따라 거기는 尙早의 感이 잇으며 說或 失敗가 잇다해도 聯盟이 理想과 有機的 組織을 非難하느니보다 時日의 短淺과 人間의 私慾을 咀呪할것이다。換言하면 國際聯盟의 成功은 會員이 얼마나한 信任을 두고 얼마나한 權威를 授與한다는데 正比例가 된다는것이다。「로카노」協定과 「뿌리안」「슈트라쯔만」兩人의 首鳩會議는 國際聯盟史上 가장 樂觀的이요 燦爛한 「스팟」이다。이는 信任과 讓步가 世界平和捉進에 얼마나 重且大한 手段이라는것을 보인 까닭이다。

聯盟의 社會事業——經濟會議 衛生 阿片 公娼 避亂民救濟等——은 範圍와 成績이 크고 良好한 反比로 人氣를 적게 끈다。이런 類의 事業進行에는 會員 非會員이 같이 協力하여 간다는데 成功의 原因이 一部 잇고 聯盟의 政治的色彩를 가진 事業의 圓滿한 解決도 萬國一同協力에 잇다는것을 暗示하는것이다。

(三) 聯盟은 戰爭防止의 機關이다。이 目的을 達하기에 公開外交 仲裁 軍備縮少 經濟及武力 威脅及條約修正等의 武器가 잇다。國交에 秘密과 그로 따라 생기는 嫌疑가 比較的減少되고 仲裁를 直間接奬勵하며 軍縮案을 試圖한다함은 우리 朝夕紙面에 滿載한 消息이요 第四五方案은 아직 試用의 例가 없다。少弱國間의 紛爭은 理事會나 國際司法機關을 利用하여 戰爭을 惹起치 않도록 調停햇으나 强國間이나 或은 强國과 다른 强國의 商權과 役財가 많은 弱國間에 생기는 問題(日中衝突같은)는 아직 公正히 取扱한 例가 없다。그러므로 滿洲事件이 世界의 人氣를 끌고 聯盟의 興亡의 「태스트・케이쓰」라하는것이다。

◇ ◇

重言할것 없이 國際聯盟이 그 憲章에 記入된 最高理想을 事實化못햇다는것만은 事實이다。그러면 聯盟의 將來는 (十九頁에繼續)

# 米國의移民歷史와 將來의政策

미쉬간大學 高 凰 京

筆者 高孃은 日本 同志社大學을 마치고 現在 미쉬간大學 研究院에서 조선女子으로의 남달은 研究를 發表하여 白人 男女 同窓들의 賞讚을 모두고잇는 才媛이다 —(編者)—

米國 即 北米合衆國은 當初에 移民의 團結로 成立된 까닭으로 建國後로 四世紀를 지난 今日에 이르러서도 移民問題는 이 나라에 對하여 一種 特別한 色彩를 가지고잇으며 恒常 政治 經濟 其他社會의 諸問題에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잇다。問題가 重大하니만큼 그 自國內에뿐만 아니라 國外에까지 여러가지 影響을 미치게한다。

現在 米國에서 이 問題는 우리의 想像以上의 政治家들의 頭痛꺼리며 經濟學者의 큰 研究材料다。社會學者들은 이 米國을 唯一의 實驗場으로 역이고 移民과 人類問題의 解決을 研究하고잇다。큰 大學에는 반드시 이研究科目이 設置되여 많은 學生들의 冷靜한批判과 激烈한 討論이 끝일 사이도 없다。

그러면 過去의 移民이 어떠한 經路를 밟어왓으며 現在와 將來가 어찌될것인가 些細히 調査하고 生覺하지면 限이 없이 자미잇고 그 問題를 解決하려면 끝이 없이 複雜한것이다。그러나 制限 잇는 紙面이므로 오즉 極히 簡略하게 그 歷史와 將來를 考察하려한다。

우리나라말로는 移民이란 한가지 用語이나 英語로는 두가지 用語로 區別되엇다。即 國外로 나아가는 移民을 Emigration(出移民)이라하고 國內로 오는 移民은 Imigration(入移民)이라고 稱한다。現時 問題의 中心은 入移民이다。

## (一) 殖民時代

十六世紀부터 十八世紀까지 即 米國獨立前까지들어온 者를 殖民이라 稱하는대 그人種은 英國人 (狹義의英國人) 蘇格蘭人 (Scotch-Irish) 獨逸人(Palestine-German) 佛蘭西人(French-Hugeno) 和蘭人等이다。이때에 사람들은 大西洋을 건너 米國 東海便 海岸에 土着하엿든것이다。이 사람들의 殖民動機는 各自國의 政治와 宗教方面에 不滿을 품고 새로운 理想을 新天地에서 實現해보고저 熱烈한 信仰을 가지고 뛰어나서게된 勇士의 精神이 그 大部分이엇든것이다。經濟的 困難에 쫓겨온者도 잇으나 極小部分이요 大概는 理想國을 建設코저 온者들이엇다。

이 殖民時代移民들은 두가지 意味로 보아 매우 有望한 人士들이라고 볼수잇다。첫재 自然陶汰로보아 交通이 不便한 時代에 遠洋水陸의 긴 旅行을 無事히 하엿음에는 반드시 健全한 體格의 所有者이엇을것이며 둘재 社會陶汰로보아 安全한 擔保가 없는 新開拓地에 理想鄕을 思慕하고 왓음에는 반드시 不撓不屈의 精神이 强하엿을것이다。그들은 理想의 꿈만꾸고 잇엇는것이 아니라 닥처오는 困苦를 무릅쓰고 開拓하는대 專力하엿다。各各그 國民性을 따라 英蘭人과 和蘭人은 商業方面에 蘇格蘭人은 政治方面에 佛蘭西人은 藝術方面에 獨逸人은 農業方面에 從事하여 새나라를 建設함에 든든한 礎石을 놓앗다。이 殖民時代의 特質은 異民族間의 團合力과 强한 同化力이다。彼此에 言語 習慣이 다르고 文明의 背景이 다른 곧에서 왓으나 舊本國에서 當한 矛盾을 미워함과 理想國을 新設하겟다는 自覺을 가지고 新設하여 나온 그 丹心

에는 一致하엿든까닭이다。이時代의 精神이야 말로 果然 米國建設의 精神이며 米國國民性의 源泉이라고 할수가 잇다。

## (二) 舊 移 民 時 代

殖民이 모여 一國을 新設하고 獨立을 宣言한後로는 米國에 발을 드려놓는 者는 客의 身分이요 主人이 될수 없엇다。이러한 意味에서 一七七六年 獨立 宣言以後의 入國하는 移住者를 移民이라 불른다。移民時代를 다시 區分하여 約 一九〇〇年以前은 舊移民時代에 屬하고 그 以後로 于今까지를 新移民時代라 불른다。

舊移民時代의 移民을 人種別로 보면 愛蘭人 獨逸人 스칸듸나비아人 瑞西人 丁抹人 諾威人 和蘭人等이다 이 時代 移民의 動機는 舊本國의 經濟上 困難이 大部分이요 宗敎的 政治的 原因이 極少部分이엇다。殖民時代 사람들이 이미 東便 海岸을 占領하엿든 까닭에 이時代 사람들은 中部地方으로 많이 土着하게되엿다。이 時代 移民의 共通의 精神은 各其 그 母國에서 배운 智識을 新環境에 잘 利用함으로 經濟上 困難을 免하고 一層 富力을 가지고 歸國하겟다는 目的이엇다。移民의 大部分이 家族을 本國에 남기고 온 이만큼 米國을 爲하야 忠心을 바친다는것보다도 오히려 自己家族의 經濟的 繁榮을 爲하여 盡心努力하엿다。이 點으로 보매 殖民時代의 精神과는 判異하여 犧牲的 精神으로 建國을 爲하여 團合하자는 熱誠味가 薄弱하엿다。그러므로 이 舊移民은 殖民에 比하여 米國을 爲하여 그다지 有望하고 優秀한 人士들이라고 볼수가 없엇다。그러나 各各 自己의 所得을 爲하여 努力하는 同時에 그 舊本國의 文化를 많이 新開國에 貢獻하엿으며 舊移民은 大概 智識階級 或은 中流階級에서 온 者이므로 相當한 考慮와 決心이 잇어서 건너온 者들이다。

·一八八二年부터 一九〇七年까지를 新舊移民의 過渡期라고 볼수가 잇으니 그 理由는 東南歐羅巴에 交通이 發達되고 北部歐羅巴에 生活狀態가 改善되엇으며 同時에 米國內에도 이미 많은 殖民과 移民이 土地를 占領하여 새로히 開拓할 餘裕와 機會가 적어진까닭으로 北歐人의 渡來數가 縮少되엇든것이다。本是北部歐洲人은 勤實하고 忍耐性이 많으며 또한 硏究性과 開拓性이 豊富함으로 어대로가든지 比較的 社會上層에서 支配的 地位를 占領하는 特質이 잇다。이러한 民族이므로 時勢가 變하여 開拓의 機會가 적어질때에 自然移民의 數가 減少되여진것이다。이 反面에 新移民의 數는 日日 增加하엿다。

## (三) 新 移 民 時 代

以上에 陳述한바와 같이 一八八二年부터 一九〇七年사이가 新舊移民의 交換時代이엇음으로 舊移民縮少는 新移民을 增加케하얏다。이 新移民의 區別은 年代로 標準삼는것이 아니라 그移民의 源泉 即 그 人種으로 標準삼는 것이다。이 新移民에 屬한 人種은 南北伊太利人 슬라브族露西亞人 匈牙利人 엔렌드人 猶太人 希臘人 佛系加奈陀人等이다。

新移民의 動機도 亦是 舊移民의 그것과 같이 經濟上 脅迫이 그 重大한 原因이엇다。그러나 이 新移民은 舊移民보다도 開拓性에 對하여 薄弱할뿐만 아니라 文盲下等階級者들이 아모 計劃없이 많이 건너온故로 米本國人들이 아조 劣等視하엿다。事實 이때에 大多數가 건너오게된 原因은 自發的 決心보다도 受動的이엇으며 開拓熱이 잇엇든것이 아니라 甚하게 말하면 썩은 물건에 끄여드는 파리와 같이 米國은 돈이 많고 살기가 좋다하는 바람에 어렴풋한 憧憬을 가지고 몰려오게된것이다。智識은 없고 下等階級에서 아모래도 待遇는 받을수 없는 身勢이니 좋다는 곧에가서 幸혀 好運이나 바랄가하는 敗北者의 投機的心理의 發露이엇다。이때에 先入國者들의 物質的 成功 또한 運送會社의 誘引的廣告가 그들의 心理를 一層 刺戟시키엇다。그들이殖民時代사람들과 天壤의差가 잇엇는것은 勿論이지마는 舊移民과 같이 文化에 貢獻할 知識조차 없이 왓든 까닭으로 오직 社會下層에서 筋肉勞働을 供給함이 唯一의 機會이엇엇다。

殖民時代사람들이 建國의 礎石이되여 有功하엿든것 같이 舊移民時代 사람들은 文化創造에 努力한功이엇는것 같이 新移民들은 新開國에 急遽한 發展에 必要한 勞働을 供給함에 또한 有功하엿다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新移民後期에 이르러 생각없이 몰러드는 無知한 外國人의 群衆은 米國本國에 對하여 衛生上 道德上 弊害를 이르키는 例가 不少하엿으며 勞働力은 需要以上으로 供給되여 經濟上 社會上 相當한 問題꺼리를 이르키게 되엿다。

## (四) 東洋移民

### 1 支那人

一八四八年에 支那人이 칼니또니아 金鑛으로 渡來한것이 始作이다。처음 四年間은 公私兩面으로 歡迎을 받엇다。그러나 그後부터는 民間에서 支那人에 對한 偏見이 甚하여 一八六七年에는 政府에서 調査委員을 任命하여 些細한 報告를 받어들엿으며 一八八二年에는 支那政府에 移民調節의 條約을 맺엇다。이렇게 하다가 終是 一九〇二年에는 아조 排斥法을 制定하엿다。

### 2 日本人

一八八五年에 正式으로 入國의 許可가 잇엇다。亦是 民間의 偏見 排斥熱로 因하여 一九〇六年에는 桑港에서 學校 分別制가 實行되엿다。一九〇七年에는 有名한 紳士條約이 兩政府間에 成立되엿으니 이것은 移民을 制限하자는 兩國間의 內約이엇다。이것이 不足하여 一九一三年에는 外國人 土地法이 생기여 土地所有權을 빼앗엇으며 一九二〇年에는 借地權까지 뺏기엿다。

一九〇七年 紳士條約以後로는 寫眞結婚이 盛行되여 法律에 抵觸만되지안는 方法으로 事實上 移民을 增加 시기엿다。이때 米國政府에서는 그 對策을 講究하기 爲하여 머리를 앓게 되엿다。

一九二二年에는 白人과 黑人外에는 同化할수없다는 條件下에서 市民權의 資格을 없이하엿으며 一九二四年 七月一日에는 永久히 排日案이 通過되엿다。이때에 日本은 다른나라와 달라서 反目이 甚하엿으며 國體의 自尊心에 關係된다는 뜻을 보이엇다。

### 3 比律賓人

政治上 米國의 一領土이므로 移民問題에 對하여는 두말이 없어야할것이다。그리하야 比較的 이 近來까지 事實問題를 끄내지않엇다。그 內容은 그들은 米國國民이요 外國人이 아니다。그럼으로 旅行券이 없이 自由로 來國을 許諾하자 그러나 白人이 아니요 黑人이 아닌 黃人種으로 同化가 不可能이니 市民權은 不許함이 마땅하다는 輿論이엇다。結局그 輿論이 勝利를 얻어 一九二八年以後로는 比律賓人에게 市民權을 주지않게 되엇다。

## (五) 移民에對한法律制定

移民에 對하여 正式으로 法律上 干涉을 始作한것이 一八二〇年 九月三十日이다。制限禁止의 法律이 아니라 移民의 保護가 그 主要目的이엇다。一八三〇年頃에 民間에서 移民反對派가 많이 생겻으니 그 主要原因은 當時 外國 貧民들이 많이 와서 一般 公衆에게 큰짐이 되게 한것과 또한가지는 宗敎方面 天主敎가 많이 늘어서 新敎를 壓倒할가 두려워하엿든것이다。勿論 이 反面에 移民歡迎派가 없엇든것도 아니다。

다시 一八四一年에는 經濟上 問題로 輿論이 沸騰하엿다。그것은 生活程度가 얕은 勞働者들이 들어옴으로 말매암어 賃金을 低下시긴다는 條件이엇다。各州에서 州의 法律을 施行하여 이問題를 조금이라도 解決하려하엿으나 州法間에 衝突이 여러方面에 弊害를 끼침으로 一八八二年에는 各州統一한 聯邦法을 制定하엿다。이때에 그 法律上 要求는 (1)移民에對한 人頭稅 (head-tax)五十錢의 賦課 (2)罪囚 精神病者 白痴 公衆에 弊를 끼칠者의 入國禁止 (3)國事犯人을 除한 外에는 一切 外國犯人의 返送(運送會社의負擔으로)云云이다。繼續하여 여러 詳細한 法律이 制定되엇다。

一九一七年에는 學識試驗令(Literacy Test)이 發布되엿다。이것은 十六歲 以上의者로 그母

國의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이라야만 入國할수잇다는 規定이다。이것만보아도 얼마나無知의 大衆이 켜쓸려들엇든 裏面을 窺知할수가 잇다。이와 同年에 發布된 規定中 그重要한것은 (1)人頭稅가 八弗로 올라간것 (2)地理的禁止 地帶의 設定 即中部와 中西亞細亞印度 暹羅 佛領印度支那 아뿌가니쓰탄 아라비아 南洋群島에서 오는 移民의 入國不許 (3)不法의 移民運搬을 敢行하는 運送會社에게는 重罰을 科할것 (4)不法入國後 五年을 無事히 通過한者는 住民의 公認을 받을것云云等이엇다。그러나 이 끝에 規定은 一九二四年에 變更되여 不法入國者는 何時를勿論하고 發露時에 即時 追放할것으로 되엇다。

一九二一年에는 有名한 步合法(Quota Law)이 通過되엇다。이것을 移民의 數를 制限키爲하야 年年이 入國할 移民은 一九一〇年 國勢調査時에 나타난 外國人(外國出生)의 總數의 百分之三以下로 限한다는 法令이엇다。그標準은 外國人을 全體로 算定할것이 아니라各其民族을 標準하는것이다。여러가지로 意見이 많이發表되여 一九二七年에는 步合法이 改正되엇다。即 移民數를 一八九〇年 國勢調査時 外엇人數爻에 百分之二로 變更하고 그分配는 一九二〇年 國勢調査時에 各民族의 割合으로하되 但一年에 歐洲人 步合數는 十五萬名을 超過치 말것이엇다。

이 規定은 徹底히 實行키 爲하야 補助規定이 附加되엇다。그것은 移民査證 "Immigration Visa" 이라 稱하야 外國에 잇는 米國領事舘에서 發行되는것이다。이것은 便宜上 入國資格을 認定하는 표다。그런故로 入國을 許諾하는 표도 아니며 入國時에 當局의 試驗을 免除하라는 뜻도 아니다。領事는 入國을 反對할 權利는 잇으나 許諾할 權利는 없다。步合法을 通用하는 移民外에 步合法에 相關이 없이 入國할수 잇는 移民이 잇다。이것을 非步合移民(Non Quota Immigrant)이라고한다。已往에 排斥法이 制定된 나라사람은 오직 非步合移民의 身分으로만 入國할수가 잇다。그資格은 (1)米國市民의 子女로 十八歲以下의 未婚者 (2)以前市民의 歸來者(一時旅行後) (3)牧師 (4)敎師 (5)十五歲以上의 學生 (6)旅行客이다。以上의 資格에 適合하는 者이면 아모때나 入國할수잇다。그러나 身分이 變할때는 即時 逐出令이 나린다。

步合法中에도 그 先拔條件은 市民의 直系親族 農業者와 그 家族云云이다。이사람들이 먼저 뽑힌 後라야 다른 사람들이 뽑힐수 잇다。

이外에 步合法 非步合法의 障碍가 없이 自由로 다닐수 잇는 나라가 잇다。이것은 地理上의 區別로 西半球에 屬한 나라들이다。(例外도 잇으나) 例를 들면 加奈陀人이나 墨西哥人은 自由로 入國할수 잇다。그러나 人頭稅는 免除치 안는다。

## (六) 將來의政策

以上의 略述한바와 같이 過去의 移民問題의 發生 또한 그것을 反應하여 생긴 各色 政策이 많엇다。方今 實行하는 法令도 不知其數이다。移民問題는 오직 經濟問題만도 아니요 政治問題만도 아니요 人種差別問題만도 아니요 그 여러가지가 微妙하게 얽힌 問題이다。方今 實施되는 政策은 決코 完全한 解決이 아니라고 外部사람들만 認定할것이 아니라 自國人들도 그 不完全함을 充分히 느끼고 많이 硏究하는 中이다。그리하여 年年히 議會에나 其他國事處理問題討議에 이 問題가 提出되며 쉴새 없이 法律改正이 된다。至今生覺中에잇는 問題는 團體的 移民選拔主義보다도 個人選拔主義 即 人種差別보다도 有望하고 優秀한 個人이면 人種의 如何를 가리지 않고 優生學上 選拔을함이 어떠하냐 하는것이다。同時에 解決하기 어려운 宿題는 人口論學說에 依하면 移民의 數爻 即動的人口가 增加할때에 本土人口 即靜的人口는 反比例로 減少되나니 이 現象이 全世界發展上 有利할것인가 有害할것인가 하는問題이다。또한 米國이 門戶開放政策을 쓴다하면 아직 歷史가 얕은 新開國이니만큼 移民을 刺戟시기는 源泉이 됨에 틀림이 없을것이며 너무 閉門主義를 使用하면 國際問題의 親分을 阻害시기여 誤解를얻기쉬운 일인則 여긔에 對한 圓滿한 解決은 常識으로 얻는 判斷하는것보다도 一層 科學的 根據에서 長時日의 熟考가 要求될줄 안다。따라서 今日의 政策이 永久不變하게 實行되지 않을것도 明白한 事實이다。

# 카스믹·레이 (Cosmic Rays) 의 新學說

미쉬간大學 崔 奎 南

本文執筆者 崔奎南君은 一九二六年 延專數物科를 卒業하고 數年間 母校인 松高에 奉職하여 育英事業에 從事하다가 五年前에 渡米한 後 오하요 웨슬레안大學에서 物理學으로 B. A.와 M. A. 를받고 連하여 미쉬간大學에서 數年間 研究하며 Hydrogen Cyanid 라는 毒깨스를 光學的으로 分析하여 새로운 發明을 내여 畢也 榮譽의 Ph. D.學位를 받은 秀才이외다 —(編者)—

얼마前에 主筆 鄭君에게로부터 筆者의 論文 內容에 對한것으로 紹介하여달라는 付托이 잇은 以來 屢次 原稿를 이리뒤척 저리뒤척해보앗으나 到底히 五 六 頁 以內에 短縮하는것도 不可能한 事實이려니와 此方面에 趣味를 두신분도 少數에 不過함으로 이에 中止하고 다른 題目에對하야 간단하게 소개하랴고한다 (누구든지 筆者의 論文內容을 읽고저하면 "Phsical Review"今 十一月號에 出版되겟사오니 參照하여두시기를 바랍니다

現物理界에서 다各各 自已네 學說들이 옳다고 크게 떠드는 問題가 둘이 잇다。첫재는 뉴추란(Neutron)의 存在說이요 둘재는 카스믹•레이에 對한 學說들이다。뉴추란에 對한 이야기는 後日 機會로 미루고 카스믹線에 對하야 筆者가 보고드른대로 大略 쓰랴고한다。이 카스믹線의 存在를 科學界에서 是認하기는 約二十年前이라고 말할수가 잇으나 實際 具體的研究와 實驗에 着手하기는 一九二五年부터라고 믿는다。世界的으로 名聲이 잇는 쉬카고 깽들은 機關銃을 一大發射武器로 使用하지마는 現世 物理學을 研究하는 物理깽들은 「라지움」이나 「유랜니엄」같은 放射能을가진 物質 所謂 "Radioactive Substance" 로 發射機를 삼는다。機關銃으로부터는 겨우 每秒 半哩의 速度로 총알이 쏘다저나오나 이와같은 放射能을 가진 物質로부터는 총알보다 幾萬倍 더 速한 微粒子 或은 電磁波가 放射된다。총알에도 여러가지 種別이 잇는것과 같이 此 放射線에도 세가지 種類가 有하니 即命名하야 알파(Alpha) 뻬타(Beta) 깸마 (Gamma) 線이라한다。一 알파線은 四개의 푸로탄(Proton)과 二개의 엘렉추란(Electron)으로 組成된 힐이엄(Helium)原子의 集合體인대 每秒 萬哩의 速度로 放射하고 陽電氣를 帶하엿으며 二 뻬다線은 陰電을 帶한 엘렉추란의 集合體인대 每秒十八萬六千哩 即 光의速度로 放射하고 三 깸마線은 X光線보다도 더 貫通性이 强하고 波長이 至極히 短한 電滋波다。

如此히 三線의 性質이 特異하나 한가지 共通性이 有하니 即 우리가 呼吸하는空氣 又는 다른 氣體等을 電離시기는것이다。即 라지움(Radium)이나 도리엄(Thorium)같은 放射能이 有한 物質을 空氣中에 置하면 空氣는 帶電된다。電流가 空氣를 通하야 流한다는말이다 그러나 此電流는 極小量임을 從하야 普通流器로는 測定하기 不能하나 精密敏感한 檢電機로는 測定할수가 잇다。然則 讀者諸氏가 무슨 理由로 空氣中으로 電氣가 通하느냐고 反問하실것이다。機關銃알은 人命을 殺傷하며 建物等을 破壞하는 破壞性이 잇다 ◦此三線도 다 그와 같은 破壞性이 有함을 從하야 空氣 分子와 衝突될 때는 空氣分子를 破壞시긴다 即 空氣分子의 外圍에 붙은 엘렉추란을 落打시기는 同時에 中和狀態에 잇든 一개의空氣分子는 二개의 粒子로 分離된다。落打된 엘렉추란은 陰電을 帶할것이며 分離된 他粒子는 아연(Ion)이라고 名하나니 陽電을 帶한다

이것이 곳 物理學上에서 말하는 電離現象이니 空氣中으로 電氣가 通하는 說明이다。實로 此三線은 過去 三十年以來로 物理實驗室에서 가장 必要하게 使用하는 發射武器다。

월프氏는 Eiffel 塔上에 實驗裝置를 한後 此電離現象을 實驗해본 結果 發表하기를 地上보다 其効果가 微弱하다하엿고 一九一一年 스위쓰學者 코켈氏는 輕氣球를 타고 實驗해본 結果 말하기를 輕氣球의 上昇하는 比例대로 放射線의 强度가 增加된다고하엿다。即 電離効果가 强하여진다는 말이다。헤쓰博士는 輕氣球內에 自働實驗器具를 裝置하고 輕氣球를 海拔 一萬六千呎까지 上昇케한後 電離効果를 測定해보앗다。分明히 地面에서보다 大端 効果가 强함을 發明하엿다。氏가 一九一二年 輕氣球를 타고 空中旅行할때에도 同一한 現象을 發見하엿다。氏는 말하되 電離의 効果가 高度에 比例하야 增加된다고하엿다。換言하면 電離作用을 이르키는 放射線의 强度가 高度의 正比例로 增加된다고 말할수가 잇다。然則무슨理由로 電離의 効果가 高度를 따라 變하느냐? 이것이 곳 카스믹線을 發明하는 出發點이며 世界科學者들에게 一大疑惑을 주게된것이다。分明히 外部 어대서부터인지 X光線이나 깸마線보다 더 貫通能이 强한 放射線이 地球를 向하야 投入하는것이라고 或者는 主張하엿다。그러나 一般 科學者들은 冷笑하엿다。밀리캔(Millikan)氏도 그中에 一人이엇다。그러나 氏는 좀더 아라보려고 研究와 實驗에 着手하엿다。輕氣球를 空中十哩까지 올려보내기도하고 自己의 助手들을 파익峰 絕頂까지 派遣도하며 또 自己스스로도 米國서 第一높은 휘늬(Mt. Whitney)山 上峰까지 五百尺이나되는 實驗器具를 이끌고 올라가서 시험한 結果 氏는 알꽈 뻬다 깸마線들도 아니고 X光線도아닌 前에 發見치못한 「새線」을 發見하엿다。또 氏는 放射能을 持한 物質 所謂 “Radioactive Ṡubstance” 가 絕對로 存在치 아니한 깊은 氷水中이나 積雪 속에서 시험한 結果 亦 同一한 새線을 發見하엿다。氏의 시험한 場所를 一一이 枚擧치아니하나 左右間 泰山 峻嶺과 深水廣湖等을 踏破시험하엿고 어대서든지 同一한 새線을 찾게되엿다。이 새線이 곳 筆者가 말하는 카스믹線이다。一九二三年에 처음으로 氏가 自己 시험한 結果를 世上에 發表함으로 米國이나 유룹 物理界에 一大 센세-슌을 이르켯으며 여러學者들은 實驗과 研究에 着手하엿다。그러나 氏가 이 카스믹線을 처음으로 發明한것은 아니요 여러가지 千辛萬苦를 무릅쓰고 實驗한 結果로 카스믹線의 存在만은 더 鞏固하게하엿다。獨逸學者 「콜헤스터」는 알프스山上에다 氷塊로 實驗室을 짓고 시험한후 主張하기를 이 카스믹線은 멀고먼 星間으로부터 온다고 하엿다。밀리켄氏는 第二次로 뽈리비아와 가나다에 잇는 高山中에서 研究를 게속하엿으며 『레겐너』氏는 스위쓰랜드에 잇는 컨쓰탠쓰 湖水물속 七百七十五呎下에 시험器를 장치한후 實驗해본 結果 亦是 카스믹線을 發見하엿다。然則 現世界 科學界에서 카스믹線의 存在는 否認치못할 事實이려니와 남은問題는 어대로부터 또 무엇으로 組成되엿느냐 하는것이다。此問題를 完滿히 解決하는것은 그렇게 容易한일이 아니다。異口 異聲으로 여러가지 學說이 돈다。甲은 自己의것이 옳다고하고 乙은 丙의것을 論駁한다。그러나 筆者가 第一有力하다고 생각하는學說 몃가지를 소개코저한다。첫재로 밀리켄氏의 學說을 소개해보자

氏는 主張하되 카스믹線은 星間으로부터 오는 波長이 至極히 短한 波動이라고한다。깸마線에 近似하나 勢力(Energy)은 百倍나 더 强하다고한다 二千五百萬뽈트 乃至四億뽈트의 勢力을가졋다고 말하엿다。이 世上 모든物質은 엘렉추란과 푸로탄으로 組成되엿다。理論上으로 엘렉추란과 푸로탄만 가지면 무슨物質이든지 願하는대로 만들수가 잇을것이 例컨대 水素는 엘렉추란 한개와 푸로[illegible] 개로 되엿고 힐이엄은 四개의 엘렉추란과 四개의 푸로탄으로 되엿다。換言하면 水素原子 四개가 合하야 힐리엄原子 一개가 되엿다。然則 理論上으로 힐리엄은 水素보다 四倍가 重한것이다 그러나 實際에잇어서는 힐리엄의 重量인즉 三•九七이니 남어지 重量 〇•〇三

은 무엇으로 化하엿느냐가 問題이다 아인쉬타인의 相對性原理에 依하면 質量은 勢力이라하엿다。質量을 勢力으로 變할수가 잇다는것이다。然則 남어지 重量 ○•○3은 勢力으로 變할수가잇나니 此勢力이 곳 카스믹線의 起源이라는것이 밀리켄氏의 學說이다。커 멀고먼 星間에는 幾億萬의 엘렉추란과 푸로란이 浮遊한다。浮遊하다가 合하면 새 物質이 成生하고 새 物質이 成生되면 카스믹線이 發射된다는 말이다。換言하면 카스믹線은 新物質 成生하는대 副産物이라는말이다。

둘재로 獨逸學者들의 學說을 소개코저한다 콜회쉬터(Kolhoster)와 뽀터(Bothe)氏는 말하되 카스믹線은 大端 速度가 빠른 엘렉추란으로 組成되엇다。그러나 밀리켄氏는 이學說을 反對하엿다。萬一 두 獨逸 學者의 主張대로 實로 카스믹線이 엘렉추란 即至極히 적은 電粒子로 되엿다하면 카스믹線은 地磁氣力의 影響을 받울것이다。南北極 附近에서는 이 카스믹線이 地方線의 方向대로 螺旋狀을 읠울것이오 從하야 그 强度가 赤道地方보다 强할것이다。밀리켄氏는 헏슨灣에서와 南極으로부터 二百五十哩되는 곧에서 시험을 해보앗으나 上記 現象을 찾지못하엿다。米國에서 觀察한 現象과 同一하엇다。換言하면 카스믹線의 强度는 緯度와 關係없이 어대든지 同一하다는 말이다。

셋재는 캄른氏의 學說이다。氏는 말하되 카스믹線은 또탄(Photon)으로 組成되엇으며 星間으로부터 오는듯하다고 하엿다。然則 또탄이란 무엇인가? 最近 Quantum Theory 에 依하면 光은 여러 『小包』들로 組成되엿다고하며 그 小包들을 名하야 또탄이라고한다。엘렉추란의 質量을 水素의 質量의 一千八百分之一이라고하면 또탄의 質量은 엘렉추란의 質量二十萬分之一이나 되는 至極히 小한 光의 [illegible]成의 單位이다。카스믹線의 勢力은 星光의 [illegible]과 거이 同一하다하엿으니 그勢力이 莫[illegible]것은 勿論이다。카스믹線은 原子內에 잇는 核(Nucleus)을 破壞하야 엘렉추란과 푸로탄으로 分할만한勢力을 持하엿으니 實로 그 勢力인즉 莫大하리라고 推測된다고 氏는 말하엿다。캄른氏는 昨年七月에 一千七百五十斤이나되는 重한 試驗器를 이끌고 우라키山中에서 硏究하엿으며 十月에는 알프쓰山中에서 實驗하엿다。氏는 이 카스믹線이 어대로부터 또는 무엇으로 組成된것을 期必코 解決할 目的으로 世界的으로 探險隊를 組織하고 六箇月間 遠征의 길을 出發하엿다。今年三月 十八日 自己夫人과 十四歲된 아들을 帶同하고 羅城을 出發하야 파나마로 向하엿다。페루(Peru)(南亞米利加) New Zealand, Australia, Hawaii, Alaska 等地를 踏破實驗할 計劃이다。氏의 第一分隊는 南아푸리카에서 第二分隊는 印度等地에서 實驗硏究中이다 氏의 團員中 두 靑年은 McKinely山을 探險實驗하다가 不幸히 눈함정에 빠저서 死亡하엿다。實로 이 두學者는 自己의 貴한 生命을 카스믹線에 희생한 殉死者이다。世界 科學者들은 氏의 시험 進行과 結果를 注目하고잇다。氏는 今年 五月七日附로 "Physical Review" 主筆에게 簡單하게 自己 實驗結果를 片紙하엿다。그 通知內容發表에 依하면 카스믹線의 强度가 緯度를 따라 變한다고 하엿다。氏는 緯度 南四六度와 北四十七度間에서 實驗해본結果에 均一한 强度變化를 觀察하엿다。赤道를 爲始하야 南北極으로 갈사록 카스믹線의强度는 增加된다고하엿다。然則 밀리켄氏의 主張과는 正反對로 獨逸學者들의 主張 即 카스믹線이 엘렉추란으로 組成되엿다는 學說이 有理한듯하나 아직 斷言키는 어려운일이다。밀리켄氏는 C.I.T.의 物理部主任이오 캄른氏는 쉬카고大學物理科科長이다。兩氏가 다 노벨賞金을 탄 世界的物理學者들이다。그네들의 싸움이 앞으로 如何이나 展開될는지 참으로 興味잇고 注目할만한일이다。筆者는 이와같이 말하고싶다。밀리켄氏의 學說이 多少 危險性이 없지아니한가 생각된다。勿論 氏도 正確한 實驗을 基礎로한 學說인것은 事實이다。그러나 그와같이 단관씨름格으로 判斷을 나리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氏가 말하대 카스믹線은 新物質成生의 副産物이라고하엿다。그러나 그 亦 實際로 우리가 實驗室에서 새物質을 우리의 손으로 創造하고 同時에 카스射線發射를 實驗으로 觀察하기전에는 氏의學說을 眞理라고 믿을수가 없다。침묵을 지키고 마루아래 업대인개가 도적을 무는것이 常例이다。캄른氏가 此카스믹線에 對하는 態度는 언제든지 謙讓하는 態度이엇다。잘모른다고하엿다。그러나 氏가 計劃해오든 今番 世界的探險硏究로부터 무슨眞理의 喜消息이 올줄믿고 擱筆한다。 —九三二•八•一—

# 實 業 政 策 論

商學士 韓 昇 寅



## (一) 實業의活動과그分類

한 棉織工場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을하는 勞働者가 잇다。그는 棉糸를 가지고 棉織物을 만드는 일을하고 잇다。經濟學者는 此를 物의 形態를 變하게하는 經濟的 活動이라고 말한다。

한 商店에 어여쁜 女子가 서잇다。그는農場이나 工場에서 만든 商品을 顧客에게 파는 일을하고 잇다。經濟學者는 此를 가라처서 物의 場所를 變하게하는 經濟的活動이라고 한다。

한 조용한 事務室에 白髮이 성성한 老紳士가 앉어잇다。그는 各課에서 오는 書類에 署名을 하는일을 하고잇다。우리는 이 老紳士를 한 會社의 總支配人이라고 말하여두자。또 어떤 事務室에 한 青年이 앉어서잇다。그는 먼 곧에 잇는 顧客에게 註文을 받아서 그書類를 販賣部로 넘겨주고 또는 販賣部에서 그 註文을 酬應할때에 거기에 첨부하여 보내는 送狀(Invoice)을 쓰는 일을 하고잇다

또 어떤 事務室에는 青年들이 앉어서 會社의 金錢出入을 會計帳에 記錄하는 일을 하고잇다。

우에서 말한 老紳士가 署名을하는 일이라든지 青年이 註文書類를 整理하는것이라든지 또는 會社의 金錢去來를 記錄하는 職務는 物의 形態를 變하는 일도아니고 物의 場所를 變하는 일도 아니다。다만 그 두 活動을 련락하고 또는 便利케하는 일을 할따름이다。經濟學者는 이러한 活動을 여러 모양으로 名稱한다。或은 便利的 活動(Facilitating—Activities)이라고 하고 或은 管理(Administration)라고도한다。

筆者는 여기에서 後者를 採用한다。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經濟的 活動을 세가지 部門으로 大別할수가 잇다。

(1) 生產—이는 工場의 勞働者가 그 代表이고
(2) 分配(或은販賣라고도함)—이는 商店의 女子가 그 代表이며
(3) 管理—이는 事務室의 老紳士와 青年들이 그 代表이다。

이와 같이 實業의 部門을 單純하게 大別하는것은 學術的研究에 한 便利를 주기 爲함이고 決코 그러케 分類하야만 된다는것은 아니다。우에서 말한 세가지의 實業活動 곳 生產 分配及管理를 잘 련락식히고 잘 支配하면 實業의 目的인 利益을 生할수잇고 그러치 못하면 損害를 當할것은 勿論이다。그와 같이 重要한 職務를 總轄的으로 마타서 할 사람은 우에서 老紳士로서 代表한 總支配人이라고 할수잇다。그런 故로 本文에서 論하려고 하는 點은 어떤 會社의 總支配의 資格에 앉어서 어찌하면 生產을 잘하고 分配를 잘하야 利益을 나게 할수 잇을까 하는 그것이다。此를 詳細하게 論하자면 길다란 책을 일우어야만 될이므로 여긔에서는 다만 그骨子만 들어서 略述하려고 생각한다。

## (二) 生產政策

### (가) 合理的生產

有史以來로 未曾有의 大恐慌을 當하고잇는

이때에 到處에서 「計劃的生產」이란 말을 많이 한다。그 意味를 簡單하게 말하자면 生產과 分配를 平均하게 하자는것이다。다시말하면 生產을 너무 많이하지도말고 너무적게하지도 말며 할수잇는대로 消費者들이 쓸수잇는 分量에 適當하도록 生產하라는것이다。이는 勿論 現在 經濟恐慌의 一原因이 生產過剩에 잇다는것을 是認하고 하는말이다。物品을 生產함에 잇어서 消費者들의 購買力을 細密하게 調査하여가지고 거기에 適應하도록 하는것이 必要할뿐만 아니라 物品을 눅게 만들고 잘만들며 또한 빨리 만드는것이 또한 必要하다。이와 같은 理想的 生產을 期함에는 左의 몇가지 條件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 (나) 工場의位置

生產의 本營은 工場이다。그러므로 그 位置를 適宜한 곧에 두고 못두는데 生產能率에 密接한 關係를 가지게된다。어떤 牧師의 말에 依하면 工場의 位置를 擇하는데는 수물여섯가지 條件이 必要하다고 한다。그中에서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條件 몇가지를 들자면 이러하다。

1. 原料地에 接近할것

原料는 生產의 三要素의 하나이니만큼 此를 가장 눅게 또는 많이 언제든지 必要할때에 쓸수 잇어야 할것이다。原料를 供給하는 場所가 너무 멀어서 그것을 運搬하는데 長久한 時日을 要한다든지 또는 運搬費가 너무 많다든지하면 아니될것이다。

2. 勞働者를 求하기 쉬운곧

熟練勞働者나 未熟練勞働者나 精神勞働者를 勿論하고 此를 容易하게 供給할수 잇는 곧이라야 할것이다。勞働者는 商品처럼 마음대로 運搬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또한 그 費用이 많이든다 勞働者를 雇傭할때에 그들의 體力 智力 性格 及 經驗等을 잘 觀察하여야 할것은 勿論이지마는 그들의 思想까지 알아보는것이 必要하다。어떤 勞働者는 思想이 穩健하지못하야 함부로 同盟罷業을 煽動하고 無理한 要求를 强請하는 弊習이 잇는까닭이다。

3. 金融調達이 便利한곧

地方에 따라서 金融機關이 잇는곧도 잇고 없는곧도 잇으며 金利가 높은 곧도 잇고 낮은곧도 잇다。그런고로 工場의 位置를 定할때에는 金融의 便利를 미리 調査하여보고 作定할것이다。

4. 市場에 接近한곧

商品은 팔기爲하야 만들며 그것을 파는곧은 市場이다。商品을 需要하는 市場이 갓가울사록 生產者에게는 더욱 有利하다。市場의 갓가우면 運搬費가 적게들고 따라서 눅게 팔수가잇다。그뿐만 아니라 市場이 갓가우면 顧客들과 親히 對面하야 交際할수도 잇고 그市場의 變遷을 빨리 알아낼수도 잇다。丁抹의 鷄卵이나 빼터(牛酪)같은 產業이 잘 發達된것도 英國이나 其他 歐洲諸國에 좋은市場이 잇는 까닭이다。

5. 運輸交通이 便利한곧

지금은 速度의 時代(Time of Speed)라고 말한다。思想에 그러하고 文化界에 그러하고 實業에도 그러하다。지금은 實業을 經營함에 잇어서 모든 動作을 빨리하야만된다。顧客이 注文한 商品은 빨리 보내주어야만 되는 時代이다。나날이 變하는 流行을 남보다 빨리 順應할사록 利를 보는 時代이다。나의 商品을 사는 顧客은 때때로 나의 工場을 實地로 보기를 願하는 사람이 잇다。運輸交通機關이 잘 設備된 곧일스록 그 費用은 더욱 눅다

6. 地代가 눅은곧

商工業國의 例를 보면 工場이 漸漸 시골이나 市外로 集中하는 傾向을 볼수가잇다 그 큰 原因의 하나는 시골이나 市外에 地代가 눅은 까닭이다。시골은 地代만 눅을뿐 아니라 火災保險料 같은것도 눅은 경우가 많이 잇다。地代만 사다고 해서 시골에 工場을 세울것은 아니고 다른 條件까지 생각해서 할것은 勿論이다。

7. 文化機關이 잇는곧

工場이 잇는 곧에는 人口가 모혀들고 따라서 한 社會가 構成된다。그런故로 子女들의 敎育問題가 생기고 娛樂機關의 必要

도 느끼게된다。사람은 禮儀잇고 親切한 社會에서 살기를 願한다。그래서 敎會도 必要하고 俱樂部같은 社交機關도 必要하다。이러한 文化機關뿐만 아니라 病院과 같은治療所도 必要하다。勞働者들이 職業을 따라서 다른 地方으로 가려고할때에는 이러한 點을 많이 생각한다。

8. 擴 張

工場의 位置를 定할때에는 반드시 將來에 그 工場을 擴張할것 까지 생각하고 擇하야만 된다。얼마간 實業의 規模가 커진後에 갑작이 工場을 增築할 必要를 느낄때에는 場所를 求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잇고 잇다고 하더래도 대단히 많은 資金을 要하는때도 잇다。그러타고해서 다른 곧에 移轉한다고 하더래도 큰 經費를 쓰게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工場을 세울때에 將來에 持續할만한 程度를 미리 생각하여가지고 하면 큰損을 免할수가 잇다。

9. 其 他 條 件

工場의 位置를 定하는데 必要한 條件을 말하자면 얼마든지 더 말할수가 잇다。紙面관게로써 그것을 一一히 列記할수없고 우에서 말한外에도 重大하다고 생각하는 條件을 總合하자면 (一)警察制度가 完備하야 安寧秩序를 保存할수 잇는곧 (二)氣候가 좋은곧 (三)工場法律이 有利한곧 (四)租稅가 눅은곧 (五)火災 風災 水災 地震等 天災가 적은곧 (六)水力이 좋은곧等等이다。

工場位置에 對한 條件이 이모양으로 많기때문에 어느곧이 좋다고 一言으로 말하기가 甚히 어려운것이 事實이다。要컨대 모든 條件을 細密히 解剖하고 또 除去하야가지고 시골이나 市外나 또는 都市에엿그位置를 定할수 잇다는것만 附言할뿐이다。

## (다) 工場의構造와 機械의設置

工場의 位置를 定한 後의 문제는 工場을 建築하고 機械를 設置하는것이다。이는 專門技師가 할일이니만칩 細密한 點을 다 論할수 없고 여기에서는 다만 몇가지 重要原則에 對하야만 一言하여둘 따름이다。工場을 建築하며 機械를 設置함에 잇어서 첫재로 생각할 것은 生産의 能率을 增加함에 잇는것은 勿論이고 또한 工場建築物과 그안에 設置하는 機械는 密接한 관게를 가지고 잇음으로 兩者를 區別하여가지고 論할수가 없는것이다。故로 工場을 建築할때에는 집부터 지어놓고 機械를 設置하는것이 아니고 工場을 짓기컨에 몬저 機械를 어떠케 設置할것을 圖案으로써 設計하여가지고 建築을始作하는것이 常例이다。

工場을 지을때에 결정할것은 建築物의 樣式이니 말하자면 한층집을 지을든지 여러층집을 지을든지 或은 四方形으로 할른지를 생각할 必要가 잇는것이다。建築物의 層數에對하야서는 製造品의 性質에 따라서 相當할것이다。가령 말하면 機關車같은 무거운 物品을 만들때는 한층집이 理想的일것이고 紙面이나 織物과 같은 가부여운 物品을 製造하랴면 여러층집을 지어도 무방할것이다。工場은 住宅과 달라서 火災를 當하기 쉬으므로 할수잇는대로 防火材料로써 建築하면 더욱 좋은것이다。工場을 짓는데 特別히 着目할 點은 工場의 交通이니 昇降機라든지 自働車같은것이 잘 通行하야 原料와 製造品을 가장빨리 또는 눅게 運搬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다음에 重要視할 點은 光이니 日光과 電光이 工場에 잘 빛치도록 할것이다。집웅과 벽에 여러가지 硝子를 使用하야 晝間에는 自然이 供給하는 日光을 할수잇는대로 많이 利用할것이고 日光을 쓸수없는 경우에는 電燈을 利用할것이다。어떤 工場에 가보면 費用들것만 생각하고 電氣를 쓰지아니하므로 地獄과 같이 컴컴한 곧을 볼수가 잇다。工場에 빛이 넉넉하지못하면 勞働者의 健康을損하고 作業의 速度가 느리며 事故가 많이생겨서 生産의 能率을 減退하게 된다。

工場을 지은 다음에는 機械를 設置하는것이 順序이니 이미 一言한바와 같이 工場을지으려고 할때에 몬저 機械設置까지 大體로 設計하여가지고 하는것이 常例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設置할것은 勿論이다。機械를 設置하는데는 勿論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려니와 그

要點을 말하면 原料가 드러가는 곧부터 完成品이 되여가지고 나오는 곧까지의 모든過程이 가장 組織的으로 運轉되도록하여야 할것이다。우에서도 말한바와같이 工場을 짓고 機械를 設置하는것은 그렇게 單純的일이 아니고 매우 複雜한 문제이므로 建築家나 技師가 아니면 此를 充分히 論할수가 없다。要컨대 工場을 세우려할 때에는 그 方面에 專門技術이 잇는 사람을 招聘하야 周到한 設計를 만든後에 비로소 作業을 시작할것이다。

이 문제에 對하야 마즈막으로 생각할것은 豫算이니 집과 機械를 할수잇는대로 豫算에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設備하여야할것이다。만일 豫算한 金額보다도 훨신 많은 金額을 使用하게되면 다른 곧에 쓸 豫算에 損을 주게되고 좀잘못하면 事業全體에 惡影響을 받게될 念慮가 잇는것이다。

### (라) 材料와勞働

一定한 場所에 工場을 세우고 機械를 設置한後에는 生產을 始作하는것이 다음 順序이니 여기에서 商品을 生產할 材料와 機械를 運轉할 勞働者가 必要한것이다。生產에 必要되는 材料를 求하는데는 네가지 條件을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1) 材料의 種類

한商品을 製作하는데 여러가지 材料를 쓸수 잇나니 가령 말하면 土器를 굽는데도 여러가지 흙을 使用할수 잇고 椅子를 만드는데도 여러가지 木材를 쓸수가 잇다。그러나 그 中에서도 가장 有利한 材料를 選擇할수 잇는것이니 어떠한 材料를 勿論하고 比較的 갓가운 距離에서 눅은 價格으로써 求할수잇고 또한 그 材料가 오래동안 없어지지 아니할것이라야만 될것이다。만일 그 材料가 不遠한 將來에 없어질것이면 此를 代身할 材料가 잇는가를 알아보아야 할것이다。오늘 各國에서 石炭 石油 鐵等의 原料가 漸漸없어질것을 념려하고 그것을 代用할수잇는 材料를 硏究하고 잇는것도 그러할만한 理由가 잇는것이다。製造業者는 언제든지 良好한材料를 使用하고 商品의 質을 向上하야 消費者에게 滿足을 주도록 努力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 實業家中에는 너무도 自己의 貪利를 채우기에 汲汲하야 不良한材料를 使用하고 商品의 質을 좋지 못하게하는일이 가끔 잇는것은 實로 不正當한일이라고 아니할수없다。

(2) 材料의 支配

商品을 만들때에는 적어도 半年乃至一年間에 팔수 잇을만한 數量을 미리調査하며 심지어 매달이나 매週日 或은 매날에 얼마씩 生產할것을 可及的 正確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適應한 材料를 사오도록 하여야할것이다。너무 많은 材料가 너무 오래동안 倉庫에서 묵게되면 그만한 資本이 固定될뿐아니라 좀잘못하면 材料가 破損하게 되는수도잇다。그와같이 너무많은 材料를 차하두는것도 不利한 同時에 너무 적은 材料를 준비하는것도 또한 危險하다。갑짝이 註文이 殺到하야 短時日內에 生產을 增大하야만 된다든지 임의 註文한 材料가 內亂或은 天災로 因하야 지체된다든지 하는 非常事를 위하야 一定한 材料는 언제든지 倉庫에 준비하는것이 必要한것이다。

그리고 材料를 買入하는데는 항상 物價와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잇나니 가령말하면 物價가 올라갈 징조가뵈이면 아주 올라가기前에 材料를살것이고 그에 反하야 物價가 나려갈 傾向이 뵈이면 아주 나려갈때를 기다려서 사는것이 勿論 有利할것이다。만일 物價의 變動이 너무도 甚하야 그 高低를 豫想하기가 極難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多量의 材料를 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조금씩 매양 所周되는 대로 사는것이 有益할수도잇다。이 모양으로 材料를 買入하는데 여러가지 條件과 관게를 가지고 잇음으로 얼마나한 數量을 준비하며 어떠한대에 살수잇다는것을 一律로 말할수는 없다。要컨대 過去의 經驗에 依하야 한해나 한달 이라든지 或은 한 週日間의 生產量을 미리 알어가지고 材料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注意할것이며 同時에 物價의動態를 때때로 注目하야 가장 低廉한 價格으로 買入하기를 피할것이다

(3) 材料의 利用

材料를 사드린後에 着心할 點은 어찌하면 材料를 가지고 제일 많은 收入을 내게할까 하는것이다。그렇게 함에는 材料를 가장 有効하게 利用할것이니 첫재로 그것을 消費하지 말것이며 둘재로 그 材料에서 생기는 副産을 잘 處理하여야 할것이다。最近에 각會社마다 實驗所를 設置하고 化學이나 物理學을 專用한 사람으로 하여금 材料를 해부하고 또는 實驗하게 하는것은 그 材料를 어떤곧에 어떠한 모양으로 잘 利用할수잇을까를 發見하고저함에 잇는것이다。

우에서는 生産에 使用하는 材料에 對하야 一言하엿거니와 지금은 機械를 操縱하는 勞働에 對하야 몃마듸를 첨부하려고 생각한다

勞働에 對한 문제는 機械라든지 材料에對한 문제와는 퍽 다를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前兩者는 物體와 관련된 문제이고 後者는 人類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雇主는 勞働者에게 할수잇는대로 적은 賃金을주고 할수 잇는대로 많은 勞働을 搾取하려하며 그 反面에 잇어서 勞働者는 할수잇는대로 적은 勞役을 하고 많은 賃金만 받겟다고할 利己的 態度만 가지고는 到底히 互相 利益을 보증할수 없을뿐아니라 도리혀 社會에 큰 害毒을 끼치게되는것이다。그런고로 勞働者는 自己가 맡은 職業에 忠誠을다하고 雇主는 勞働者에게 相當한 보수를 주어야만 할것이다 勞働者로 하여금 그職業에 誠力을 다하게하는데는 그를 칭찬이나 한다든지 或은 죰처럼 강제하는것으로는 到底히 不可能한일이고 다만 物質的 보수와 人類的 待遇로야만 可能할것이니 (一)勞働에 相當한 賃金을 支拂하고 (二)그들의 職業을 보증하며 (三)그들로 하여금 會社의 管理에 一定한 權利를 주어서 會社의 일에 취미를 두게하며 (四)勞働時間을 短縮하야 勞働者로 하여금 餘暇를利用하게하며 (五)作業所를 改良하야 勞働者의 健康을 保存하며 (六)그들을 訓諫하야 地位와 부수를 向上시키며 (七)勞働組合과 協調하야 그들이 要求를 어느程度까지 聽取하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이러한 몃가지 條件을 實現하기 爲하야 先進諸國에서 여러가지 方法과 手段을 實行하여보는 中에 잇으며 그 中에는 相當한 成績을 가지고 進行하는것을 볼수가 잇다。(우라키 第五號 拙稿 雇主의失業對策 叅照)

各國에서 實行되는 勞働政策을 여기에서는 다 論述할수없거니와 要컨대 위선 勞働者를 商品으로 看做하지 말고 한 人類로 待遇하는것을 原理로 삼어야 할것이며 雇主와 勞働者가 서로 利益을 볼수잇는 方法을 取하여야 할것이다。(次號에게속)

附言 拙論을 한번에 마치려고 始作하매 制限잇는 紙面으로는 마칠수가 없게되엇다 。그래서 後文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엇다。

(七頁에서)

어찌나 될것인가? 更言하면 「正義를 無視하고 暴行을 繼續하겟느냐?」가 問題이다。짧은 標準時間을 하고보면 人道正義의 勝利가 杳然하다。이는在來의 國家主義 暴力主義의 奴隷이든 社會를 一朝一夕에 更生시키기 不能한 所以이다。그러나 國家中心的 道德標準 爲國的 誘惑(一名敎育)을破壞하고 人道的 敎育과 有機的 相護心이 代入될 그날이 잇을것이다。이런 社會에서 비로소 人權蹂躝과 世界平和 攪亂者를 罰하여 國際 安寧秩序를 保全할것이다。國際聯盟이 人文制度인 以上 組織的 變遷과 有機的 新陳代謝도 잇을것이나 看板이야 무어라하든 體裁야 어떠하든 國際中央機關은 繼續存在할터이며 人類社會의 最高思想을 追求하여 不絕不息히 努力하리라 믿는다。

表雲에 뜬 저 기럭아
우름 소래 높이 저라
가잘 길도 멀거니와
山川 좇아 寂寞하다

(一九三二 一〇 一七夜)

◇ ◇

## 附

筆者는 이問題를 專攻한다하여 執筆한것이아니라 이 號「우라키」를 編輯하시는이의 誠力에 몃分에 하나라도 敬意를 表하자하여 그의주신 題目에 門外漢의 劣見을 적는것뿐입니다

# 數學의由來와 其任務에對한一考

시카고大學 張 世 雲

**【一】 가장오랜 歷史**를 가졋고 科學基礎의 一인 職分을 가지고 잇는것은 數學이라고 하겟다 이제 下에 數學에 對한 몇部分의 이야기를 할수잇는 程度內에서 簡單히 通俗的으로 紹介코저 한다。

**【二】 數學의起源** 數學도 亦是 人類生活의 必要에 依한 不可缺할 產物中의 一이라고하겟다。數學을 產出케할 어떤 必要條件이 없엇더면 今日까지에 發展되여온 數學이 存在케 되지않엇으리라고 생각한다。一二三四等數의 旣念 一에다 一을 加하면 二가되고 二에다 또 一을 加하면 三이 된다는等 뒤집어서 二에 一을 減하면 一이 된다는等을 人類가 알던 其時期가 原始 數學의 起源이엇을것이라고 하겟다。

春節에 「나일」江을 넘어오는 自然肥料를 利用하여 農作하든 「나일」江畔을 둘러 居住하든 埃及民族에게는 圖形을 論하는 幾何學을 研究할 必要가 잇엇다。每年마다 漲水에 없어진 各農民의 所有地區를 區分함에는 單純한 幾何學의 定理가 많은 도음을 그들에게 주엇을것이겟다。이렇듯한 必要條件은 古代埃及民族으로 幾何學을 처음으로 研究케한 原因中의 一이라고한다。

古代 「빠벨논」王國에서는 天體를 崇拜하는 宗敎를 가졋엇다한다。그래서 精確한 天體運行의 記錄을 가저야 될 必要가 잇엇겟다。따라서 天文學을 研究케 되는 同時에 天文學을 研究함에 없지못할 數學을 研究케되엇다한다。印度 같은 곧에서도 人類의 生과 넓은 宇宙를 互相聯絡함에 많은 趣味를 가진 宗敎를 가진 까닭으로 勿論 天體를 研究함에 많은 時間을 넣엇다。이를 完成키 爲해서는 數學도 自然히 研究케 되엇다。近代에서도 새로 惹起하는 物理 天文及化學等에 關한 理論을 說明키 爲해서 새로운 數學部門을 案出하엿다。微積分學等의 起源及發展이 其一例이다。將來에서도 어떤 必要條件下에서 새로운 數學部門이 發展되리라고 생각한다。

**【三】 數學의本質** 前述함과 같이 數學은 人

# 數字아메리카研究

X Y Z

쪼각 페이지의 남음을 기웁기 위하야 이제 重要한 統計表 몇을 여기에 紹介한다。黃金의 나라라고 하면 누구나 「아메리카」 를 聯想하며 많은 想像과 臆測을 나리기에 주저치 않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안다。이 點에 느낀바 잇어 이 米國의 現實과 實體를 把握할수잇는 正確한 統計는 못될망정 이 적은 몇篇의 數字나마 初學者 諸賢에게 아메리카 認識과 研究의 한 도음이 된다고하면 여긔에 그 意義가 充分하다고 믿는바이다。

## I 米國人의出生率

| 年度 | 男子 | 女子 | 計 | 千分比 |
|---|---|---|---|---|
| 1915 | 398,615 | 377,689 | 776,304 | 25.1 |

類生活의 必要條件下에서 其源을 始하엿다고하엿다。그러면 數學의 基礎가 物質的實在에잇느냐함에는 肯定키 어렵다。事實 純 數學은 物質的 實在와는 關係가 없다。天文 物理 化學等은 物質的 實在를 論하는 科學이지마는 數學은 不然하다。數學의 定理及理論은 全혀 抽象的 假定 及一般 人類가 쉽게 公認하는 公理에 據하여 漸漸 複雜케 發展된것이다。高等數學을 研究하여 보아도 釋析的方面으로보면 單純한 加減乘除四則과 그밖에 三四의 數學的法則을 複雜化한것이 現存한 모든 釋析的 數學部門들이라고하겟다。우리가 말하기를 二에다 三을 乘하면 六이된다하자 應用的 解說은 頗多하다。每月二圓式三個月동안 學費를 納入하면 都合六圓이된다던가 或은 二學生이 各各三部의 書籍을 가졋다면 都合 書籍部數는 六이된다는等으로 解說을 줄수 잇겟다。그러나 純數學 方面으로 보면 數學에서 定義를 與한 數二와 三에다가 數學法則 乘法을 使用하면 六이된다는것 밖에는 없다。實在와는 全혀 獨立되어잇다。

다른 모든 科學들은 各其科學에 關係된 어떤 實在에 關한 學說을 說明 或은 證據키 爲하여 數學의 法則을 信用하지마는 純數學으로서는 此等實在를 說明커나 解釋하려는바가 本目的이아니다。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의 學說과 理論은 어떤 新事實의 發見으로서 一時에 確認하던 學說이나 理論이 반드시 變更되어야될 境遇가 많지만은 數學에서는 한번 確證한 定理다。理論은 誤謬로 歸케되는 例가 甚히 稀少하다。그러므로 數學은 萬古不變하는 眞科學이라고 稱할만하다。例컨대 近代에서 問題거리가 되든 유클닛幾何가 옳으냐 或은 非유클닛幾何가 옳으냐하든 問題는 다만 어느것이 더 人類에게 應用되겟느냐하는 問題이고 純數學의 見地로서는 둘다 眞理라고 認하겟다。其 理由로서는 兩種幾何의 定理의 基礎인 假定에 相異한바를 取擇하엿을뿐으로 純數學에서는 假定을 擇함에는 自由라고 認할수잇다。應用方面에 關하여서도 유클닛幾何事의 定理는 比較的 적은 空間에 適用할수잇고 非유클닛幾何는 莫大한 空間에 其定理를 應用할수잇다。(유클닛及非유클닛幾何에 關한바는 우라키 第三號에 揭載한 本記者의 글을 參照함을 바란다)

**【四】 數學의發展** 數學은 오랜歷史를 가졋을뿐아니라 어느 時代에서든지 조금식 繼續發展되엇다고하겟다。今日까지에 온 歷史를 보면 現存한 數學은 어떤 一時代 어떤 一個人이나 어떤民族의 努力으로된것이 아니다。例를 擧하면 埃及에서 始作된 幾何는 希臘에서 完全한 一個의 科學으로 化하엿다。古代「빠벨논」에서 使用하든 六十進法 (現代에서도 角의 度數를 計算함에 使用함) 古代 印度에서

| 年度 | 男子 | 女子 | 計 | 千分比 |
|---|---|---|---|---|
| 1920 | 775,322 | 733,552 | 1,508,874 | 23.7 |
| 1925 | 966,973 | 911,907 | 1,878,880 | 21.5 |
| 1926 | 953,638 | 902,430 | 1,856,068 | 20.7 |
| 1927 | 1,099,287 | 1,038'549 | 2,137,836 | 20.6 |
| 1928 | 1,147,625 | 1,085,524 | 2.233,149 | 19.8 |
| 1929 | 1,114,814 | 1,055,106 | 2,169.920 | 18.9 |

## 2 米國人의死亡率

| 年度 | 男子 | 女子 | 計 | 千分比 |
|---|---|---|---|---|
| 1915 | 234,871 | 201,722 | 436,593 | 14.1 |
| 1920 | 438,201 | 397,933 | 836,134 | 13.1 |
| 1925 | 555,267 | 475,251 | 1,030,518 | 11.8 |
| 1926 | 589,653 | 503,857 | 1,093,511 | 12.2 |

使用하든 數學 1 2 3 4……等 (現代에서 所謂 아랍비아數字라함) 그밖에 算術及代數法則은 追後로 「아랍비아」에서 몇 世紀동안 保存 發達하엿다。「아랍비아」에서 保存되엇든 數學은 다시 印度及歐洲로 다시 輸出되엇다。數學이 없던 時代 없든民族에서 赫赫하게發達되다가 어떤 時期以後에는 該 民族에서는 아모 發展이 없어 姑息生活을 하든가 或은 죽혀 消盡되는 境遇가 많엇다。그러는동안 그같은 數學을 새로히 받어드려온 어떤 他民族에서는 그 어떤 新方面을 向하여 그 받어온 數學을 發展시겻다。

古代 埃及이나 印度에서는 數學이 宗敎를 指導하는 僧侶의 手中에 잇어서 그 數學法則이 한 神秘術化하여잇엇고 科學的 證明에는 重視치 않엇섯다。此에 反하여 希臘에서는 數學定理에 關하여 科學的 證明을 重視하엿을뿐 아니라 純數學의 基礎를 確立함에 더욱 努力하엿섯다。古代빠벨논이나 印度에서는 數學은 天文의 從屬物로 認하여 天文을 硏究하기 爲한것으로 硏究되여왓으나 希臘에서는 數學을 一種獨立的 科學으로 硏究하엿섯다。

各國民性을 따라 그國民의 硏究하는 數學의 方面도 各殊하다。理論方面에 더 趣味를 가진 獨逸及佛蘭西같은 곧에서는 純數學이 더욱 發展되엇고 實用方面에 技能을 많이 가진 英國 같은 곧에서는 應用數學이 더 發展되어잇다。

古代나 現代를 勿論하고 純數學의 基礎가 確立케된 後에야 數學이 비로소 發達케되엇다。例컨대 應用만을 爲主하든 古代數學에서 一步를 進하여 純數學의 基礎가 確立케되고 科學的 硏究方法을 使用케된 希臘數學에서 비로소 進步의 階段을 밟엇다고하겟다。

數學의 어떤問題는 幾千年만에야 解答을얻은바가 많다。例컨대 「유클릿」의 第一브터 第四까지의 假定을 가지고 第五假定 (所謂平行線假定) 을 證明할수 잇느냐하는 問題에 對하여 約二千年동안 多數의 數學者들이 硏究하엿으나 그解答을 不得하엿엇다。約二千年后 十九世紀 初葉에서 비로소 此問題는 證明키 不可能하다는 否定의 解答을 得하엿다。그밖에 已與한 圓의面積과 相等한 正方形을 차즈려함과 已與한 立方體의 體積의 二倍되는 立方體의 一邊을 求하려함과 已與한角을 三等分하는 方法等을 찾으려고 幾世紀동안 多數의 數學者들이 끝임없이 硏究하엿엇다。上述한 三種問題는 새로 發見된 數學法에 依하여 그解答과 證明을 얻엇다。어떤種의 數學部門은 一時 硏究함에 停止되엇든것이 새로운 數學法 發見으로 新發展路上에 올르게 되는바가 많엇다。어떤 問題를 解하려든 努力이 其問題는 解치못하고 新數學法을 發見

| 年度 | 男子 | 女子 | 計 | 千分比 |
|---|---|---|---|---|
| 1927 | 638,080 | 538,725 | 1,176,805 | 11.4 |
| 1928 | 738,891 | 623,096 | 1,361,987 | 12.0 |
| 1921 | 745,491 | 624,266 | 1,369,757 | 11.9 |

## 3 米國人口男女別統計 (一九三〇年四月現在)

| 州名 | 男 | 女 | 計 |
|---|---|---|---|
| 1 알라바마 | 1,315,009 | 1,331,239 | 2,646,248 |
| 2 아리조나 | 231,304 | 204,269 | 183,602 |
| 3 알칸사스 | 939,843 | 914,639 | 1,854,482 |
| 4 加州 | 2,942,595 | 2,734,656 | 5,677,251 |
| 5 콜로라도 | 530,752 | 505,039 | 1,035,791 |
| 6 콘니티컷 | 801,303 | 805,600 | 1,606,903 |

한바로도 많엇다。

**【五】 數學研究의程度** 數學은 本是 人類必要에 依하여 產出되엿다 하엿다。勿論 數學이 重要視케됨은 그 應用 範圍가 廣大함에 잇다。그러면 數學은 應用할 可能性 잇는데까지만 研究할것인가 事實 모든 學問은 人類의 直接應用만 爲해서 研究케되는것이 아니다。人類의 知的欲望을 滿足케하기 爲해서 學者들은 研究한다。現代의 어떤 純數學은 現代에서는 應用할곧이 없는것이 많다。應用方面을 重視하는 或者는 말하기를 此等部門에 對한 研究는 停止함이 可하다는이도 잇다。그러나純應用의 點으로 論한다하여도 此等 提議는 可肯할수없다。純數學으로 認하던바가 追后로 新事件에 適用되는 例가 많다。例컨대「아인슈타인」의 一般 相對性原理는 「아인슈타인」이 새로 發見한 數學公式이 아니고 「아인슈타인」前에 다른 數學者들이 얻어놓은 數學的 槪念과 公式에 物理的 意味를 加하여 說明하엿을뿐이다。多數의 數學公式은 여러方面에 間接으로나 或은 直接으로 應用케되는 境遇가 많다。어떤 實際에 當面한 問題를 解하기爲하여 數學을 研究하는同時에 將來에 當面케될 어떤 實際問題에 應用키 爲하여서도 亦是 準備的으로 數學을 研究할것이다。現在나 未來의 當面할 實際問題에 應用하기 爲하여 數學으로 研究하는바 外에 一步를進하여 數學에 對한 知的欲望을 滿足하기 爲하여서 數學을 研究할것이다。다시 말하면 數學이라는 科學을 獨立的으로 圓滿히 發展키 爲하여서 研究할것이다。

**【六】 數學의應用** 數學의 應用範圍는 文化가 發達됨을 따라 더욱 넓어졋다。古代에서는 主로 天文學에 應用되든것外에 建築及商業方面에도 應用되엇다。近代에서는 모든 工業界 航海術 軍事方面 모든商業界等 그밖에 모든 實際人類生活에 直接 或은 間接으로 應用되지 않는곧이 없다。一例를 擧하면 現代陸海戰에서 最新式의 軍器를 所有하고도 精確한 數學的計算이 없이는 勝戰하기는 不可能하다고 한다。

應用科學에 數學이 重役을 擔任할뿐아니라 純科學에는 더큰 任務를 가지고잇다。高等한 天文 物理 化學等의 學說을 證明 或은 確立함에는 數學을 使用치 않고서는 甚難하다 實로 高等程度의 理論天文及 理論物理는 應用 數學에 不過하다고 할수잇다。그밖에 自然科學及社會科學 學說에도 數學의 重要한 槪念과 其公式을 使用하는바가 頗多하다。地質學 生物學 心理學 社會學 敎育學 及經濟學等에 關한 어떤學說은 相當한 數學的 知識이 없이는 明瞭히 諒解하기가 甚難하다고한다。

數學이 哲學의 助力을 많이 받으니만큼 哲學이 數學의 槪念 方法 及公式을 使用하여 人類와 宇宙에 關한 哲學說을 論함이 많다고 한다。數學과 哲學의 性質이 恰似한것같이 著名한 哲學者는 亦是 著名한 數學者의 地位를 가지고 잇는이가 많다。古代希臘의 哲學者들 近代의「떼칼―트」(Descartes 解折幾何의祖) 스피노자 (Spinoza) 라이부니츠 (Leibnitz 뉴톤과 같이 微積分學의祖) 렛셀(Russell) 等은

| 州名 | 男 | 女 | 計 |
|---|---|---|---|
| 7 떨라위얼 | 121,257 | 117,123 | 238,380 |
| 8 콜럼비아區 | 231,883 | 254,986 | 489,869 |
| 9 뜰로리다 | 737,675 | 730,536 | 1,468,211 |
| 10 쪼―지아 | 1,434,527 | 1,473,979 | 2,908,506 |
| 11 아이다호 | 237,347 | 207,685 | 445'032 |
| 12 일리노이스 | 3,873,457 | 3,757,197 | 7,630,654 |
| 13 인디우나 | 1,640,061 | 1,598,442 | 3,238,503 |
| 14 아이오와 | 1,255,101 | 1,215,838 | 2,470,939 |
| 15 칸사스 | 961,291 | 919,708 | 1,880,999 |
| 16 켄터키 | 1,322,793 | 1,291,796 | 2,614,589 |
| 17 루이자나 | 1,047,823 | 1,053,770 | 2,101,593 |
| 18 메인 | 401,285 | 396,138 | 797,423 |
| 19 메리랜드 | 821,009 | 810,527 | 1,631,526 |

著名한 哲學者인 同時에 亦是 著名한 數學者들이다。以上 哲學者와 그外에 多數의 哲學者 칸트(Kant)等의 哲學著書를 諒解하려면 相當한 數學의 槪念及方法을 몬저 充分히 硏究하여야 된다고한다。앞으로도 哲學과 모든 科學學說을 證明커나 確立함에 數學을 利用함이 더욱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七】 新提議及結論** 大槪로 初等 中等 專門 어느 程度의 學校를 勿論하고 多數의 學生은 數學이라며는 甚히 어렵다고 생각할뿐만 아니라 甚히 괴로운學科로 認함이 常例라하겟다。本是 初中等學校에서는 各學生에게 常識을 주기爲하여 數學을 必修科로 要한다。그러므로 敎科書가 常識을 주기 爲한 敎科書가 되어야 될것이고 또한 敎授方法이 常識을 주기爲한 敎授法이 되는同時에 數學의奧理를 善히 諒解하도록 解說을 주는 敎授가 必要하다。現在 多數의 下級學校에서 使用하는 敎授書는 高等數學을 專門으로 硏究하기 爲한 準備書에 가까움으로 常識을 得하기爲한 多數學生에게는 無趣味한 感을 懷有케한다。또한 數學을 專門한 敎授라도 흔이 自己가 아는이만큼 學生에게 諒解토록 說明하는이가 많지 못하다。그러므로 多數의學生은 敎科書에서 趣味를 잃게되고 또한 敎師에게서 數學의 奧理를 諒解하도록 說明하는바를 받지못하게되는 境遇가 많다。結局에 數學은 한 苦悶을 주는學科이라는 感을 多數學生으로 懷有케함이 常例이다。此를 免하기爲해서는 첫재로 敎科書를 좀더 常識을 주기爲한것으로 編成할것이고 둘재로 敎授方法을 좀더 趣味잇도록 改善할것이다。

現在 中等程度까지는 算術 代數 平面幾何 立體幾何 及三角法等을 敎授한다。上述함과 같이 此等敎科書를 좀더 簡單히 編成하면 現存한 敎授時間以內에 此等數學部門은 畢할것이다。그러면 그렇게 經濟하여 남은 時間은 下와 如한 數學을 敎授함에 使用함을 提議코저한다。

普通으로 應用되는 數學은 初等數學과 三角法以上 解析幾何 微積分學等이다。後者等의 重要槪念과 簡單한法則은 現代의 應用과 理論 兩方面에 넓히 利用된다。그러므로 簡易한 解析幾何와 微積分法도 學得케함이 좋겟다고 생각한다。現存한 數學時間을 增加하려는바가 아니고 上述함과 같이 初等數學에서 經濟하여 남은 時間에 上述한 兩種의 數學部門을 敎授함이 可하다는바이다。特히 專門程度에서 修學할 學生에게는 어느方面으로 專門하든지 此兩種의 數學部門의 大要를 學得할必要가 많다고하겟다。數學理學이나 工學을 專門하는 學生에게는 다시 初等數學부터 專門으로 硏究하기 爲하여 남겨놓은 그 部分만 復習함이 좋을가한다。

數學이 오랜 歷史를 가지니만치 趣味가 많은 이야기들도 참으로 많다。짜른 紙面에다 記入할수는 없다。數學이 原始人에게 必要함보다 現代人에게는 여러갑절 더 必要하다。實際生活에 이것이 없이는 生路를 開拓하기가 甚難하겟고 知的方面에 이것을 學得치않고는 다른 모든 奧理를 諒解하기가 어려운 境遇가 많다。

(1 9 3 2. 1 1. ―시카고에서)

| 州名 | 男 | 女 | 計 |
|---|---|---|---|
| 20 메스츄스 | 2,071,672 | 2,177,942 | 4,249,614 |
| 21 미슈간 | 2,519,309 | 2,323,016 | 4,842,325 |
| 22 미네소다 | 1,216,571 | 1,247,382 | 2,563,953 |
| 23 미스시피 | 1,005,141 | 1,004,680 | 2,005,821 |
| 24 미조리 | 1,822,866 | 1,806,501 | 3,629,367 |
| 25 몬타나 | 293,228 | 244,378 | 537,606 |
| 26 네브라스카 | 706,348 | 671,615 | 1,377,963 |
| 27 네배다 | 53,161 | 37,867 | 91,058 |
| 28 뉴헴샤아 | 231,759 | 233,534 | 465,293 |
| 29 뉴쩌시 | 2,030,644 | 2,010,690 | 4,041,334 |
| 30 뉴멕시코 | 219,222 | 204,095 | 423,417 |
| 31 뉴욝 | 6,312,520 | 6,275,546 | 12,588,066 |
| 32 北칼로리나 | 1,575,208 | 1,595,068 | 3,170,276 |

| 州名 | 男 | 女 | 計 |
|---|---|---|---|
| 33 北 떼 코 라 | 359,615 | 321,230 | 680,845 |
| 34 오 하 요 | 3,361,141 | 3,285,556 | 6,646,697 |
| 35 오클라호마 | 1,233,264 | 1,162,776 | 2,396,040 |
| 36 오 레 곤 | 499,673 | 454,114 | 953,786 |
| 37 펜슬에니아 | 4,845,517 | 4,785,833 | 9,631,350 |
| 38 로드아일랜드 | 335,372 | 352,125 | 687,497 |
| 39 南칼로리나 | 853,158 | 885,607 | 1,738,765 |
| 40 南 떼 코 나 | 363,650 | 329,199 | 692,849 |
| 41 테 니 싀 | 1,304,559 | 1,302,997 | 2,616,556 |
| 42 텍 사 스 | 2,965,994 | 2,858,721 | 5,824,714 |
| 43 유 타 | 259,999 | 247,848 | 507,847 |
| 44 벨 몬 트 | 183,226 | 176,345 | 359,611 |
| 45 애 지 니 아 | 1,216,046 | 1,205,805 | 2,421,851 |
| 46 워 싱 톤 | 826,392 | 737,004 | 1,563,396 |
| 47 西애지니아 | 889,871 | 839,334 | 1,729,205 |
| 48 위 스 칸 신 | 1,510,815 | 1,428,191 | 2,939,006 |
| 49 요 밍 | 124,785 | 100,780 | 225,565 |
| | | 合 計 | 122,775,046 |

## 4 米國大學男女學生數

| 度 年 | 男子 | 女子 |
|---|---|---|
| 1890—1891 | 46,220 | 22,036 |
| 1895—1896 | 65,143 | 32,244 |
| 1900—1901 | 75,472 | 38,900 |
| 1905—1906 | 97,738 | 53,125 |
| 1910—1911 | 119,026 | 64,546 |
| 1915—1916 | 164,075 | 93,436 |
| 1917—1918 | 142,768 | 111,345 |
| 1919—1920 | 222,242 | 134,452 |
| 1921—1922 | 269,560 | 168,262 |
| 1923—1924 | 428,876 | 245,390 |
| 1925—1926 | 509,732 | 313,163 |
| 1927—1928 | 563,244 | 356,137 |

一千九百三十一年度 學年末內에 米國內 各大學에서 得業士 學位를 받은 男女 學生의 總數가 十二萬三千八百五十三人中에 女子의 數가 四萬八千五百人이나 占領하엿다고 한다。그 外에 師範大學을 畢了한 者는 一萬四千人中 男子는 겨우 四千八百十六人이요 그 絕對多數가 女子學士엿다고 한다。

# 電 視 (Television)

인디아나大學 曹 應 天

二十世紀 文明花가 燦爛히 피어잇다。電信電話가 잇기전에는 合席지 못하면 彼此의 思想을 發表치 못하엿고 飛行術이 發明되기전에는 土足이 아니고는 寸步의 運動을 不得하엿다。神奇타고 하든 電信 電話도 벌서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되여가고 飛行術도 그다지 奇特치 않다。一步를 進하야 無線電 又는 「래디오」를 使用하는것은 只今 피어잇는 文明花이다。一處에서 振動하는 電波가 不見하는 이털 (Ether)(?)의 媒介로 無數한 吾人生의 神經에 感하게 되는것은 實로 二十世紀 文明花園에 不可無의 文明花이다。玆에 筆者는 피기를 始作하는 꽃과 같은 卽無線電과 直接關係가 잇는 電視學을 略論하야 讀者諸位의 叅考를 供코저한다。

## (一) 電視 (Television)는 무 엇 이 뇨 ?

電視는 電送寫眞(Telephoto) 又는 無線電送寫眞(Picture Transmission)과 分別이 잇으니 電送寫眞은 已爲一面에 印刷된 物形을 電線이나 無線電을 依하야 放送하는것인대 受信局에 到着되는 電報가 化學的으로 準備한 寫眞版에 登錄되는것이오 電視는 物形及動作까지 보일수 잇는것이니 譬컨대 前者는 一件의 印刷物에 不過하고 後者는 活動寫眞을 求景함과 相等하다。電視는 遠距里에 使用하는 望遠鏡이나 微少한 物體를 擴大하는 顯微鏡의 類가 아니오 間接으로 電氣를 通하야 實體와 恰似한 貌樣을 그림할 뿐이오 其實體를 볼수잇는것은 아니다。

## (二) 電視의 必要件及 㐲에對한 畧論

說明의 便宜를 爲하야 具體的으로 電視의 理를 說明하기 전에 此에對하야 必要한 몇 部分을 說明함。

(가) 「래듸오」가 必要 電視의 放送과 受信이 「래디오」를 經由하며 放受法이 「래듸오」와 大同小異하다。有線電電視는 매우 簡單하나 實用치 아니함

(나) 人類의 視神經이 敏捷치 못하야 何動作이든지 一秒間에 十五次以上 振動하면 其動作을 不感하야 實際없는것이라도 잇는것 같이 볼수가 잇다。例컨대 一點의 불꽃을 잡고 一向直線이나 曲線의 軌蹟을 一秒間에 約十五回以上을 劃하는 時는 吾人眼前에 一種 火線으로 成한 形을 보낸것과 같으니 此는 吾人의 視神經의 限度가 振幅十五旋道以內에 在함이라 다시말하면 水面上에 同書字를 一秒에 十五回以上 反復할것이면 其字形이 水面에 存在됨을 볼수잇음과 같음

(다) 光電池 (Photoelectric Cell) 俗云에 光電池를 電眼 (Electric Eye) 라고도하는대 外國에서 入射하는 光의强弱을 從하야 强弱의 電流를 生하는것이다。此는 眞空管內에 感光的 物體를 두어 入射光을 從하야 電流가 流케하는것이나 費用에 際하야는 兩極間에 約九十「볼트」의 電動力을 加置하야 微少한 電流를 助興하야 測知할만한 電流를 生케하는것인대 入射光度와 此로因하야 流하는 正比例가된다。

(라) 「니안」燈 (Neon Lamp) 此는 「니안」瓦斯를 吹入한 燈內에 兩極을 두어 外國에서 電動力이 加入될때는 點火되는 性質이 有한것이나 中間에는 四方形의 簿片을 세워 點火될때에는 此簿片이 點火가 된다。此點火의 强度는 入來하는 電動力과 正比例가 된다。此는 受信機에 絕代必要한것이다。入電을 擴大키 爲하야 約二百五十「볼트」의 電動力을 加置하여야된다。此 四方形板의 大小는 所要寫眞 大小에 依한다。現時實驗上에는 普通 그面積이 約二方吋인대 此는 卽活動寫眞에 帳과 相等하게 使用하는것이다

(마) 제間形盤 (Scanning Disc) (著者는 Scanning Disc 를 제間形盤이라고 번역키 惶悚하

다。新術語가 되여 字典에서 難得임으로 著者의 意見대로 意味와 音이 恰似히 著하엿음)은 마치 繪畵人의 筆과 同한것인대 四方形 孔이나 圓形 孔을 盤의 中心을 向하야 螺旋形으로 置한것이다。盤의 大小와 孔의 大小는 要하는 寫眞의 大小에 依하야 隨意로 作成함을 得할수잇다。四方形孔이 圓形孔보다 約二割의 利가 有한대 放受兩局에 不可缺의 部分이다。(圓形은 第一圖 參照)

(바) 刈間形盤運轉하는 方法及 機械가 必要하니 直接電動機를 使用도하고 間接으로도 運轉하는데 速力이 放受兩局盤이 絶代로 同함을 要하나니 此를 同時性 (Synchronism) 이라한다。

(사) 同時性의 絶代必要 同時性은 字義를 從하야 一個以上의 事變이 同時에 起立함을 云함이다。例컨대 二人이 體操鍊習을 하는대 二人의 動作이 同一하면 同時性을 有함이오 一人의 右手는 上하는데 一人의左手가 下하면 同時性을 有치못한것이다。그러므로 電視에 放送局과 受信局이 刈間形盤運轉에 同時性을 有하여야 完全한 體形寫眞을 成할수가잇고 不然인즉 物體의 眞形을 成키도 不能하고 或時는 人의頭部가 四肢以下에 付케되는 逢變도 잇다。現時 電視學硏究界에 頭痛거리가 되는것중에 此同時性이 共一位를 占하고잇다。

(아) 無線電과 吾人神經 有無線電을 勿論하고 吾人의 聽神經에 感하는 音聲을 傳하는것이 直接으로 其音波를 擴大하야 長距里에 及하게하는 것이아니오 根源的音波가 電機에 抵觸되고 이 電機는 다시 電流를 其音波의 振動대로 變換케하고 其變動되는 電氣가 다시 放送電波를 從하야 球形으로 傳播되는것이오 絶對로 其根源的 音波가 長距里나 音波의 媒介物이 不通하는處에 傳達되는것이 아님을 記憶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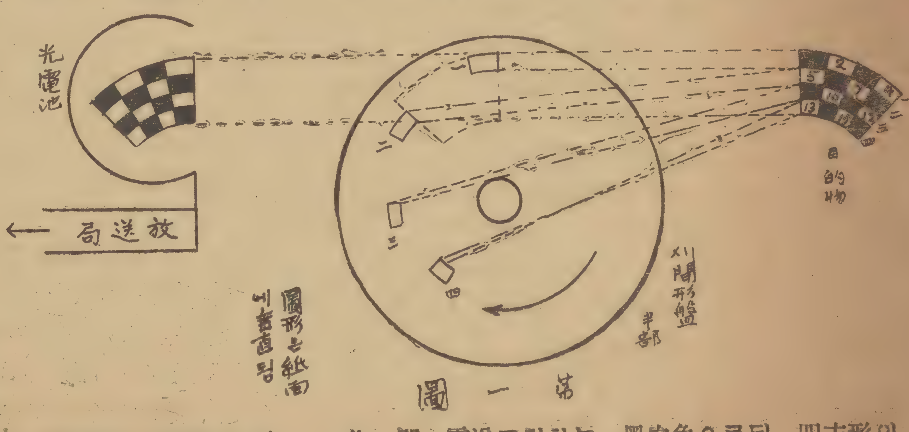
電視의 根源인 光波도 亦是 同一의 理로 根源的 光波가 直接으로 放送되는것이 아니고 光波가 電波로 轉換하야 放送되는것이다。

## (三) 電視의 放送法

上述함과 같이 電視는 望遠鏡이나 顯微鏡과 같이 擴大하는 性質을 不有하고「래디오」에 音波가 電流로 轉換하야 다시 電波를 從하야 放送됨과 같이 電視放送法은 光波가 電流로 轉換하야 放送되는고로 「라디오」放送局과 電視放送局을 兼用할수잇으니 「래디오」의 電話口 (Transmitter)와 電視에 光電池가 同一의 作用을 함이라 故로 現時 實驗所에서는 電視를 始作키前에 電送할 寫眞 其他目的物을 「래디오」로 說明하는것이 마치 活動寫眞舘에서 辯士가 寫眞을 說明함과 恰似하다。

光度가 電流로 轉換함은 光電池節에 略論함과 같이 入射하는 光이 强弱을 從하야 生하는 電流가 光度와 正比例가됨으로 一物體의 表面의 色도 光電池의 作用에依하야 表現함을 得함으로 何種物體를 不拘하고 電視키 可能한대 玆에 單純한 黑白兩色의 放送을 畧論하고 色電視나 其他特別한 說明은 專門的硏究에 맡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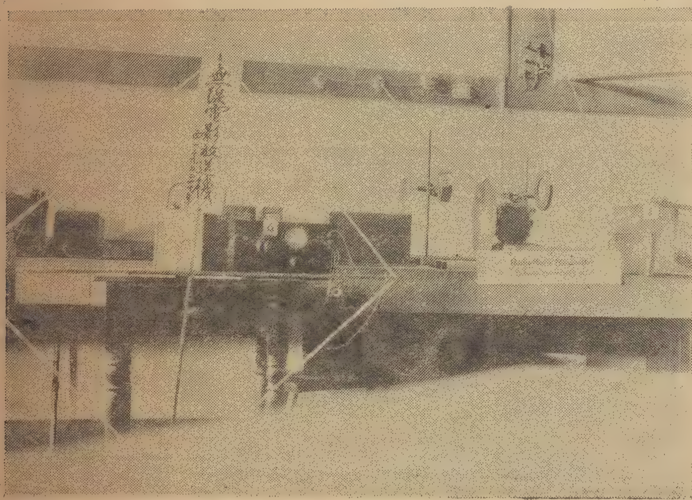
一白色 物體가 光電池에 當面할 때에는 電流가 生함으로 受信局에서 白色物體임을 受하고 黑色物體가 될때에는 電流가 不生함으로 受信局에서 黑色體임을 受할것이다。圖解로써 說明컨대 第一圖에 示함과 같이 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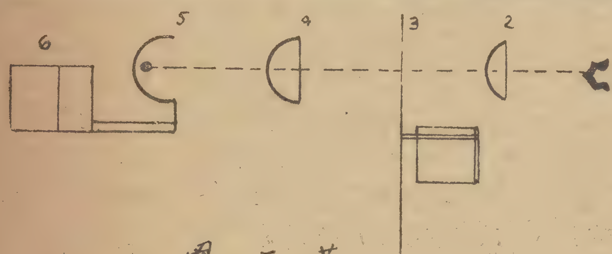



第一圖

物 即 電送코저하는 黑白色으로된 四方形의 第一部1을 爲始하야 其餘部는 가리우고 第一部만 光電池에 비치이면 光電池가 電流를

不生할지니 此時刻에는 當面한 物體가 黑色 됨을 受信局에 報告가 될것이고 此와 同一한 理致로 刈間形盤의 第一孔이 第一部1에서 運轉하야 第一部2即 白色이 光電池에 電流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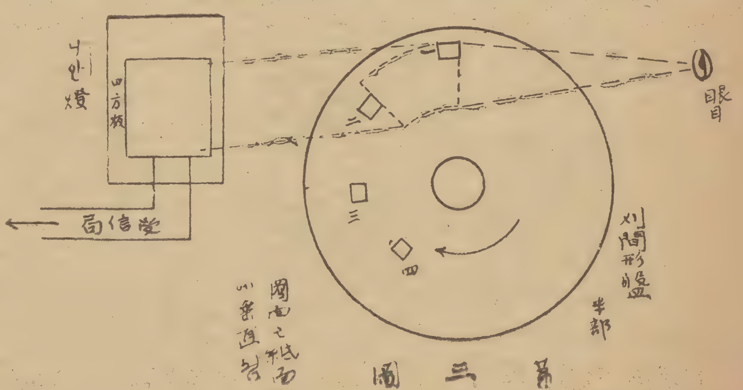

第二圖

生케하여 此時刻에 受信局에서는 白色이 되는줄을 안다。第三第四도 亦 同一한 方法으로 放送케된다。이와같이 部分的으로 放送할 必要가 잇는것이다。若一二三四部를 同時에 放送키 爲하야 光電池에 當面케한다면 其入射光度가 黑白色이 各各半部式 占하엿음으로 其所의 電流가 黑色도 아니오 白色도 아닌 中間色 即 灰色을 代表하는 電流를 生할것이고 其各部를 區別하야 一時에 報하지 못할것이다。 如此히 目的物을 部分的으로 恒常 一部分만 現出케하는 方法을 刈間形法(Scanning Method)라한다。그러면 第一孔이 第一行을 措處하고 盤의 運轉을 從하야 第一行을 畢하는대로 第二孔이 第二行을 如何히하고 第三孔이 第三行 第四孔이 第四行을 措處하야 完一週에는 第一孔이 第一行을 始作하야 繼續하기를 一秒間에

十五回以上을 返復함으로 一回에 十六의黑白을 報道하고 一秒間에 十五個의 目的物을 劃하니 勿論 理論上으로 全物體가 一時에 表現치 못할것이 事實이나 吾人의 神經에 感하기는 完全한 目的物과 같이보인다 譬컨대 一點의 火焰을 가지고 迅速케 運動하면 燦爛한 一火線을 成함이 一點으로 成하는 軌蹟이 吾人視神經에 一線形으로 보힘과 같다。

更히 刈間形盤과 寫眞의 大小의關係를 論하면 第一孔과 第二孔의 距里가 所要寫眞의 一邊과 同함을 要하며 第一孔과 第二孔의 距里가 所要寫眞의 一邊과 同함을 要하며 第一孔과 第終末孔의 距里는 他一邊과 同함을 要한다。(第一圖參照) 同面積의 寫眞에 對하야 孔이 小하고 多할사록 精密한 寫眞을 現하고 此와 反하야 孔이 大하고 數가 小할사록 寫眞이 粗하여지는것이 마치 前者는 小筆로 大字를 書함과같고 後者는 大筆로 小字를 書함같으니라 本書에는 說明의 便宜를 爲하야 但四個孔刈間形盤을 用하엿으나 現時 實驗에는 普通으로 四十八孔及六十孔을 使用하며 活動寫眞을 放送한다。以上에 說明한 理致에 依하야 活動하는 物形까지 放送함을 得할수잇다。

上圖는 著者가 「인디아나」大學在學中에 實驗用 電視放送機인대 下圖(第二圖)는 此의 配線圖




第三圖

1은 目的物인대 本實驗에는 簡單하고 便利를 爲하야 「마즈다」燈의 燈心을 目的物로 하엿는대 普通物體를 放送함에는 特別光線을 使用하야 强度의 反射線을 得함。

2 聚光鏡 (Condensing Lens)
3 새間形盤과 此를 運轉하는 電動機인데 速度는 每秒 三十週
4 聚光鏡
5 光電池와 光電池에서 生하는 電流를 擴大하는 四段의 眞空管式 擴大器
6 「래디오」放送局

## (四) 電視의 受信法放

電視의 受信法은 「래디오」와 同一한데 但 「래디오」擴聲器代에 「니안」燈과 새間形盤 (放送局盤과 眞同) 을 使用한다。第三圖에 依하야 圖示하면 第一圖放送의 理를 圖示함과같이 放送局에서 새間形盤에 第一孔이 目的物 第一部 1 를 放送할時에 受信局의 새間形盤 第一孔이 「니안」燈에 當面케되면 「니안」燈은 入電이 無함을 因하야 黑色을 見케되고 放送局의 새間形盤의 第一孔이 第一部 2 에 當面할때에는 受信局 새間形盤 第一孔이 「니안」燈을 當面하면서도 入電으로 因하야 點火되는 白色을 見케된다。餘皆倣此로 放送局에서 放送하는대로 受信局에서는 受信할수잇는데 完全한 形體를 成함에는 二處새間形盤의 同時性을 絕代로 要한다。「니안」燈板에 入來하는 物體의 形像이 그려잇는것이 아니오 새間形盤의 孔數와 運轉數에 依하야 變色되는것을 새間盤으로 物形을 給함에 不過하다 數字로 表하면 十六部를 一秒間에 十五回 放送한다면 「니안」燈은 二百四十回의 變色의 作用이 有할것이다。電視에 새間形盤等의 同時性은 不可缺의 部分이니 一孔間의 差만 有하여도 黑色이 白色되고 그보다 甚하면 全形을 失할것이다。同時性을 保存함에는 同一한 同時性的 電動機를 同一한 電源에 運轉함이 安全하나 此는 實驗上에만 應用키 可能하고 應用에 就하야는 不可能함으로 아직까지 同時性에對한 完全한 結果를 不得하야 電視硏究者들의 頭痛거리가 되어잇다。

---

(五〇頁에서續) 우리는 또한 너무나 많이 보앗거니와 天主학쟁이들이 儀式用으로 購入하기를 주커치않어 우리 포켈을 살지게하든 記憶도 오히려 새롭다。

## 할 림 의 春 香

붓이 잠시 外道하나브다。香장사로의 한토막 逸話가 잇음을 公開하고 싶다마는 紙面이 不許하니 後日로 미루기로하자 그러나 언케나 머리에 사러지지안는 회색그림자 그는 내가부르는 할림의 春香그다。몸에는 찰란한 한夜會服을 감고 언케나 快活하게 떠돌지만 눈물로 歲月을 보내야만 하는 그는 果然 언케나 悲運에서 벗어나려는가 正體모를 怪美人 그는 분명히도 할림에 君臨한 女王이나 슬프다! 이 젊은 女人의 운명은 웨 그다지도 起伏이 甚하냐?

## 남 은 所 得 과 清 算

한 녀름의 所得이 과연 무엇이냐! 하로에 二弗以上 잘하면 十弗까지 판날이 잇엇으나 糊口하기에 別다른 收入이 없엇으니 아마도 受難生活 그것만이 永遠한 記憶과 같이 떠나지 않을 所得인 모양이요 그리 듣고듣고 憧憬하며 落望하든 米國 留學生活의 한토막 現實暴露의 悲哀 그것일것이다。

새롭운 人生의 場面을 엿보앗다는것도 收穫의 하나랄지? 사일단 음일표 (食一簞 飮一瓢) 로 閑日月을 벗삼아 책권이나 읽고 歸國하려든 清貧寒士의 本懷가 風塵世俗과 利欲에 물듬도 응당 恨할바가 아니랴!

아모리 생각을해도 이 職業이 내게는 그리 아름답지 안는것을 느끼고 過去를 清算한것이 모를네라마는 큰 所得일것이다。南녁하늘에 헤매는 上眩달이 繡놓은 하늘에서 고요히 잠드는 初가을커녁부터 오는 한줄기 바람을 안고 화려한 뉴욕의 金城鐵壁을 하직하고 학교로 向할때는 웬일인지 故鄕을 떠나는 느낌도 없지는 않엇다。

# 自盟과英斷

우리는 남다른 希望과 抱負를 안고 自盟할 東洋文化의 使節과 西洋文明의 使徒임을 自負하기에 주저치 않엇다。그리하여 內로는 우리 民衆과 더불어 光明에 浴하는 成功과 外로는 世界萬民이 昌隆에 노래할 貢獻을爲해 努力하엿다。即 조선의 安寧과 아울러 國際平和를 期하여 所謂 百性照明 協和萬邦의 大意를 實踐體得하여써 國民的光復과 世界와 世界的發展에 資하기에 不少한 受難과 苦悶의 盞도 우리는 逃避만을 일삼지 않엇다。

世界를 震憾하는 恐慌과 不安은 動搖 困弊 攪亂等 온갓 反動과 逆轉的 社會現象을 남겨놓앗다。그 結果 東洋의 天地에는 內亂 外患과 天災地變으로 因해 大衆이 飢饉에 울게 되며 西洋各國에는 產業停止와 政治的葛藤으로 因해 黃金의 都城 뉴욕에도 百萬의 失職者가 貧困에 헤매게 되엇다。이 白日下에 暴露되고야마는 慘憺한 社會現象이야말로 資本主義文明의 矛盾과 痼疾임은 贅言을 不要하거니와 이 歷史的 必然的 過程에서 遭遇하게 되는 人類의 苦悶과 같이 우리學友에게 臨하는 不安과 威脅도 過渡時期인 今日에 眞實로 잇음직한 現實이다。

이 非常한 毒霧와 濁流에서 시달리는 緣由인지 우리가 自負 自盟한 志士的 氣魂과 鬪士的 壯志가 不幸히도 沮喪되는듯 싶다。傳하는바에 依하면 우리가 사랑치 안는 妥協의 門을 두다리는 이도 잇거니와 甚하여는 個人的 利己的 享樂的 頹廢的 隱遁的 生活을 엿보는이까지도 보이는듯하다。우리 三百學友의 默契와 結束의 줄이 解弛해감은 不誣할 事實이 아닌가? 이 混亂과 異狀 그리고 이 散漫的 分散的 生活傾向은 酷鞭밑에 千里를 달린 駿馬의 一時的 疲困과 怠氣로 看過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이 特殊한 現象은 무론 外圍의 不利한 情勢와 蹂躪으로 因함도 없지 않다。그러나 키를 잃은 배에 몸을 싫고 危急한 世界風潮에 춤을추고잇는 우리 二千萬民衆의 期待와 囑望은 고만두고라도 이 沈滯한 頹廢的 雰圍氣 속에서 個人的 利己的 本位인 妥協과 安價의 享樂生活의 滿足인들 누릴수가 잇느냐 그러므로 十字術頭에 선 우리의 運命도 오로지 過去의 誤謬를 淸算하고 新計劃 新努力으로써 민족 萬年의 更生을 爲한 新局面 打開에 그 盛衰를 같이할것이다。

歷日의 運行은 約束한 人類歷史의 轉換을 되푸리하고잇다。努力이 잇을때 創造가 잇고 創造가 잇으매 眞實한 幸福은 臨한다。人類歷史의 榮枯盛衰가 이 理法과 公道에 터하엿다면 어찌타 우리 조선 靑年의 將來ㄴ들 여긔에 견주지 않으랴!

自力은 宇宙의 힘이요 團結은 生存의 公約이다。그러므로 우리는 悲觀 陰鬱 然嗟 隱遁의 온갓 消極的 氣質과 態度를 버리고 빛나는 將來를 믿는 自覺 決心 歡喜 勇敢力을 가지고 積極的 總結努力과 進出을 꾀하자。安價의 悲憤과 感傷이 아모 意義와 價値가 없음을 意識하면서 우리는 自覺한 壯志를 가다듬고 永遠한 人類鬪爭의 對陣으로 一念 猛進하자는 말이다。그리하여 分散生活에서 集團生活에 模索에서 計劃에 悲壯에서 歡喜의世界를 건설하기까지 努力하고 奮鬪하자!

그렇다! 네 이름은 挫折되지 않기를 自盟한 조선 젊은 勇士들이 아니냐! 沮傷한 士氣를 振作하여 英雄的 丈夫的 意氣로써 初志를 英斷하고 実行하라! 때 또한 努力前進更一步를 命하는 最后五分! 이 實行과 英斷如何로 俎上에 오른 米國留學生의 運命도 左右될것이라고 믿는다。

# 後進學友에게 보내는 메쎄이지

—諸　　氏—

## 참된引導者를要求

神學博士 梁　　柱　　三

도리켜 우리의 現狀을 살펴보면 世態는 해마다 險惡해지며 思想界는 또한 그 中正을 잃엇읍니다。이케 바야흐로 右往左還하는 우리 二千三百萬 大衆의 벗이되고 指導者가 될 明日의 役軍인 諸君에게 筆者의 體驗을 미루어 몇말슴을 드려 이에 塞責하기로합니다。

時代의 變遷이란 非常한바가 잇읍니다。아메리카 新大陸 發見과 같이 찬란하든 地中海文明時代도 그 자최를 감추고 大西洋時代가 君臨하여 歐羅巴文明의 黃金期를 보여주엇읍니다。그러나 歐洲大戰의 참담한 交火는 드대어 人類文化史上에 一大 悲劇을 지여주고 그 終幕을 告하엿읍니다。

그러나 이 戰亂은 새로운 時代를 우리에게 展開시켜주엇으니 即 太平洋時代가 그것입니다。이 太平洋時代 即東洋時代의 轉換을 契機로하여 우리 조선도 地理的 經濟的 乃至 文化的 聯鎖關係가 至大하니만큼 이 舞臺 이 時代의 主要한 役割을 많이 보게되며 아울러 우리들의 活躍과 努力그것이 明日의 조선에 큰 波紋을 그리게되엇읍니다。

그러므로 이 舞臺와 이 東洋時代의 새 主人公이 되실 諸公이야말로 몬켜는 우리의 現實을 살펴 빛나는 理想의 實現과 最后的勝利를 위한 오늘의 修養과 試練이 必要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破滅에 臨한 經濟 敎育 社會等 무삼 方面이나 우리 民族 萬年의 更生을 위한 運動과 努力이 없어서야 하겟읍니까마는 무엇보다도 이 重任에 當할 일꾼과 指導者가 現下의 時急한 要求의 하나입니다。

여긔에 느낀바 잇어 眞情한 意味의 指導者 즉 民衆의 役軍이요 公僕이 될 引導者의 素質을 檢討하여 諸君의 參考에 供코저합니다。

聰明한 指導者의 資格과 그 素質을 두 方向으로 觀察할수가 잇나니 즉 消極的 積極的 素質 그것입니다。

(一) 消極的素質

1. 利己心이 없어야 한다。

一身의 榮達과 發展만을 뜻하는 利己慾을 떠나 犧牲과 奉仕의 精神을 體現하는 眞正한 땀과 피의 일꾼이 되여야합니다。우리의 過去歷史는 利己心으로 눈이 어두읍든 貪官汚吏들의 惡政으로 因한 必然的 報酬와 産物 그것입니다。오늘의 中國人士들은 반드시 中原의 統一과 外敵의 侵害를 막는데에 힘쓰야만할 오늘이엇마는 아직도 派閥과 黨爭만을 일삼으니 이 어찌 大東洋人의 共存共榮을 위해서 슬퍼할바가 아니겟읍니까? 自

己中心 즉 利己心을 버리고 보담더 眞摯한 意味의 指導者가 되어야만 하겟읍니다。

2. 落心하지 말어야한다

우리의 現實的 困憊와 險難은 가끔 힘잇게 나아가는 우리의 步武를 어지럽게할뿐이아니라 甚하여는 우리들로하여금 落心과 絕望의 구렁에 떠러트려놓는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이러한 危機와 苦惱를 征服하고 힘잇게 나아가는 거긔에 또한 새 事業과 새 成果가 이러나는 것입니다。英國의 郵替法의 創始者 헨우리 뽈쐭스는 父子가 산양갓다가 不幸히도 失明하여 餘生을 장님으로 지나면서 무엇이나 人類에게 多少 貢獻을 남겨놓리라는 一意專念으로 마츰내는 榮譽의 遞信大臣의 椅子까지 占領하게되엿든것입니다。

3. 猜忌心이 없어야한다

이 猜忌心마는 아마도 人類社會의 共通한 폐단의 하나입니다마는 特히 조선의 指導者로서는 여긔에 특별히 再留하여 남을 시긔하지말고 寬容한 態度로써 사람을 對하는이라야하겟읍니다。

(二) 積極的素質

1. 信用이 잇어야한다

우리는 특별히 적은 일에 信用을 지키며 充實함이 잇어야합니다。信用은 적은 일에서부터 始作하며 하로라도 時急을 要求하는것입니다。時計의 구조中에 적은 部門이 좀더 價値잇고 重大性이 잇음과 같이 우리의 日常生活에도 적은일에 充實하며 信用을 지키는 習性을 길러야하겟읍니다。

2. 自己의 職務에 忠實하라

우리는 또한 任務에 充實하는 責任感이잇어야합니다。이것을 忘却한 李朝의 王朝는 오늘의 수치를 가커왓읍니다。그러므로 우리는 在來 지켜오든 우리의 認識誤謬를 淸算하고 몬저는 내 任務부터 充實하는이가 되여야한다。

3. 同情과 理解가 잇는이

인도자라면 대중의 慾求와 心理를 살피는外에 그들의 心境을 理解하며 진실한 同情心이 잇어야하겟읍니다。어떠한 特別階段의 權益保護와 忠犬노릇에 급급함보다는 一般民衆의 代辯者가되며 한거름 나아가서는 그들의 當面한 問題의 解決을 지여주는 力量과 努力이 必要합니다。

4. 하느님을믿고 사람을信任하는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굳은 信仰心과 아울러 내 民衆과 내 同胞를 信任하는데에 또한 民衆의 信望을 걷우게되며 겸하여 조선의 바라는 참된 領導權을 찾이하게되는것입니다。 (學生靑年會講演抄)

# 主義主張의사람

—醫學博士 金 昌 世—

우리의 客觀的 情勢를 살펴보면 실로 經濟 文化 敎育等 모든 方面에 破滅을 臨하지 않은것이 없읍니다。이러한 現實을 直面하여 敬愛하는 同志와 後進學友들에게 두어마듸의 忠言을 남기기로 하렵니다。

1. 오늘의 混亂한 이 亂局을 收拾하고 아름다운 歷史的 明日을 맞이하려는 조선의 靑年男女들은 도산先生의 말슴과같이 몬저는 「놀지말고 自己를 속이지안는 人格者」가 되여야하겟읍니다。이 말이야말로 퍽은 平凡한 道學者의 觀念論이라고 一蹴하실는지 모르나 여긔에 우리는 再三 吟味해볼 眞理도 분명히 잇는 까닭입니다。

——(此間十五行略)——

2. 조선靑年男女는 보담더 「서로믿고 團合하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民族統一을 爲해서나 自我의 人格完成을 꾀함에 나를 勿論하고 우리 젊은 벗들 사이에 좀더 理解가 잇고 앞날의 事業을 爲하는 그 어떠한 默契가 잇어야만하겟읍니다。장차 일터로 나아오실 來日의 일꾼되실 諸君은 반드시 참을 위해 사는 主義

主張의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3. 끝으로 肉體의 健康을 게을리마셔야 합니다。職業이 醫師인만큼 健康과 事業成就에 얼마나 큰 關係가 잇다는것을 항상 보고 느낀바가 잇는까닭임으로써입니다。
要컨대 主義主張의 사람은 自己의 깨다름을 實踐함에 잇을것이니 예수와 孔夫子도 이러한 어룬들이며 舊約에 나타나는 욥記의 主人公 그리고 다니엘 三章에서 보는 세 青年 삿으락 에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들도 무론 主義主張을 爲해서 自己의 生命까지도 草芥視한 代表的 人物들일것입니다。

(文責在記者)

# 나의 몇 말

崇專敎授 리 훈 구 博士

우라키 主筆로부터 멀리 太平洋을 隔한 이 사람에게 「後進學友에게 보내는 부탁의말슴」을 하여보내라고 請하여왓다。나는 일즉히 留米學生會에 關係하엿고 또 우라키에 對하여서도 間接으로 責任을 져본 일이 잇엇음으로 말하자면 回避不得이라할수잇다。아니 回避라는것보다는 進하야 援助를 해주어야만할 處地에 서잇다할수잇다。

그런대 나는 勿論 悲觀說을 하고저하는사람이 아니다。그러나 오날날 우리의 環境이 客觀的이나 主觀的임을 勿論하고 留米學生들에게는 여러가지의 特殊한 困難이 잇는것을 肯定하지아니할수없다。米洲에서 在學할동안에 우리가 當하여보던 여러가지의 困難은 오히려 이기기쉬운 困難이다。勿論 오날에는 잇을것도 想像한다。그러나 그것도 征服하기 容易한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그러면 어떤것이 그다지도 困難한가? 그것은 곳 萬里異域에서 가진 苦痛가운대에서 孜孜勤勤한 學窓生活을 마치고 나오는 그날의 苦痛과 困難이 그것이다。오날에 잇어서 다른나라 사람은 海外에서 學業을 마치고 도라오면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여러가지 意味에서 優待를 받는것이 事實이다。이것은 적어도 日本 中國 印度等에 잇어서 그러하다。그러나 우리 朝鮮學生은 그와 正反對로 優待는 고사하고 오히려 極히 不利한 境遇와 處地에 서게된다。

只今 簡單하게 어떤 歸國學生이 어떤 私立學校에 就職을하랴고한다고 假定하자 그러면 그는 就職戰線에서 第三이나 第四豫備隊에 編入하게된다。第一線에는 京城帝大의 卒業生이 선다고하면 第二線에는 朝鮮內 官私立專門卒業生이 되겟다。第三線에는 日本內官私立學校出身이 설것이다 米國留學生은 겨우第四線이나 參列하게된다。게다가 資格問題와 認可問題等의 難關이 잇다。그러므로 實戰에參加하야 凱旋歌를 부르기는 難事中 難事라 아니할수없다。그러고 또 우리 學友들이 흔히는 敎育界에 獻身하랴고하는대 이야말로 어려운것이다。나는 歸國後 種種의 經驗으로 이와 같은 한 「띄룸」을 나리엇다。곳 「米國留學生으로 일즉히 日本이나 朝鮮에서 大學이나 專門을 마치지않고 比較的 自由思想을 가진 사람이면 朝鮮에서 敎育界에 就職은 아조 미리부터 斷念하여라」하는것이다。

以上에 말한것은 한 例示에 不過하지만 敎育界를 除外하고 其他 産業界도 亦是 그러하다。더욱히 오날 우리 조선사람의 産業界야 말할것도 없이 微微한편으로 到底히 米國으로부터 오는 우리學友들에게 歡迎의 손을 뻐칠 餘地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외람한것 같지만 여러 學友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말슴을 부탁하여 두고저한다。

第一 우리 學友들은 工夫할때에 朝鮮內에서 朝鮮을 爲하여 일하겟다는 生覺을 抛棄하고 世界的 人格者 世界的學者가되여서 世界上 어느 곧에 잇던지 朝鮮의 光이되고 朝

鮮과 人類를 爲하야 貢獻할것을 目標로할것

第二 만일 朝鮮에 도라오면 처음부터 就職할것은 斷念하고 自己가 남을 就職케할만한 事業家 敎育家 其他 獨步와 獨創家로 環境의 支配를 밧지말고 環境을 創作할 能力家가 될것

第三 오날 朝鮮에서 要求하는 人物이된것을 처음부터 目標로할것은 勿論이지마는 그中에도 現在 朝鮮에서는 米洲에서 오는 學友들에게 敎育家를 要求하는것 보다는 實業家를 要求한다。卽 다시 말하면 King of Industry 와 Captain of Commerce 를 要求한다。

以上外에도 여러가지 말할것이 잇지마는 餘白도없고 時間도 없음으로 擱筆하여두고 몇가지 말한것이 學友들에게 多少라도 參考가 된다면 幸이라고한다。

# 依賴心을버리자

前國際學生靑年會朝鮮部幹事

李 炳 斗

「우리의 오직 살아갈 길」인 本文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因해 全文을 싣지못함을 執筆者와 아울러 讀者諸賢에게 諒解를빈다」

筆者는 七月初旬에 發行한 英文紙 文學要素 (Literary Digest) 에서 예수는 우리의 希望이라는 論文을 닑고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두어가지의 所懷가 잇엇다。그렇다 예수氏는 분명히 그를 信奉하는 信者들의 希望이요 生命인것과 같이 우리 民族에게도 적지 않은 連鎖作用이 잇다는것을 생각해보앗음이다。

筆者가 故國 江山을 떠난지 十餘星霜이라 그間에 變遷과 發展인들 없으랴마는 전하는 消息이나 新聞의 所載를 믿는다고하면 前進的 向上과 發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逆轉的退步와 沒落을 臨하엿다고한다。이 어찌 내집안일은 多少나마 생각하는이의 關心事가 아니고 무엇이랴? (十五行略)

그러나 우리는 여긔에 傷心과 展望을 일삼을때는 아니다。이렇다고 우리가 살길이 없이 永遠한 悲劇으로의 幕을 닺일것도 무론 아니다。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길이 잇다는것을 나만은 의심없이 믿는까닭이다。

이제 내가 말하는 更生의 길은 무엇일가? 몬저 나는 우리의 살길은 各個人의 依賴心을 버리고 自立的 性質을 培養함이 第一段的 行動이요 應急手當이라고 생각한다。經濟的 自立도 좋다。그러나 精神的自立이 잇는후에야 다른 經濟的 獨立도 따른다는것을 우리는理解함이 잇어야하겟다。

이제 우리의 過去歷史를 回顧해보면 실로 한심한 場面도 퍽은 많이 찾을수가 잇다。남을 指導하는 所謂 領導者의 胸度를 살펴보자! 그들은 내가 할일을 내 손으로 하지않고 남에게 依賴을 일삼어왓다。그래서 그들에게는 親露派도 잇엇고 親華黨과 親日을도모하는 某々團體等 우리는 손으로 많이 곱을수가 잇엇다。이렇한 우리의 先祖와 指導者들의 無責任의 보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받어야한다는것을 각금 원망도 안됨은 아니다。그러나 이제 원망인들 所用잇는 노릇이냐?

外交를 憑藉하고 가난뱅이 우리同胞의 고혈을 빼내는 惡漢들! 그들은 純全히 남을 依賴하는 가엾은 人生들이엇다。생각하면 오늘의 우리社會에들 이런 작자들이 없다고만 壯談할수가 잇을까?

들으니 우리 內地同胞들이 海外에 散在한 同胞들에게 어떤(?) 期待와 아울러 依賴하는 생각이 없지않다고한다。이것이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나 如何間 一考할 價値

만은 잇다고 생각한다。

南北滿洲는 모르지만 이 米國과 布哇 墨西哥等地에 在留하는이는 겨우 萬名의 數에 不過하다는것을 몬저 認識하고 그들의 力量을 안다고하면 문케도 안된다。要컨댄 내집일은 내집에서 解決을 지어야 한다는것을 여긔에 살펴두자。

『各各 내일은 내가 하자』 이렇한 信條와 標語밑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모둡고 精神을 련단하자。여긔에 힘과 熱이 나고야 말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다시금 우리의 依賴心을 버리고 精神的自立에서 經濟的獨立으로 나아가자는것을 각오하고 다음으로는 實行한다고하면 두말할것도 없이 여긔에 새 希望이 잇고 새 사업이 이러날것이다。

산 精神과 참된 慾望이 合致될때 自立的生活을 하게됨은 누구나 알고 남음이 잇거니와 조선兄弟의 살길도 여긔에 잇다는것을 믿고 두어字로 後進學友에게 보내는 내所感이다。(一九三二年九月一日)

## 新時代新人物

조선主日學校聯合會總務
——鄭　仁　果 牧師——

조선의 客觀的 情勢도 國際的 圈內를 벗어나지못하느니만큼 모든 社會的 現象과 그 趨勢가 同一한 步武로 그날의 進展을 보이고 잇읍니다。무론 우리의 오늘은 窒息狀態에 빠진 抵迷昏沌期를 마지하엿읍니다。어떻게 생각하면 이 逆轉的 勢力을 만회하고 새롭은局面인 新生의 社會를 건설함이란 퀀연 不可能하다고 생각될때도 없지 안습니다마는 이 全體的 矛盾과 그 困難은 두말할것없이 已成制度가 沒落으로 向해 달려가는 過渡期的副作用인만큼 새로운 社會가 창건되는때는 自然的으로 一掃가될것도 歷史的必然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몬저 期日의 社會건설을 위한 希望과 確信이 잇어야만 하겟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우리 일반 大衆의 當面한 現實的苦는 더한층 남다른바가 안다는 그「特殊性을 認識」함이 잇어야 하겟읍니다。비록 修養期에잇는이라고 할지라도 더욱이 歐米의 文化 移植運動에 從事한이로써는 모름직이 조선의 무대가 남다른바가 잇음을 理解하고 보담더 大衆的 조선的 文化樹立운동으로 邁進함이 잇어야 하겟읍니다。그러므로 우리는 今日의 곤경을 보고 자포자긔만를 일삼지말고 明日의 새시대 새人物이 되기爲한 修養이 퍽은 必要할것입니다。

마즈막으로는 우리 운동의「統一과力量集中」함에 理論보다도 實踐함이 잇어야 하겟읍니다。조선으로써의 世界的 工獻도 잇어야 할것이며 아울러 國際親善과 協同으로의 步武도 옮김이 잇어야하겟읍니다마는 우리는 몬저 우리의 現實的 란관의 解決策를 연구해봄이 무엇보다도 順序的이며 우리가 긴급히 實踐을 要望하는바의 하나입니다。(談)

## 適者生存의再認識

——梨專 韓　稚　振 博士——

「後進學生에게 보내는 부탁의 말슴이 무엇이 되겟읍니까」하는 編輯者의 물음은 나에게 一大驚愕이 되엇다。웨? 오늘에 잇어서 어떤 付托의 말을 들을 사람이 누구냐하는 質疑가 잇기때문이다。筆者 亦是 學生時代에 잇을때에 남의 經驗談을 請한 일도 잇엇고 들어본

적도 種種 잇엇다。그리하야 그 經驗談대로 좀 해볼가하여 생각도하고 힘도 좀 써보기도 하엿다。그러나 只今에 조선에 와서 生命維持의 일을 하려고드니 以前에 남의 經驗談을 들을때와는 나의 心算이 달라진다。남의 經驗談보다 나의 經驗을 스스로 듣고 싶엇다。이런故로 나는 나의 經驗中에 몃가지를 적어 스스로 回想하려고한다。

適者生存은 어데서나 現代의 眞理가 되는것은 煩論할것이 없다。여긔의 『適者』란것은 반드시 强者의 意味는 아니다。 生存環境에 잇어서는 一般公論이 弱者라고하든이가 그環境의 適者가 되여 生存하는수가 잇는것이다 例를들면 지난 歐洲大戰時에 獨逸의 健兒들과 壯士들은 戰場에 나아가 全滅하되 普通 弱者라든 婦人 老人 不具者들이 生存한것과 같은것이다。이 世上에는 强者만이 사는것이 아니고 오즉 適者만이 사는 世上이다。以上의 例와 같이 適者는 强者만은 意味한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適者일가? 이것이 큰 問題이다。適者는 勿論 一定한 環境에 適應한다는 뜻이다。우리에게 잇어서는 朝鮮環境에 適應하여야 한다。 環境에 適應하는데는 (一) 우리사람이 環境에게 適應되든지 (二)環境을 우리사람에게 適應되도록 變化시기든지 하는 두가지 方向이 잇을뿐이다。이 두方向中에 어느것이 더 重要한가하는데 對하여서는 意見이 不一할것이니 여긔서 解決코저하지않는다。

歷史上으로 본다든지 혹은 現下 世界思潮로 본다든지 또는 나의 經驗으로보면 今日 朝鮮에 잇어서 環境의 改造보다 우리사람의 改造가 더욱 適切하다고 생각한다。우리는 무엇보다 現代의 適切한 性格上 素質을 所有하지아니하면 안되겟다。環境은 恒常 變한다 이것을 改造하기前에 우리사람의 立脚地를 먼저 든든케할 必要가 잇지아니한가?

變遷하든 朝鮮環境의 適者는 아래 三大 要素를 가진 사람이니 이것이 現下 朝鮮의 第一必要한 要求라하겟다。

(一) 積極的 個人主義인대 여긔서 協同의 精神과 社會奉士心이 생기는것이다。眞正으로 自己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곳 社會를 사랑하지아니할수 없고 社會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自己를 사랑하지 않고는 않된다。사랑은 「我」가 하여야하는故로 「無我」的愛는 그 말부터 矛盾이요 「我」가 사랑한다는것은 我가 아닌 他我 곳 他人을 사랑한다는뜻이다。

요새뿐아니라 몃해前부터 米國留學生은 個人的 享樂主義者요 金錢에 吝嗇하다는것이 朝鮮의 輿論이 되엇다。 黃金萬能의 米國에서 돈의 부닥기는 우리 留學生들이 돈을 보면 自然히 소름이 끼칠것은 事實일것이다。돈에對한 個人主義는 不可하다。또 요새 어떤이의 말을 들으니 米國留學生들은 朝鮮에 와서 돈 많은 女學生을 얻어 享樂하는것이 常習이라는말이 떠돈다。이말의 眞僞는 如何든 우리 米國留學生들이 한번 들어둘 말이라한다。이러한 消極的 個人主義보다 社會를 爲한 積極的 個人主義가 어떨가한다。積極的個人主義는 어떠한 手段을 써서든지 朝鮮社會를 살리고 自己를 살리는 手段이다。이러한 積極的 手段을 가진 사람이라야 今後 朝鮮의 適者가 되겟다。

(二) 自己의 責任이 무엇인가를 分明히알고 그것에 忠實하려는 그사람이다。모든 盛衰興亡의 最後責任者는 自己이다。責任을 잘 직히려면 自己가 하는일에 奴隷가 되어야한다。兵士가 그 生命을 바치고 責任을 다하는것처럼 우리 朝鮮人은 그責任感에 對하야 兵士的 訓練이 必要하다。自己보다 他人을 먼저 是非하고 自己가 先進者를 따라가려는것보다 그를 끄러내리랴 하는것이라든지 自己보다 못한 사람이 잇을때에 끄려올리랴하는것보다 賤視하는 惡習은 다 自己의責任을 覺悟하지 못하는데서 發生하는것이다。學生은 工夫잘하는것이 그의 根本責任이요 商人은 物品을 顧客에게 親切히 提供하야 彼此 有益되게하는것이 그의 本來責任일것이요 醫師는 病者를 誠意끝 治療하여주는것이 그의 責任일것이다。朝鮮人中에 이렇게하는 사람이 別로 많치못하매 조선사람 우리끼리도 「日本商店

에 가야하겟다」「조선醫師놈들은 모다 엉터리다」하는말을 듣게되는것이다。朝鮮에서 무엇을하고잇든지 自己責任을 잘하는사람이 適者이다。

（三） 專門家인대 大槪 사람들이 無責任한 行動을 만이 하게되는것은 一定한 方面에 專行이 없는까닭이다。萬事奔走한 사람은 아모것도 모르는者이다。어떠한 專門이든지 해가지고 거기對하야 朝鮮에 무슨 貢獻이 잇다하면 이것이 우리의 榮光일것이다。今後 朝鮮의 適者는 出衆한 一方面 專門家이다。

以上 三種 適者의 要素는 今日 우리에게 理想이다。理想은 現實에 없는것에 잇다。朝鮮社會의 更生은 以上 三種 要素를 實現하는데에 잇다고 믿는다。

以下五十四行略

# 金 마 리 아 論

## ——多難한亡命生活公開狀——

정 일 형



(김마리아孃의近影)

### 亡命生活의序曲

때는 一九二〇年 五月下旬——꽃잎도 땅을 덮기 전에 록음부터 무르닉은 漢陽의 天地에는 活躍과 成長을 상증하는 男性的 盛夏가 山河를 덮기 시작한 시절이엇습니다。

數千의 會員과 十三의 支部를 두고 ××政府와 ××운동의 희생자 및 遺族 救助에 全力하든 愛國婦人團의 秘密結社가 大邱署員에게 一網打盡된후도 六個月의 歲月이 흘럿습니다。

한번 囹圄의 몸이된 그는 불행히도 病魔에까지 침로를 받어 마츰내는 깨어진 健康을안고 病監 한구석에서 呻吟을 거듭하는 身勢가 되엇습니다。

그후 얼마를 지나서의 일이외다。當時 세브란스病院 간호부장 에스더孃의 보석운동이 奏效하여 급기야 豫審에 회부된지도 半年이나 넘은 被告 金孃은 五月下旬에 분명히도 出監되는동시에 異域女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轉地靜養하는 몸이 되엇습니다。城北洞 어느 농가에서 치료하기는 다음해 봄이엇으나 經過가 不順하여 病勢는 나날이 逆轉해가며 肺病의 症勢까지 合勢되어 重態에 떠러저 臨床醫師가 땀사발이나 흘리든 그 時節의 일입니다。

바로 이때외다。外四寸이라는 戚分을 내세우며 漢陽病院을 비상히 出入하는 少壯紳士 한분——그는 ××政府에서 特派한 尹응념氏로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患者를 찾어 들어 밤이 깊도록 무엇인지 勸諭도 해보며 說服도 피한지 몇달만에야 그들의 鳩首會議는 마츰내 成立을 보게되엇습니다。

### 明滅自在한慧星

요란한 「엔진」을 統制하는 「택시」의 「끼어」소리가 적요한 長安의 밤공기를 흔든지도 몇시간이 못되여 그들은 제물포(仁川) 어느 中國敎會 大講堂으로 자최가 잠기며 무거운 숨소리만을 두어번 남기게 되엇습니다。이날이 바로 土曜日아츰 아직도 數萬의 府民은 꿈동산에 헤매는 이른 새벽의 一場 活劇이엇다하면 너무나 황상한 노릇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週日 유해가며 身病을 조섭하든 그 一行이 乘夜脫國의 「프로그람」을 進行하는날도 필시는 오고야 말엇습니다。仁川 埠頭에는 中國마님으로 변장한 二三人의 부인네와 數人의 男性들이 一葉 片舟에 몸을싯고 黃海에 滄狂한 물결을 헤처가며 水平線 저 너머로 외롭은 그림자가 살어저버렷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날 夕陽녁에 우연히 中人의 큰 商船 한 척을 만나 水戾과 病苦로 重態에 빠진 젊은 새조선의 일꾼을 옴겨싯고 아모 꺼림도 없이 두고두고 憧憬하든 自由의 나라를 向해가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자최를 정복하게 되엇습니다。

한 週日 후 그들은 中國땅 위海위에 投錨하자 應急手當을 加하는 一편 어느 미슌학교 총 하나를 빌어 病室과 「호텔」로 兼用하게되니 이것이 異域寒窓에 病客의 몸으로 亡命生活을 시작하는 第一막이엇다고하면 한낫 奇蹟으로나 생각될뿐이외다.

姑母父 徐炳昊氏가 出迎온때는 尹氏와 作別한지도 두 주일이 되엇읍니다. 몸이 다소 회생되자 갈길을 재촉하는 동시에 一葉을 當局에 날려 上海行을 通告하든 當時 心境은 과연시 어떠하엿겟읍니까! 오직 感激과 法悅에 울든 氏의 勝利感이야말로 어찌셔 鳥籠에 가첫든 한마리 새의 解放에 比할바만 되겟읍니까? 東明의 나라에 빛나든 慧星이 白頭山너머 中原의 넓은들로 잡들며 다시 도라올 긔약도 못하든 그시절의 心懷야 讀者도 추측하고 남음이 잇을것이외다. (六行略)

黃浦江 커른 안개
꿈바다에 어린듯

황포江 커른 안개 속에 花樹銀大가 빛나는 안개밧 밑에서 찾어주는 한때의 白鷗야말로 젊은 亡命客의 마음바다에 어렷든 黃昏까지도 깨쳐주며 새로운 運命의 실마리를 던저주는 初저녁 短杖에 몸을 의지하고 上海에 첫 印을 친지도 생각하면 十二年전 옛날의 한토막 記憶이외다.

## 多角的人物

氏야말로 冒險思想에 當한 剛直하고도 熱烈한 人品이외다. 宗敎的 情操敎育의 感化가 큼인지 同志에게 대하는 信義가 남달리 두터운바가 잇거니와 자긔의 信條와 主張에는 죽엄이 문제가 안되는 힘과 열의 所有者이외다. 때로는 청렴한 道學者의 냄새도 나려니와 第一線에서 싸화나아가는 勇士의 활긔와 鬪氣가 滿滿한 분명히도 多角的人物이외다.

聖誕祭의 즐거운 鍾소리가 울려올때 일만양키들이 아름다운 禮物箱子를 헤처가며 즐기든 저녁 寄宿舍 他國女 어멈의 孤寂한 눈물을 씻처주며 위로한이도 氏요 저므러가는 노을을 엿보며 人生의 젊음을 슬퍼하는 紅人種의 悲戀哀歌에 가슴을 태운이도 분명히 金양이엇다. 천하고 약한 무리가 富强한자에게 짓밟힘을 볼때 열렬히 불타는 公憤에 타올라 反抗의 긔ㅅ발을 높이 든이도 氏요 公私를 未分하고 左往右還하는 우리의 志士 李××박사에게 일장의 勸告와 힐책을한이도 미상불 조선女性으로서는 그가 잇을뿐이외다. 數千의 世界女性이 會合한 世界的 모둠에서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를 代表하여 一場 熱辯을 吐해서 數萬 청중을 놀래겐들 못하엿으며 數百의 흐터진 조선의 일꾼을 모두어 明日을 위한 默契와 提携를 굳게하는 우리 學生總會의 司令官긴들 사양만 하엿겟읍니까? 여긔에서 붓을 돌려 氏의 어린 이 시절과 修養을 알어보기로합시다.

## 學窓生活의困難

一八九四年 七月十一일 氏는 西洋人의 避暑地로 이름 높은 黃海道 長淵郡 松川洞 소래 「베취」에서 故金允邦氏의 한 따님으로셔 類다른 첫울음소리를 내엇다고합니다. 일즉이 父母가 俱沒하고 生活難에 부닥겨 마츰내는 八男妹가 하나 둘식 떠러지고 지금은 오직 出嫁한 두 姉兄이 생존해 잇을뿐이외다. 열두살이 다가기전에 사랑하는 어머님조차 永眠하고마니 온갓파란과 風霜이 꼬리를 물고 이러나 잔약한 어린몸을 싸고 돌앗읍니다.

간신히 고향의 小학교와 貞信女學校를 졸업한후 光州 수피아女學校에 就職하게되니 이것이 社會에 나서는 第一步이엇읍니다. 三年이나 근실하게 봉직하고 一九一二년 가을 玄海灘을 건너 一年이나 廣島女學校에서 修學한후 다시 母校인 貞信에서 敎鞭을 쥐고 育英사업에 종사하나 千里鵬鳥의 壯志와 弘圖를 알어주는이조차 없엇읍니다. 飜然 一悟한바 잇어 一九一六年 截然히 貞信을 辭退하고 東京女子學院에 留學하여 專門학교까지 修了하엿읍니다.

「寸心言不盡
前路日將斜」

錦衣還鄕하든 그해봄이야말로 民族萬年의 更生을 부르짖는 乙未年 봄이라 그는 歸國하자 학생만세사건에 連座되어 朴仁德 羅惠錫 申쫄렛女史와 같이 下獄되엇다가 證거 不充分으로 因해 一단 無罪석방이 되엇읍니다.

그러나 炎炎히 끓어오르는 一意 報國의 熱願이 불타고 잇엇음이야 어이하랴! (七行略)

梨花系 人物들이 總退却을 宣言하것만두 氏만은 抱身獨往이라도 不辭하기를 一決하고 흔연히 愛國婦人團에 加盟하엿읍니다. 이 단체의 활동과 內용을 여긔에 긔록할바가 못됩니다마는 당시의 主要한 役員들의 「푸로파일」만이라도 적어보렵니다.

金會長以下 李혜경氏가 副회장 總務에 黃「에스터」 金영순氏가 書記任에 합처 九名의 總任員을 거느리고 가즌方面에 活動하든 단체가 好事多魔냐 同團의 창설者格인 吳××女史의 密告는 國權을 擴張하자── 女子를 敎育하자는 슬로간 밑에서 二千의 會員을 싯

고 航海하든 이배(戰艦)도 마츰내는 挫礁되는 동시에 다음해 六月十八日 上告의 結果는 同艦의 艦長格인 金孃에게 二年刑을 言渡하엿읍니다。

## 脫 國 의 冒 險

그러나 육체와 정신的 疲勞가 극도에 達하고 또한 絶糭의 몸까지 되고보니 雪上加霜으로 나날이 건강은 쇠하여 病患은 重態에 빠지고야 말엇읍니다。上記한바도 잇거니와 보석出監이 허락되자 轉地치료하여 多少回復期에 들어서자 服從을 命하는 秋霜같은 戒嚴令이 一下합니다。

생각하니 깨어진 몸을 가지고 다시 服役生活을 한다고하면 오래지않어 차디찬 죽엄으로 위협하는 現實의 門이 열릴것을 잘 아는 그는 비록 강철 같은 意志와 勇氣人인 그도 다소의 권률이 없엇을것은 아니외다。(六行略)

오냐——脫國을 하자——그리고 넓은 나라와 自由로운 世界로 몸을 돌려보자 東도 좋고 西도 그만이다。天涯地角 하늘 밑에 水平線을 찾어 헤매는 몸도 무방이다。집시의 樂園은 어대며 紅人種의 幽居인들 사양하랴—飜然 一悟한바 잇어 모험의 길을 걸어 中國女人의 變裝을하고 登壇하게된 最後의 一路가 잇엇읍니다。

## 上海에서 米國으로

혜성 같이 사라진 그는 上海 天地에서도 이상한 光彩와 變化를 니르키고야 말엇읍니다 一年이나 두고 學窓에 몸을 던졋든 그는 다시 몸을돌려 數百의 ××員들이 一堂에 모힌 國民大會에서 熱河 같은 웅변을 吐하기도 한두번이 아니엇다고 합니다。

넓은 中國의 天地도 좁은듯이 之南之西로 풍진을 무릅쓰고 광복운동에 役身하든 그가 一九二三年 二十三日 上海를 解鎖한 웰손號에 몸을싯고 표연히도 中國땅을 하직해버렷읍니다。

## 外 遊 十 餘 年

한 해를 羅城에서 지나고 二十四年 九月「머조리」州 팕大學을 向해 行李를 수습할때까지도 건강의 회복은커녕 한 거름 더 나아가 赤手空拳인 룸펜의 신세—— 산설고 물설은 海外 萬里에 떠도는몸이 手中에 돈 한分없으니 어찌서 겹처드는 困難인들 하나와 둘로써 헤엿겟읍니까? 더욱이 아직것 쇠약한 몸에 神經病에 시달리든 그 시절에 잇엇으랴! 죽을욕과 고경을 처가며 三年이나나마 두고 형설의 功을 쌓은 결과 卒業하게될때는 알지못거라 한줄기의 감격의 눈물도 없지가 안엇을것이외다。그후 一年을「시카고」大學에서 社會學을 전공하고 다시 放浪客의 몸을 지어 東部를 편답하다가「콜럼비아」大學에 入學하기는 二十八年도 늦은 가을이엇다고 합니다。文學士位를 받은후 連해 뉴욕神學校 宗教教育科에서 三年이나 연구한결과 다시 榮譽의 宗教教育學士位까지 授與케 되엇다고 합니다。

## 重疊한波瀾曲節

평탄하지못한 젊은 새 조선의 女人으로 태어난 그의 運命은 너무나 긔구하엿읍니다。春風秋雨 十餘星霜을 두고 東西洋으로 헤매게됨이란 홉사이도 녀름때와 같이도 流浪의 몸이요 亡命의 길 그것이엇읍니다。

勞働市場에 헤매며 雜役을해야 糊口의 길을 얻은 몸이니「하우스웕」「쿡」「웨트레쓰」「널스」「쳅불멧」「페들리」「쉐일스껄」等 온갓 험한일인들 사양하엿으며 人種差別이 甚한 이땅에서도 中國 百姓으로 行勢하든꼴이니 남의 輕蔑과 賤待인들 오작하엿겟습니까?

危重한 腹部를 切開手術後 정신까지 잃엇든몸이 病室 한구석에 호올로 누어잇게됨을 意識하게되든 그 아츰 응당 하염없는 人世의 無常感과 寂寞의 안개가 氏의 强한 意志의 동산에까지 襲行한바가 잇엇을것이며「미슈간」넓은 湖水가에 흰돗단 帆船이 찾어들때 또한 雲樹懷想에잠겨 夢想의 故國을 聯想하기도 미상불 한두번도 아니엇을것이외다。그리고 또한 젊은 靑春男女들이 손에 손을 붓들고 校室로 庭園으로 사랑을 속사기며 거님을보든 아즈랑이 낀 봄날 아츰에 그도 젊은 이로의 외로움인들 없엇다고 否認만이야 하겟읍니까?

## 新裝한義의兵士

그러나 氏의 心中에 불타는 正義의 渴望과 人道의 熱願인 一片 丹心이야말로 이 모든 사소한 心的苦憫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잇엇읍니다。그렇습니다。炎炎히 불타는 一意報國의 念은 이 모든 雜念을 燔祭하고 살우어버린지도 오랫읍니다。

精神運動의 兵士로써 新裝한 氏의 戰術과 抱負란 아직은 알바가 못되나 明日의 새롭은 活動과 事業을 긔대할수 잇다는것만도 반가운 소식이외다。(一九三二、六)

# 北米苦學生活百鏡集

諸　　氏

大海의 福音과 怒濤의 洗禮를 받으며 太平洋의 浩蕩한 碧波萬頃과 世界的 奇山 靈岳으로 이름높은 우라키山의 險峻한 層岩疊嶂을 征服한굚은 조선 勇士들의 數가 實로 三百을 算한다。

黃金의 나라 金成鐵岩 밑에서 轉輾苦學하며 螢雪의 功을 쌓는 그들의 生活相은 과연 어떠한가? 여긔에 그들의 地下線生活의 赤裸裸한 受難記——이 百景集을 發表하여 滿天下의 讀者와 같이 남달은 戰鬪記를 웃고 울어 보려한다。 ——編者——

## 눈물의녀름살이

밴드빌트大學 한　샌　님

이미 學校에 진 빗을 갚고 새學年의 學費까지 벌어놓으랴고 멀리 加州로 黃石公園으로 텍사쓰州로 뉴욹으로 相當한 自信을 가지고 求하던 녀름 放學동안의 일자리는 모조리 失敗되고 本市內에서 部分的으로하던 일자리까지도 끊어지고 말앗다。路資가 없어서 어대로 갈수도 없고 여긔 잇을수도 없어 참말 進退維谷에 處하엿다。게다가 또 夏期學校工夫를 좀 해서 補充해야만 될 形便이다

이 處地에서 唯一의 方策은 自營으로 무엇을 創始함이다。그러나 手中에 無一分이다 이 刹那에 가볼데는 어댄가? 그래도 L氏의 집뿐인것 같어서 떨어지지안는 발거름을 억지로 내놓아 찾어간즉 바로 어젯날 그집은 一個月을 期하고 巡廻旅行을 떠나갓다。數萬里 他鄕 酷法아래서 요렇게 薄切한 情景을 當하니 나의 愁色은 모든 假裝의 努力을 뚫고 남들에게 나타나게되엇든 모양이다。

寡婦의 설음은 홀아비가 알아준다는 셈으로 나와 꼭같은 窮境에서 定處없이 남의 自動車 한구석에 실리어 떠나가는 L兄이 돈 五弗을 끄내주면서 「나는 이제 어대가서 어떻게 되든지 爲先 이걸가지고 뭘 해나 보시우」하엿다。

눈물겨운 이 돈 五弗로 미천을 삼아 中國茶를 注文해왓다。한封에 五錢가량 먹힌것을 몇사람의 勸告대로 十五錢씩을 받으랴다가 그렇게 많하여가지고는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팔아도 밥값도 못벌터임으로 적어도한사람에게 두封씩은 맡겨볼 작정으로 한봉에 二十錢 두봉엔 三十五錢 네봉에 六十錢等으로 等級을 지어놓앗다。하루에 스무봉만 팔아도 三弗은 남는다。

첫날 아츰이다。平生 남에게 듣기 싫은소리 싫어하는 짓을 못하고 수집기로 이름난 놈이 헐직한 中國茶 몇十봉눈 들고 나섯다 참아 낱닉은 學校附近에서는 할수가 없어서 無作定하고 뭇눈을 피하면서 큰 거리를 피하고 적은 골목으로 드러서서 商店들이 없

는 住宅地로 갓다。여긔서부터는 팔데다。주첨주첨하면서 첫집을 지나고 둘재집에는 들어가랴는데 마츰 사람이 門을 열고 나옴으로 갑작이 다긔질 勇氣가 없어서 그저 지날뿐 아니라 그 사람눈을 피하야 한 서너집을 또 지낫다。스사로 못남을 비웃고 다시 큰 決心을하고 한집 門앞에 가서 招人鍾을 눌럿다。主婦가 門을 열다말고 눈이 둥구래지며 뒤로 물러서다가 다시 나서며 「화듸실?」한다。「굳모닝」할 機會도 없엇고 내 氣分도 탁 까라앉어서 겨우 「아이앰 쎌링 차이니스티―」하는 대답을 끝내기도 前에 「노―」하면서 門을 탁 닫고만다。이렇게 勇氣를 잃고 憤도 나는것을 참고 땀흘리며 가슴아프고 다리아프게 終日 돌아다닌 結果로 다섯봉을 팔엇다。다음날 여섯봉 그다음날 네봉 그다음날 다섯봉 그다음날 세봉 그다음날은 아주 ○이다。썩는 가슴을 안고 그다음날 또다시 해본 結果가 두봉이엇다。

이렇게 기운을 잃엇을때 뉴욕에잇는 C君이 福香六打와 安의 見本을 보내주어서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문두드리고 내여놓고 사라고할 勇氣를 가지고 周遊하면서 東洋物品을 放賣하는 (내게 比하면) 大行商 P氏가 왓고 連하야 또 다른 行商 一行이 왓다。異域에서 同族을 맞나는 기쁨이 無量한 同時에 혼자두고 여름동안 나혼자만 팔아도 地盤이 不足할관이라 販路의 威脅과 資本의 過少를 느끼게되엇다。

이때에 H君은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機會나 본듯이 내게로 와서 合資하야 좀 크게 行商을 해보자고한다。나는 벌서 부터 그생각을품고 分錢을 모으던터이며 또 둘이 하게되는바에는 各各하는것보다 便益이 잇을터인고로 同意하고 나의 總資產과 그의 現金을 合하야 中國上等茶 各種과 女子의 室內服 周衣 床褓 香 香水 水中花等屬을 注文해가지고 둘이다 夏期學校에서 修學하는까닭으로 멀리 다른 都市에는 못가고 한곧에서 每日 이집 저집 훑어다니면서 누르지말라는 招人鍾을 울렷다。別別사람 다 모힌 米國의 一都市라 別꼴 다 본다。 어떤 집에서는 코 납짝하고 다리 짧은 黃人種을 처음 보는지라 불러드려 수작을 부처보기도하며 혹은 凶한것을 본듯이 門을 열다말고 질겁을해 들어가며 또 어떤집에서는 同情하야 物件도 사고 자긔車에 태워 친구의 집에 다리고가서 紹介까지 하여준다。그러나 大多數는 다 拒絕이다 어떤 집에서는 門도 안열어보며 혹은 門을 열고 主婦가 없어 몰은다 낮잠자는 時이다 그런것 볼 時間이 없다 그런건 일없다 집에 病人이 잇다 돈이 없다 이담에 맞나자 하는 핑게를 늘 듣게된다 또혹은 처음엔 좀 親切하게 굴던 사람도 두번째가면 아주 冷情한 빛을 보이며 혹은 우리가 가지지않은 物件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잇으면 사겟다고 함으로 그말을 고지듣고 그것을 注文해 가지고 다시 가면 그런말 한치도 않고 冷情하고게 拒絕하고만다。

이제는 白人들은 너무 冷情하니 그들이 비웃던 말든 賤待받는 黑人에게로 가기를 시작하엿다。H君의 發意대로 여긔서는 白人에게서 하던 態度를 버리고 그저 主人이 나오면 안산다는 말이 나오기 前에 連해연방 말을 니어 數多하게 집어섬기며 門안으로 비비고 들어가서 물건을 쭉펴놓고 거짓말과 풍을 섞어서 어떨떨하게하면서 그의 손에 物件을 쥐혀주기로하엿다。白人들은 돈이 잇으면서도 經濟恐慌의 守備策으로 주머니를 졸라매지만 黑人들은 대개 돈이 잇기만하면 人權侵害란 생각도 없이 번들번적한것이면 時價도 몰으고 막산다。그러나 黑人에게서는 無識과 修練적은 所致로 無責任 無時間觀念等으로 因하야 딱한때가 많다。

如何間 모든것을 다 覺悟하고 나선 관이라 그런 問題도 다 無關이다。그러나 終日 그 冷待 그蔑視를 받고 땀으로 沐浴하고도 한푼어치 못팔고 풀죽어 돌아오는 날은 空然히 서로 怨亡만 하게된다

이렇게 多恨하게 지난 結果는 어떻한가? 學校에 진빋 갚기는커녕 녀름동안의 寄宿舍費 夏期學校修業料도 못내고 그저 쌀 배추파값을 겨우 支拂하엿을뿐이다。當面한 新學年을 시작할 預算은 全無하다。

# 한달의「널스」생활

뉴욕 김 마 리 아

十年이나 두고 苦學한 나는 별별 험한일 궂은일 한차례식은 다ー츠려보앗읍니다。 남의 집 종사리부터 女給의 身勢며 店員 行商等으로 양키天下에서 가진 경멸과 천대를 받으며 때로는 우리나라 讀者들은 상상도못할 『컴패니온』이라는 늙은 할멈의 배종관인 말하면 專屬下人의 苦役으로 땀사발을 흘리든 곤경에 헤매기도 한두번이 아니엇읍니다。학교다니면서 남의 집 일해주며 宿食을 얻든 「스쿨컬」의 고생도 英語 모르든 그 時節에 남달은바가 잇엇으며 그보다도 같은 조선사람들이 白人집 종사리할때 이러나든 「뗄리켙」한 心的苦悶이란 나만이 알수잇는 永遠한 비밀일가 합니다 。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모두가 지나간 옛날의 한조각 구름떼와 같이도 아득하게 사라진 過去가 되엇읍니다。

이제 지나간 옛일을 도리켜볼때 잊지못할 한토막 아픔의 記憶이 떠오름이 잇어 이 긔회를 利用해 엉켜진 긔억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벌서 三年전 무덥든 녀름의 일이외다。放學을하고 校門을 나서니 무엇보다도 아츰과 저녁이 문제가 되리만큼 절망한 경제공황이 따러듬니다。苦學生活을 하도 오래한탓인지는 모르나 아모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야말로 彼岸의 火같은 말하면 冷情하고도 침착한 心的支配를 받게될뿐이요 결코 황당한 생각에 졸려 갈팡질팡하며 공연한 념려와 공상에 헤매는 일이란 극히 적엇읍니다。

살게도겟지——이것이 내 生活觀의 백리깊은 範鑄의 하나이외다。實은 이哲學의 支配가 없엇든들 나라는 存在는 벌서 사려진 雲霧의 한편일지도 모릅니다。

人事相談인 職業紹介所의 알선으로 내목에 온 짭(일)은 영어로 「널스」라는 남의집 어린애보는 간호부 그것이엇읍니다。

간단한 행장을 둘러메고 「러ー오아이랜드」라는 太西洋연안 금빛물결이 찾어드는 화려한 文化都市에 외롭은 그림자와 같이 雇主를 찾어갓읍니다 。

四十이 가까운 一見 少壯紳士에게 來意를 通하니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자긔 안해를 불러나립니다。아모리보아도 二十도 못된 젊은 시악시ー 옷채림이나 그 動作이 禮儀잇는 량반집자식은 못된다는것이 첫번 인상이요게다가 男便에게 대하는 말법까지도 분명히 法道가 없는 집이라는것을 發見하엿읍니다。

그렇다고 지나도안보고 갈수도없어 울면서 게자먹는格으로 월급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지를 않엇읍니까? 이른 새벽 아직도 主人들은 잠자리에 뭉개는것을 알면서도 일쭉이 이러나 조반을 준비하는 한편 어린애들을 거두어 옷닙히고 세수시겨놓자 시간따라 음식을 먹이고나면 벌서 열점도 넘고 이른 점심때가 됩니다。애가 돌식이나 되는지라 한애를 돌보고나면 다른것이 울고불며 야단을치며 수라장을 만들어 놓읍니다。이렇게 한종일 두애를 더리고 쩔쩔매는몸이 또한 어룬들의 밥도 지어주어야하지를 안습니까? 막말로 코구멍만한 주방에서 밥을 지어주며 두애를 거두고나면 보탬없이 등뒤에 땀이 비오듯합니다。

자리에 누어 생각하니 긔가 맥혀 그야말로 죽을 至境이외다。그렇다고 일을 집어치울수도 없고 게속하자니 뼈가 녹을 지경이니 진퇴 유곡의 難關이 꿈나라에까지 쌓고도는것만 같엇읍니다。

그 가을 학비를 생각하여 그럭저럭 한달의 세월도 갓읍니다。그러나 원체 趣味붙일것이란 하나도 없는데다 新聞한장 변변히볼 여가가 없는 종사리의 실증이 난지 오랜데다 主人마님의 무자비는 열화를 독가주고도 남음이 잇엇읍니다 。

主人마마령감 夫婦는 원체가 모던人物들이라고나 할가요! 여하튼 流行의 尖端을 것는 最高度的 文化生活과 방종을 겸한 일종

의 재즈式 生活에 倦怠와 支離를 느끼는 家庭입니다。이 집의 主人은 뉴욕 어느 劇場의 舞臺監督이요 그 안해 스므살도 못된 貴婦人은 필자의 門下에서 노래하고 춤추든 花形女優를 떼드려다 생활을 시작한것이 그 모양이엇읍니다。

情은 나날이 시거질뿐아니라 일의 趣味까지 사러져 허덕이는 내몸에는 웬셈인지 避暑地로 이름높게 서늘하다는 그땅의 바람도 종사리하는 내등뒤에는 도로혀 괴로움의 못을 박어주는 무덤든 녀름이외다。

에라 집어 치어라! 옳다 그렇다 이일을 한달만 더 하고나면 내 건강은 다시 깨여지고야 말것이 아니냐? 모든것을 닞어버리면 그만이 아니랴 失職者의 受難과 十字架를 나라고 못메랴 그만두자! 이것이 최후의 남는 한길이요 운명같이 생각되엇읍니다

한달의 月給을 손에 찾어들고 다시 뉴욕 시가에 헤매게될때는 비록 포겥은 말나빠젓슬망정 새롭운 元氣를 가지고 나아갈 한줌의 勇氣가 흐터젓든 마음바다에 용소슴치며 갈길을 재촉해주엇읍니다。(一九三二, 六)

# 辛酸한天堂生活

## ——사랑하는동생의게——

耕　　　牛

사랑하는 동생이여! 발서붙어 동생에게 붓을 들자 하면서도 元來 鈍才에다가 서투른 남의 나라말을 갖이고 공부를 하노라니 自然히 분주해서 이제껏 동생에게 無信한 사람이 되엇다。깊이 諒解하고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오늘도 日曜임에도 不拘하고 아침붙어 저녁까지 圖書舘에 가서 테불을 안고 書冊과 씨름하다가 밤 열時나 되여 도라오느라니 얼켜등같은 半月은 半空에 걸리어잇어 그 푸른달빛은 이 가슴속까지 슴여들어 끊임없는 客懷를 자아내는고나!

사랑하는 동생이어! 나는 이 푸른 달빛아래서 悽然히 故國을 그리면서 故國을 떠나기前 동생으로 더부러 달아래 거니든 그 아름다운 記憶을 머리에 새롭게 하면서 밤가는줄을 몰으고 서서잇다。아! 나는 어서 이 辛酸한 客窓의 生活을 떠나 따뜻한 故國의 땅을 밟고 사랑하는 동생으로 더부러 다시 그 즐거운때를 만들기를 오직 바라고 잇을뿐이다。

참말 말이낫으니 말이지 黃金의 나라——地上의 天堂이라고 불어오든 米國에 와서 이렇게도 辛酸하게 고됣호게 지낼줄이야 누가 알앗으랴! 米國만 오면은 華麗한 洋屋寢臺에 자며 훌늉한 洋料理에 不足함이없는 生活하리라고 동생과 내가 맞우앉어 이약이하던것은 그야말로 一場春夢의 부질없는 생각이엇다。어린동생의게 나의 고생사리를 이약이해 동생의 마음을 괴로웁게 하는것 外에 무슨 有益이 잇으랴만은 그렇나 동생밖에 또 누구에게 이러한 事情을말하랴?

이것은 지난 여름이엇다。夏期休暇가 되기는 五月五日 (開校는八月十五日)三個月이 훨신넘는 休暇를 當하엿다。本國에서 學窓生活을 할때에는 放學처럼 기쁜것은 世上에 없엇다。

그렇나 米洲의學窓生活에 잇어서 休暇처럼 恐怖를 일으키는 것은 아마 또다시 없으리라。勿論 이것은 우리같은 外國學生——留學生中에도 가난한 코리안을 두고 말하는것일 것이다。그 理由는 첫재로 休暇가 되면 每期 얼마씩 學校에서 奬學金으로 받든것을 받지못하게 되는것。

둘재로 따라서 내가 땀을 흘리고 서투른 솜씨로 무슨일이나 하여 내 生活費와 또는 오는 學期의 學費를 多少라도 벌지안하면 안되는것이며 더구나 近年같이 不景氣가 甚한때는 일을 얻기가 참으로 한울에 별 따기보다도 쉽지아니하니 手中에 단돈 몇弗이없는 나로써 앞에 버려야 于先 이 五尺의 몸

을 길너나갈터인데 일은 없고 書生으로 三十이 지나도록 지난 나이니 일을 얻는다한들 그도 또한 問題가 아니냐?

그렇나 何如間 休暇된지 一週日만에 多幸히 일자리가 하나 생겻다. 그것은 어떠한 醫師 (단 두內外가사는)의 집인데 일의 種類는 아침과 커넉으로 쿡(料理)하는것 그밖에 寢室 書齋 居室 厨房 집 全體를 掃除하는 일로 每日平均은 六七時間 乃至 여들時間 일을 하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이엇다.

報酬는 그집에서 먹고 자고 놀아지말아 每朔 十弗이엇다. 景氣가 좋은때에는 한달에 적어도 五六十弗乃至 八九十弗까지 받을수 잇엇다. 하지만은 때가 때이라 每朔 十弗이라도 억지로라도 滿足하고 잇지않을수 없엇다.

定한날 나는 그집에 갓다. 가는날붙어 나는 비(箒)와 걸네로 친구를 삼고 부억에들어서는 물과 접시等屬으로 나의 놀 동무를 삼을수 밖에없엇다. 동생이 잇어도 내가 부억에 들어일하는樣을 보앗다면 오즉이나 웃엇으리! 꺽달한 키에 헝주치마를 앞에돌으고 채소를 다듬으며 설거지를 하며 하는樣을 가만히 눈감고 그리어보라. 지금의 내가 그때 그 樣子를 도라본대도 亦是 웃음을 禁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하로 이틀 몇날을 지낫다. 처음에는 처음이니 만치 그러한 生活이 쓰고 달믈 알수없엇다. 그렇나 하로가 지나고 일을이 지나고 날이 감을따라 辛酸한 느낌이 漸漸度를 더하엿다. 첫재로 무엇보담도 主人女人의 잔말이 第一 견대기 어려웟다. 勿論 모든것이 다 처음이니 만치 서투른것이 事實이며 서투르니 만치 잔말을 들을것도 事實이엇다. 그렇나 그 잔말은 程度에 지나치도록 甚하엿다. 어떠한때는 주전자에 물을 넘우 많이 끄렷다고 잔소리 어떠한때는 설거지를 자긔 하라는대로 아니한다고 잔소리 할잔소리 아니할잔소리 아! 그잔소리 생각하면 지금도 진저리가 난다. 그 잔소리 핀잔을 들어가며 일하는 나는 마치 짓궂고 甚한 시어머니 밑에서 싀집사리 하는 남의 집 며누리 같은 느낌이 잇엇다. 나는 혼자『온세상에 공부가 아무리 重하기로니 異國까지 와서 싀집사리를 하다니 체!』이렇게 不平을 하면서 나혼자 웃엇다. 同時에 나는 아직도 그수만한 朝鮮女性들이 하고잇는 不幸한 生活을 同情하지 안할수 없엇다. 果然나는 이러한經驗을 하여보는 가운대 싀집사리의 生活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내몸소 體驗하고 우리 그 不自然한 家族制度를 咀呪하면서 그러한 束縛이 많은 制度를 어서 破壞하여야 할것을 切實히 느꼇다.

사랑하는 동생이어! 동생은 이러한 拘束의 生活을 하는 無數한 朝鮮의 女性들이 解放을 부르는것은 女性이 先撥者가 않으려는가아! 自由! 自由! 나는 이 自由의 尊貴함을 이때에 더욱 더 切實히 느끼엇다. 이렇니 저렇니라 하여도 그때의 나의 生活은 高等한 生活이엇다. 淨潔한 방에서 寢臺에 자며 훌늉한 浴室의 設備가 잇어 本國에 朝鮮호텔이 아마 여긔에서 더 낫지못하리라. 그리고 그집은 높다란 언덕우에 놓여잇는데 집周圍로는 花卉를 심고 잔듸들을 깔아 住宅美를 極하엿고 窓밖으로 西便을 바라다보면 米大陸이 太平洋沿岸의 關門인 桑港이 눈앞에 展開되고 저녁이 되면 金門灣 출넝그리는 물결우에 千 쪼각 萬 쪼각 萬萬 쪼각의 黃金片을 뿌리면서 太平洋 깊은 바다 속으로 잠기는 燦爛한 落照를 마음대로 享樂할수잇는 곧이엇다. 그리하야 그집이 비록 나의 집은 아니지만 내가 잇는동안 까지는 얼마든지 이 모든것을 享樂할수 잇는것이 아니냐? 그렇나 나는 이 모든것이 다 싫엇다. 훌늉한 집 푹신한 자리에서 잠자고 기름진 飮食을 먹으되 나는 그것이 싫엇다. 一擧一動이 自由로웁지못한 나에게는 自由밖에 더 좋은것이 없엇다. 모든것에 조심스러웁고 모든것에 不自由로운 차라리 來日 죽을지라도 거긔 더 잇고싶은 생각이 없엇다. 그리하야 마침내는 한달 갓갓으로 채우고 나오고 말지않엇니? 아! 어떻게도 시원한지 마치 監獄사리를 몇해 하다가 나오는것 같어서 숨을 휘 내쉬엇다. 그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우리學校 近處 ○○科學校에 交涉해 그 學校 寄宿舍에 房하나를 눅은 貰로 얻어가지고 그리로 옴기엇다.

그리고 食事는 사먹으려면은 한끼에 적어도 三十五仙이나 四十仙을내지않으면은 아니되니 到底히 그만한 食代를 支出할수 없는 境

遇이매 不可不 한끼 사먹는돈으로 하루나 이를 지낼 道理를 생각지 않을수 없엇다。그 方法으로는 自炊外에 다른 道理가 없엇다。그래서 厨房의 設備도 없으니 그 얻은 房을 厨房으로 쓸수 밖에 없엇다。그리하야 房하나를 가지고 厨房으로 書齋로 寢室로 客室로 通用하엿다。나는 이렇케 자리를 定한 後에 가만이 앉어서 많지못한 돈을 가지고 파고 먹고잇을수 없으니까 그 이튿날 붙어는 조고만 가방에 무슨 물건을 좀 담어 가지고 行商을 다니기로 하엿다。긴말을 다 어찌하랴! 손에 가방을 들고 이집 저집으로 불으지도 않고 반기지도않은데 가서 門을 두뒤려 가지고 主人이 나오면 廉恥없이 들어가 別의 別소리로 목에 침이 마르도록 해가면서 물건을 팔지 안니? 그러드래두 잘 팔리기나 하면 무슨 걱정이 잇겟니? 어떠한날은 하루終日 다녀야 하루버리도 못하고 뷘주머니채 맥없이 들어오는날이 하구두 많구나 그래두 그것으로 多少 돈兩이라도 벌어쓰기는 햇지만 行商하느라고 나는 本國서 가지고왓던 廉恥라고는 다 떼 팽가치고 只今은 배ㅅ심만 남엇다。그래서 只今 그 배ㅅ심때문에 아마 몃일 굶어도 죽지는 않을것 같다。그리다가 또 어떻게 일자리를 하나 얻어갓는데 일 하든곧은 한 두어哩되는 물하나를 사이에두고 桑港과 相對하고잇는 아라메다라는 곧에잇는 飛行場所屬旅舘이엇다。하든일은 亦是 前에하든 일같은것이라 하루에 적어도 十數時間을 勞働을하지않으면 안되엇다。튼튼하지도 못한대 하루에 十數時間은 넘우도 過한 勞働이엇다。나의 健康은 漸漸 못해갓다。그뿐아니라 나는 그렇게 過한 勞働을 하면서 主人이 要求하는 일을 다 堪當할수 없엇다。그리하야 나는 마침내 일을 얻어간지 二週日만에 結局나오고 말엇다。나는 그동안에 그 飛行場에 잇는 飛行士 한사람과 사괴이게되여 飛行機를 다 타보앗지。아! 참말 爽快하더라 내平生에 그렇게 상快한 經驗을 해보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인것같엇다。

고생이야 되엇지만 그것이 나의 큰 所得이라고 할가? 그後에 나는 다시 어떠한 下宿에 雇傭되어 설거질하는일도 해보고 자리만 들어주는일 이모양 저모양으로 한 여름을 何如間 지냇다。

아! 別로 길지않은 그동안에 가지 各色으로 別別일 別別經驗을 다해보앗구나。식집사리도 해보고 飛行機 타보고 자리 만드는 일도해보고 行商도 해보고。

편지가 넘우도 길어젓다。그렇나 오래 간만에 붓을드니 自然히 말이 길어젓구나。다못 동생의몸 健康하여 동생의 職務에 忠實하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十月十五日밤 十一時)

# 渡米留學의前後大差

## —留米遊學日記에서—

뚝大學 盧 在 明

쩌른지 긴지 모르나 如何든 渡美生活로 歲月을 보낸지도 於焉 五個星霜이 훨신 지낫다。本誌主幹의 所托도 잇고 記者 또한 過去留美五年間 내 生活의 片片을 더듬고저 밧분틈을타서 이 붓을 들엇다。間間히 써두엇든 日記를 뒤저그리며 달고 쓴 所謂 苦學談의 材料가 구석구석에 가득히 쌓여 잇다。紙面의 制限도 있고 學窓生活이 몹시고 奔忙한터이니 다만 甘苦交叉된 留美生活의 一片을 적어 讀者諸彥에게 一考를드리고저한다。

(一) 渡米留學의前後大差

所謂 黃金樂園이란 美洲를 오랴고 憧憬하고 夢想한지 將近十載에 於焉코北米大陸에 이몸이 담긴지도 바로 五年前 이른봄이엇다。너무도 오고싶엇든 길이엇슴인지 참으로 그때는 밋칠듯이 깃버 桑港埠頭에나리기가 무섭게 모든 繁榮과 燦爛을 자랑하는 桑港大市를 휘돌앗다。勿論 前에못보든 雄大莫比한 大建物이라

든가 街路를 華麗하게 裝飾한 百貨와 電光이며 蟻群長陣같은 自働車等屬의 頻繁을 볼때 몹시도 나의 耳目을 놀내고 心盤을 울이엇다。그러나 몃일이 아니되야 어느 골목을 지나노라니 不意에 冒酒兵丁이 나서며 一錢한푼 줍시요의 高喊을 치며 달려들엇다。나는 넘우도 意外라 놀내엇음은 勿論이어니와 渡美留學의 前後大差의 첫 階段을 여기서 發見하고 所謂 黃金樂園이란 美國도 살어름판임을 알었다。過去 五年을 지내오며 特히 大都市를 지날때면 如履薄氷格으로 操心操心하여 살어왔다。사람사는 곳은 東西가 一般이라 그다지 異常히 넉일바 업거니와 渡美生活의 前後大差라는 누구나 銘心하여둘일。

(二) 美國識者階級의 大無識

나는 美國에 오는 길로 두해는 V大에서 歲月을 보냇다。西人들의 最多數가 Korea가 어듸 노혓는지도 모른다。「쨰팬」이나 「차이나」라면 하도 많이들은것이니 쉽게 알어도 반드시 저들이 알어야될 「코리아」는 모른다。(勿論 선교사측으로 관게를지은 선교부나 약간의 교회측에서는 「코리아」를 알지마는」아직 나히어려 就學年齡에 達치 못한 年少輩들은 아직 小學校에서 地理배홀機會가없어 그럿타하겟지만 所謂 小中大學을다마치고 敎授로 行勢하는 作者中에도 「코리아」를 모르니 이야말로 美國識者階級의 大無識을 보임이 아니고 무엇일고。참 兩班들이 살고 世界文化의 朝宗되는 「코리아」를 모르는 無識大家들을 間間히 對할때 나는 너무도 虛無를 느끼엇기에。

(三) 녀름철을 期待하는 外國苦學生

年中 夏三朔은 外國苦學生들의 學費準備上 唯一한 機會이다。特別히 우리朝鮮學友로서는 이機會를 놋치면 秋期開學 그날부터 學資困乏으로 남이 맛보지못하는 有別한 古情을 늣기는것이다。남처럼 後援하는 든든한 國家의 背景이 없고 艱困에 쌓인 本國으로서는 一分餘裕의 學資를 가저올수없는 갸륵한 難境에 잇는 우리들인 까닭일다。

記者는 過去 五次의 夏三朔을 勞働大役의 苦情을 늣기며 學資를 벌어 쓰온 뼈아픈 經驗이잇다。남이모르는 가엽슨 갓가지의 쓰라리고 피눈물 나든 苦生사리하든 夏三朔의 經驗談을 엇지이좁은 紙面에 一筆로 다 적을수잇을고 그中에 몹시 아프고 쓰리든 가장 뼈앞은 經驗事를 써보자。

때는 一九二九年 찌는듯한 여름철이엇다。V大에서 夏休가 끝나자마자 나는 紐育 우리同胞의 經營하는 勞働紹介所를 차저갓다。그해는 그다지 經濟恐慌이 없섯든터이것만도 그좁은勞働紹介所 待合室에는 立錐의 餘地가 없이 일을 求하는 各色人種이 가득히 찻엇다。뭇사람들의 땀냄새 喧嘩聲 陰談敗說 等事가 몹시도 氣分에 逆하고 不便하얏으나 그래도 時急한것이 求職이라 꾸준이 견듸고 참은지 數日後에 僥倖이 일자리를 하나 얻엇다。일갑슨 宿食 除하고 月給八十五弗 場所는 뉴욕大市마즌便 뿌룩클린市엿다。일하여줄 집 主人은 年期거의 五十이넘은 中老人이오 그의 夫人은 겨우 三十未滿의 젊은 女子이엇다。男子는 愛蘭出生이요 女子는 伊太利産이엇다。그러나 勿論저들은 美國市民이된지 오래엇다。男便되는 R氏는 뉴욕市 월大街에서 株式販賣代理業을 하고 그夫人은 집에서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살님사리를 보살피는것이엇다。그男子는 매우 溫順하고 寬仁한 老鍊한 紳士엿으나 그때에 不幸이 病이들어 私家에서 療養中이엇고 그夫人은 本性이 몹시 괄괄하고 不美하야 괴로운中에있는 그男便을 時々로 더욱괴롭게하엿다 젊은女子라 그男便의 富에 눈이 홀이여 結婚生活을 始作하엿으나 아마도 婦夫生活의 性的滿足도 채울수 없고 離婚을하자니 口腹이 將首라 生活이 暗暗할터이니 그야말노 進退유곡이엇든 셈음이다。

그 女子는 每週男便으로서 몃十弗式의 小切手를 받어가지고 主策없이 살임사리를 하든것이엇다。돈잇는德에 自働車도 좋은것이 잇어 間間히 行方없이 大路에 달이기도하고 不安의 心情을 慰勞하랴함이던지 쓸데없이 販賣市場과 古物雜貨商으로 間間히 彷徨함으로 그날그날을 보내는 無頓着한 女性이엇다。

이러한 家庭을 일우고사는 집에서 나는 學資벌 欲心으로 이것저것 헤아릴새없이 머리를 푹숙이고 數朔間을 그집에서 일하여주엇다。病床에 누은 그男便과는 매우 多情한 親舊로 지내엇으나 恒常 그夫人의 못난꼴이 몹시도 눈에 거슬니고 心情에 不合하야 어던때는 一時도 참을수가 없엇다。그男便의 가진

돈 德을 믿고 끌사납게 구는것이라든지 돈푼 잇다는덕으로 몹시도 傲慢放자하게 구는꼴이 몹시도 아니꼬왓다。미웟다。아니 고약하고 怪心하게녁엿다。나는 맛참내 그女子와 말다툼이 始作되고 人情없고 사람몰라보는 돈냄새 피우는 그女性을 떠낫다。돈비린내 피우는 所謂 美國의 學個의 家庭生活內幕이 이와 大同小異함을 나는 每年夏三朔에 차즌 大發見이다。

以上에적은 留美學窓의 日記가 後日큰 成功을 보는날에 얼마나 우슴거리가 될고。

以上

# 오면서당한일두가지

밴드빌트大學 姜 明 錫

## (一) 두번재 쪼끼어갈번

나는 昨年 四月八日에 상항에 도착하여 移民局에 가서 가치어잇다가 四月十六日에 내가 타고왓든 龍田丸으로 그만 쪼끼어 돌아갓다。그理由는 내손톱에 벌레가 잇다는것이엇다。나는 돌아가서 그 손톱을 두번이나 手術을하여 빼어내고 今年에 또다시 왓다。그래서 상항에 도착한때는 八月九日이엇다。또다시 移民局으로 끄을리어가서 疑問中 열하로밤을 지내고 身體檢査를 받엇다。檢事는昨年보담도 一般에게 휠신 嚴重하게하엿다。그順序로 말하면 最初에 大便檢査를하고 그다음은 三十餘名 全部를 裸體列을 만드러놓앗다。三十餘名이 裸體로 列을 지어 서고보니까 그것도 果然 壯觀이엇다。아마도 그런 壯觀은 내가 今後에 한번더 米國留學을 오기前에는 또다시 參列할수 없는 일인同時에 볼수도 없을것이다。그리고는 次例로 눈瞳子를 비롯하여 발톱 끝까지 아니 甚至於 발가락사이까지 모조리 檢査를한다。檢査를 받은結果 中國人 四五人外에는 모다 通過되엇다。그中에 나도 通過되엿다。그래서 나는移民官이 불러서 上陸許可를 줄時間만 기다리고잇엇다。그때에 뜻밖에 病院에 나만 다시 呼出을한다。웬일인가하고 가니까 醫師가 나에게 「너는 昨年에 病이 잇엇는故로 다시 한번 檢査를 해야되겟다」하고 이번에는 발톱을 檢査하자고하면서 칼을가지고 달려든다。그때에 나는 그만 失望하엿다。同時에 나는 다시 돌아갈 覺悟를하엿다。그리고 病室로돌아와서는 집에도 即時 돌아간다고하고 편지하고 잇엇다。그렇게 기다린지 四日後이엇다。移民官이 나를 부른다。그때에 나는 이제 送還宣告를 받는다하고 갓다。調査를 當한지 두어 時間後이엇다。移民官이 와서 코리안 너는 上陸하게 되엇으니 나가라고한다。그때에 나는 반드시 조아야 할것이지만 돌이어 내맘은 沈着하여지면서 조곰도 氣分이 좋지못하엿다。

天使島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상항에 上陸할때에 나는 昨年에 쪼끼어가는길에 그埠頭에서 나를 餞送하기 爲하야 나온 白一奎 梁柱殷두분先生님을 對할때에 갑작이 쏘다지는 눈물을 抑制로 참든일이 記憶되엇다。그 記憶은 나를 또한번 울렷다。

## (二) 애니 카인드 오라잇

내가 오면서 當한일中에 第一 갓갑한일은 飲食種類를 모르는것이엇다。이렇게 당당한 일을 當할줄을 미리 斟酌하고서 本國서 떠날때 어떤 宣敎師에게 特別히 請하여 洋食品目錄을 써가진것이 잇엇는데 나의 不注意로 그것을 그만 미리부친 가방속에 넣어 앞에 보내어 버렷다。그리고보니 무엇을 먹기는 먹어야 하겟는데 무엇을 달라고하여 먹어야할지 알수가 없엇다 。더군다나 또 뻐스를 타고온까닭에 하로세번식 꼭꼭 飲食店에 停車를하고 먹으라고한다。그리고 보니까 다른 乘客들은 모다 食堂에 들어가 먹는데 나혼자만이 먹지 않을수도 없고 또 배도 고푸고하여 何如間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食堂에 들어갓다。가니까 食品目쓴것을(메뉴)주는데 당초에 무엇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얼마동안 들고 보면서 앉엇다가 옆에 서서 기다리는 下女(웨이트레스)보기에 하도 未安

해서 들고보든 멘뉴를 턱 터퍼놓고서「애니 카인드 오라잇」하엿다。 여러가지되는 食品中에「애니 카인드 오라잇」하니 下女인들 알수가 없는일이다。하도 긔가 막히는지 보얀 눈만 멀뚱멀뚱하고서 한참섯드니 그래도 어느것을 지정해주어야 하지않느냐고하면서 飮食種類를 넙다 외운다。쓴것을 보아서 모르는 내가 生後 들어보지못한말로 넙다 랑독을 하는 그말을 알아들을리가 萬無하다。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던지 먹고 살도록 내셧는지라 故로 어떤때는 굶기도하고 어떤때는 물만 마시고 어떤때는 국만먹어가면서라도 죽지않고 여긔까지 살아왓다。어찌 하나님의 恩惠를 感謝치 않으리오。

# 땀 나 든 香 장 사

自 疆

## 사라진繁榮期

米國留學의 黃金期도 이제는 지나간 先輩學友들의 追想의 동산에서만 찾일수잇는 한토막 幻想이나 아닐지도 모르겟다。

지나간 過去를 들추어냄이 뜻한바가 아니엇만 구름밭에 헤매는 조각달빛이 떠도는 落葉과 같이 외로운 나그네의 門窓을 찾어드는 近日에는 웬일인지 흐터진 긔억의 실마리를 타고 지나간 繁榮期의 봄날들이 각금 생각된다 。

人世의 변천과 轉變이 無常하니 우리生活엔들 도시 盛衰와 進退가 없을소냐마는 우리 運命의 屈曲이 남달은바 잇음에 각금 눈물을 적시게된다。그렇다 四年전만해도 우리 三百學友의 生活이 그리 호화롭지는 못하엿을망정 오늘과 같이 飢餓線上에 헤매여 香장사나 해먹든 八字는 아니엇다。아서라 사라진 過去를 추억하는 어리석은者가 되어서야 하느냐── 문제를 도리켜 우리들의 生活의 代表的인 香장사──哲學博士로부터 新渡生의 손에까지 들려주는「인쎈스」장사의 녁두리 누구나 적기를 주저하니 내가 몇줄 역거보자。

## 西部戰線의異狀

經濟恐慌의 一陣狂風이「뉴욕」「월스트릩」에 始作된지 未久에 西部전선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싸와나아가는 조선의 새 젊은 勇士들의 生後線上에까지 때아닌 威脅과 失望의 暗雲을 던저주고 사라젓다。그 여덕이냐！우리는 이 괴롭운 굴욕의 盞을 받으면서도 反抗은커녕 오히려 고개는 숙이고 달게 받어야할 어린 羊이 아니면 白旗를 둘러매고 退却을 해야될 殘忍한 運命 그것이엇다。그러나 우리는 이 一時的 현상과 敗北에서 새로운 싸움을 위하는 찬란한 明日의 壯圖와 弘志가 잇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잇다는것을 여긔에 말해 두자。

## 放學과代行案

五月下旬 녀름 放學을 하고나니 糊口의 문제가 닥처왓다。생각하면 米國天地에 돈이마른것도 아니나 웬일인지 우리와 같이 放學期를 利用해 막버리 터로 떠도는이들의 就職이란 퍽은 어려웟다。그나 그뿐이냐──移民局官吏의 날카라운 注目과 警告가 떠나는 날이없고 게다가 人種差別까지 甚하여 相當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夢想이라고해도 過言이 아니엿다고하면 賢明한 독자들은 응당 推測하고 남음이 잇으리라。

何如間 就職을 斷念하고 이리저리 궁리해본 結果 京城府의 代行案하나를 생각해낸것이 即 行商軍인 香장사──南道말로 부상으로서 立身揚名해보자는 것이엇다。

勞働神聖을 부르짖는 이나라 사람들도 이 行商인「페들러」짭(職業)만은 천하기로 第一位요 눈 밖에난 營業임도 우리는 잘안다 그러나 어이하느냐 우리의 재써가 여긔에잇고 또한 時不利兮하니 이노릇인들 辭絕을 일삼을바야 되엇드냐？

## 福香의威大한權力

香의 字까지는 모르나 雅號는 英語로「럭

키인센스」요 만드는곧은 시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서 製造된 所謂『福香』이라는 正方形의 香片이라。

福香! 이 福香이라는 바람에 無識한 黑人친구와 白人량반들도 一種의 古典的 神秘的迷信과 神佑를 바라고 돈푼이나 잇는작자들은 너나하고 한두匣式 사기를 주저치안는다 매는 이란친구들이 없엇든들 우리 같이 해매는 축들은 배를 사뭇 골아야할 運命이엇거니할때 그야말로 무삼 奇緣이나 잇는상 싶어 캄캄한 어룰에 눈만이 반짝이는 검둥이들이 퍽은 多情하게까지 생각될때도 한두번이 아니다。

몇 떠슨의 香을 손가방에 넌후 오후도 느즉해서 無識한 黑人들의 殿堂이요 서울인 할림으로 찾어들면 참으로 우리나라 父兄들은 상상도 못할 別有天地에 소요하게된다。

그렇다고 무삼 琪花瑤草나 瓊宮耀臺가 잇다는것이 아니다 數十層의 巨昌한「애파ー트멘트」에 살림하며 가진 文化生活을 白人에게 지지않게 한다는것도 能히 우리가 推想할바가 되지마는 禁酒國의 미국땅에서도 술집이 많기로 有名한 酒利의 大本山이요 平壤妓生으로 因해 色港으로 이름을 八道에 날리듯이 이땅에는 갈보가 많기로 둘재가라면 등장들 곧이다。얼투라모던껄들의 내젓는 궁둥이 바람 가장 尖端을것는 에로와 그로들의 密會處인 나잇클럽 및 땐스홀의 유혹과 매력 그리고 四時장철 흘으는 째스음악의 황홀味와 頹廢의 노래가락——어느것이나 이땅인 할림이 아니고는 求하기 어려운 生活일것이다。

## 굴 욕 의 盞

녀름의 行商은 굴욕이요 受難生活의 代表的일것이다。洋服 웃저고리까지 적시고 남는 비지땀——피로와 倦怠에 시달린 느러진몸——그리구 마음바다에 찾어드는 懊惱의 쓴盞 어느것 하나가 慰安과 靜謐의 씨와 쏘스가 되는것이야 잇느냐——무론 人生生活全體가 困難이요 苦悶의 象徵이라고 하리라마는 世界的 黃金都城 뉴욕에 헤매는 數十의 조선 젊은이의 十字架는 진실로 남달은바가 잇다

찌는듯한 녀름해 銅鐵이라도 녹여냅듯한 暴炎밑에서 땀사발을 흘려가며 門前乞客같은 心情으로 招人鍾을 누르고서서 어느 程度의 溫情的 態度와 寬待를 바라는 그 야릇한 心懷——생각하면 여긔에 넘는 쓰림이 몇이나 되냐!

많은 白人들은 우리 黃人種을 對하기조차 싫어하니 斷念해버리고 그나마도 우리를 동정하고 人格的 대우 (다그런것도아니지만)를 해주는 黑人친구들의 住宅을 헤매는것이 常例의 販賣政策이엇다。하도 많은 學生들과 職業的 香장사들이 해먹는 땅이라 흔이는 한차례식 다녀간곧이 그나마도 많이만나게 된다。하여간 따르릉 鍾을 울리고 下回만을 안타까웁게 고대하고 섯노라면 흔이는 門도 열어보지 않고 누구냐고 빽빽소리를 질러보고 도라서는 흑인마님들의 멸시와 랭대도 착실한바가 잇지요 그나 그뿐입니까—— 무엇이 그리 業務가 분주하신지「빠더」하지말라고 준엄하게 나리는 一場 說諭와 敎誨까지 달게 받어야하는 身勢—— 생각하면 긔막히는 現實임에 틀림도 없지마는 그역 螢雪의 功을 쌓는 오늘에 잇어서 이만한 艱難일들 어렵다고만하랴——하고 꾹꾹 눌러버립니다。

## 단골손님의面影

그러나 우리香장사에게도 각금 달콤한 艷福과 不祟의 黃金夢을 꿈꾸게 되는때도 말하며는 도시 없는것도 아니다。따뜻한 젊은 아낙네들의 親切한 厚意와 寬待를 받어가며 손쉽게 몇弗어치 팔어넘기는때도 잇으려니와 黑人種 傍系라고나할까 하여간 白人型이면서도 東洋美人의 타입을 가진 數많은 젊은 염집부인네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을뿐아니라 다정한 수작을 부처가며 物件을 팔고 돌아설때는 行商人으로의 一萬쓰림도 봄날에 눈녹는 한조각 눈송이요 새로운 勇氣와 慰安도 없지가 않다는것이 眞實한 告白일것이리라

그나 그뿐이냐 우리 顧客들을 헨다고하면 그야말로 不可勝數다。美容院 젊은 處女들을 비롯하여 酒肆靑樓에 떠도는 娘子軍들도 빼여놓수없는 顧客이요 內外酒店에 헤매는 數많은 갈보랄가 하여간 賣笑婦들도 우리 商路에 잇엇으니 輕視못할 貴賓들이엇다。이밖에도 이福香의 消費者들을 말한다면 옳지 幸運을 바라고 주머니를 털어바치는 數많은 失職 群과 投機家들도 (二九頁에繼續)

## ═北米土人═

# 인디안種研究

라올라大學 南 宮 卓

## (1) 인 디 안 種

### (1) 上古時代 北米住民

近代 一般 人類學者나 地質學者들의 研究發表에 依하면 採堀된 頭蓋骨 調査測定으로 英國이나 獨逸 짜바 等地에 居住하엿든 住民의 時代는 氷河時代로 말하엿으나 北米大陸에 居住하엿든 上古住民의 時代는 確實히 指定치 않엇다。그렇나 北米 上古時代의 住民들도 亦是 가장 오랜起原을 가젓다는것은 누구나 말할수 잇을줄 앎다。 一八六六年에 캘리또니아州 (California) 캘라애라스郡 (Calaveras Country)에서 鑛夫의 손으로 發堀된 人類頭蓋骨은 上古人의것으로 測定되엇으며 또는 뗄레워아 오하요 미네소다 等地로 漂流하든 住人들이 使用하든 여러가지 石製器具를 近者에 發見하야 研究調査한 結果로써 氷河時代에 北米에도 往居人이 잇엇으리라고 하는 것을 推定하게 되엇다。이보다도 더 理由에 適合되는 事實은 一九〇二年에 캔사스 랜싱에서 發堀된 랜싱頭蓋骨 (Lansing Skull) 로도 證明할수 잇다고 한다。이 랜싱頭蓋骨에 對한 調査研究에 두가지 理論이 잇나니 第一理論은 이 랜싱頭蓋骨은 氷河時代의 人類頭蓋骨로 推定할수 잇으며 石屑로 묻히어 잇든것이 溶解되는 氷積에 밀리어 미소리江邊에 와서 묻히게 된것이라고하며 第二理論은 氷河時代 훨신 後期의 頭蓋骨이며 미소리江流의 泥滓로묻히엇든것이라고도 한다。아즉까지는 一般으로 이 第二論究를 認證하여 왓으나 어느 時代를 잘러서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랜싱頭蓋骨은 적어도 三千餘年에 가까운 頭蓋骨인 同時에 北米土人 인디안種의 頭蓋骨이라고는 하나 北米大陸에 잇어서 가장 第一오랜 住居土人의것은 아니라고 한다。以外에도 北米大陸 어느곧에서나 찾어볼수잇든 마운드 뻴더스 (Mound Builders)와 클리쯔 뜨웰러스 (Cliff Dwellers) 같은 住人이 잇엇으나 마운드•뻴더스種族의 支派는 찾어볼수 없으며 이 두種族도 亦是 인디안種으로 알게되엇다 클리쯔 뜨웰러—스는 今日에 와서 古代 墨西哥土種 퍼브로 인디안 (Pueblo Indian) 으로 알게되엇고 北米大陸에 잇어서 가장 높은 程度의 文化를 갖엇든 種族의 一支派로 알게되엇다。

### (2) 인디안種의起源

이 인디안種 起源에 關하야는 人類學上 證明하야 發表할수 없을 만치 問題되는것이다 一般으로 믿을수 잇을만한 한가지 理論은 亞細亞 東北地帶와 北米大陸의 西北地帶가 地質學上 同一한 連續된 地帶라고하며 또는 世界文化史上 같은 文化의 淵源을 가젓든 地帶라고도 한다。그러나 이點에 잇어서도 亞細亞人이 北米大陸으로붙어 亞細亞로 轉住ᄒ게되엇는지 北米人이 亞細亞로 붙어 北米大陸으로 건너왓는지 根據를 세워 研究해볼수가 없을만치 疑心을 주는것이다。다만 希臘傳說學者들의 傳說的 인디안種의 起源說을 보면 이러하다。約二萬餘年前에 歐羅巴와 亞細亞 東北地帶에 居住하던 白人種이 亞細亞大陸의 黃人種勢力에 견델수 없어서 亞米利加大陸西北地帶로 移民이 되엿고 流民當時에는 兩大陸이 서로 連接되엿엇으므로 아메리카大陸에는 純白人種이 漸次로 넓히 퍼지게 되엇다고 한다。그렇나 그後로도 黃人種의 繁榮勢力은 아메리카大陸까지 뻗히게되야 大陸의 白人種을 殘滅식히기 始作한後 數千年後에 이르러서는 白人種의 자최가 없어지게 되엇다한다。地質學者들의 學說과 같이 마츰 이때 北米大陸 西北과 亞細亞大陸 東北地帶가 連接되엇든 Alaska 와 Dezhneu가 地殼變動으로 相裂되게 되므로 아메리카大陸으로 征伐

을왓든 黃人種들은 亞細亞大陸으로 도라가지 못하고 北米大陸의 居住土人이 되고말엇다고 한다。이것은 다만 傳說的學說이니까 參考할 餘地가 없겟지만 인디안種과 黃人種사이의 一般的 特徵은 類似한 點이 많다。그렇면 今日의 東洋의 黃人種과 同一한 文化地帶에 居住하엿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수 잇을까? 인디안種의 起源時代를 알수없음과 같이 어느 人種의 支派로 存在한 人種인지 알수도 없다。그렇면 인디안種의 起源은 結局 未來硏究學者들의 硏究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본다。

### (3) 인디안種族의 分類

이 인디안種의 一般的 特徵은 同一性을 가젓으나 그 部落과 閥族을 따라서 顯著한 區別이 잇다。가장 쉬웁게 區別할수 잇는 點은 特異한 文化 生理的 特徵 固有한 言語等이다。그리하야 特殊한 言語가 部落 或은 種族分類의 基本標準이 된다。北米合衆國 人類學部에서 墨西哥以北으로 標準하고 五十九種族으로 分類하여 놓앗나니 그 重要한 種族은 大槪 아래와 같다。

A 앨곤퀴안族 (Algonquian Family)

이 族屬은 허드손灣으로붙어 英領카나다와 英領 컬럼비아에 居住하엿고 北米合衆國地帶에 잇어서는 뉴잉글랜드, 뉴쩌시, 떌리워아, 펜실바니아 東部, 매리랜드, 왜지니아大部分 오하요全幅及 미시시피河上流近地에 住居하엿엇나니 그閥族의 大槪를 말하면 이러하다。

| | |
|---|---|
| 앨곤킨스 | Algonkins |
| 피큐읕스 | Pequots |
| 매래갠셑스 | Marragansetts |
| 모히갠스 | Mohegans |
| 표훠탠스 | Powhatans |
| 팸리코스 | Pamlicos |
| 떌라웨어스 | Delawares |
| 숸늬스 | Shawnees |
| 미아미스 | Miamis |
| 킥캐푸스 | Kickapoos |
| 일리노이스 | Illinois |
| 뽁스 | Fox |
| 치—네스 | Cheyennes |
| 애라패호—스 | Arapahoes |

B 이로퀴안族 (Iroquoian Family)

이 族屬의 勢權部落 大部分은 뉴욕과 펜실빠니아西部에 住居하엿고 그外에도 에리及 언태리오湖水와 멀리 퀘벡 쎄인트러렌스等地에 住居하엿으며 歷史上 顯著히 나타난 族屬은 아래와같다。

| | |
|---|---|
| 모학스 | Mohawks |
| 원이다스 | Oneidas |
| 쎄네카스 | Senecas |
| 어노대가스 | Onodagas |
| 케이유가스 | Cayugas |
| 위안듵스 | Wyandots |
| 허론스 | Hurons |

C 머슼호진族 (Muskhogean Family)

머슼호진族은 쪼지아州 大部分과 뜰로리다, 앨라바마, 미시시피 上流地帶及 컴버랜드西部等地에 住居하엿으며 主要族屬은 다음과 같다。

| | |
|---|---|
| 크릨스 | Creeks |
| 촤토스 | Choctaws |
| 쎄미놀스 | Seminoles |
| 앨라바마스 | Alabamas |
| 애팰라치스 | Apalachis |

D 씨요앤族 (Siouan Family)

主要族屬은 미소리谷과 미시시피上部 西便에 住居하엿고 一部族屬은 캐로라인나西部에 住居하엿으며 主要族屬은 다음과 같다。

| | |
|---|---|
| 대코타스 | Dakotas |
| 오마하스 | Omahas |
| 크러우스 | Crows |
| 아요와스 | Iowas |
| 오세이지•인디안스 | Osage Indians |

E 캐도안族 (Caddoan Eamily)

이 族屬은 미시시피入口, 루이지아나 大部分 텍사스東半部, 아캔사스南部에 住居하엿으며 歷史上 나타난族屬은 이러하다。

| | |
|---|---|
| 캐도스 | Caddos |
| 퍼니—스 | Pawnees |
| 위치태스 | Wichitas |

F 쇼쉬니안族 (Shoshnean Family)

이 쇼쉬니안族은 텍사스西部 뉴멕시코, 콜로래도, 北아리소나, 네배다, 유타, 아이다호,

오리곤等地와 와요밍, 몬타나一部에 住居하엿으며 쇼쉬니一스, 킴맨취치스, 페이유스 等이 第一 主要族屬이엇다。

G 쇄핲티안族 (Shahaptian Family)

이 種屬은 워싱톤南部에 居住하엿고 가장 主要族屬은 다음과 같다。

| | |
|---|---|
| 니쓰•퍼一스 | Nez Perce |
| 우매티략스 | Umatillas |
| 월라•월라스 | Walla Wallas |

H 쌜리산族 (Salishan Family)

이 쌜리산族은 워싱톤北部와 뿌리티쉬, 컬럼비아에 居住하엿고 스폭캐니스族이 第一 主要族屬이엇다。

I 애뗘패스칸族 (Athapascan Family)

뿌리티쉬, 컬럼비아로붙어 알라스카까지와 大西洋北岸에 住居하엿고 其外에 캘리또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一部에도 住居하엿으며 애패취스 (Apaches)와 내빼쪼스 (Navajos)等族屬이 잇다。

J 에스키모앤族 (Eskimouan F.)

이 族屬은 大概 北極地帶와 그린랜드, 래브래도等地에 住居하엿다。

이와 같이 인디안種을 詳細히 分類키에는 無限한 複雜을 느끼게 된다。이외에도 三十餘族은 太平洋岸에 住居하엿다 한다。그때時代의 인디안種은 遠近을 不顧하고 自己네들의 食糧을 위한 사냥을 目的삼고 東西南北으로 彷徨漂流하엿든것도 事實일것이다。一部族屬을 際한外에는 農業은 그들에게잇어서 오히려 副業이엇고 고기잡기와 사냥질이 그들의 本業이엇으니만치 그들의 宗敎 思想 文化程度를 標準삼고 分類키는 不能한 일이다。다만 以上에 人類學部에서 分類한 族屬別만을 紹介할뿐이다。

## (2) 인디안種族의文化發達

北米 인디안種族의 一般的文化發達을 말하랴면 新石器時代以後의 쀼지안(Fuegian)과 마야(Maya)의 文化를 비롯하야 찾을수밖에 없다 쀼지안은 政治的 倫理的 娛樂的 各方面으로 發達되엇나니 知的으로 말하면 書字使用이 잇엇고 藝術的으로는 詩 詩調와 歌舞까지도 가졋엇다。마야는 中央아메리카에 잇어서 높은程度의 文化를 가졋고 西紀元前三千年붙어 멀리 埃及으로붙어 文物制度를 輸入하야 빛나는 文化를 建設하엿다고 한다。이點에 잇어서 우리는 그當時의 水陸交通을 疑心아니할수없으나 考古學者들의 發表에 依하면 마야의文化는 틀림없이 埃及의 文化를 본받어 建設할것이라고 한다。紀元前四百年의 마야의書籍을 發見함을 基本삼아 그들은 證明한다。또는 建築制度와 모든 貿易方面에도 相當한 發達이 잇엇다고 한다。

인디안種族의 上古文化發達을 말하기爲하야 區別을 지을必要가 잇다고 본다。

### (1) 物質的發達

上古時代 인디안에게는 農業發達이 없엇으므로 뚫아 넉넉한 食糧이 없엇다。다만 밤과 낮으로 그들의 本業은 고기잡이와 들새山짐승잡이 이엇다。

衣服制度같은것은 말할餘地가 없이 그들의 原始的 裸體生活이엇다。그렇나 그들은 漸次로 石鐵磨擦로 불(火)을 發明하여 每日 잡아들이는 山짐승 들새를 익히어 먹을줄을 알게 되엇다。家屋制度를 말하자면 바위굴이 아니면 絕壁生活 樹木이아니면 土窟 或은 巢屋이엇으나 漸次 家屋制度로 發達되엇으니 모든 장기와 道具는 貝殼이나 或은 뼈 돌로 만들어 使用키 始作하엿다。그時代에 잇어서 最大流行武器로 쓰는 弓矢나 投槍은 大概 뼈로 만든것이엇다。이와 같이 上古時代 인디안種族의 生活은 發達되지 못한 程度의 生活이엇지만 그들에게도 物質的 發達은 잇어 마야文化와 같은 建設을 보게된것이다。

### (2) 經濟的發達

物質的 發達을 뚫아 經濟的으로도 發達은 잇엇나니 그들은 金錢의 必要를 깨닷고 貝殼으로 만들어 使用하엿다。그렇나 그들의貿易商과 같은 商業은 오측 物物交換에 不過하엿으며 모든 商業에는 一定한 規法이 없엇다。그렇나 次々 經濟的 意識이 發達됨을 뚫아 私有財產物을 알게되엇다。 이때만하여도 그들에게는 共產制가 없엇고 이時代를지나 一家族을 單位로한 私有制度의 發達을 보게되엇으며 所有한 土地에서 生產되는 諸般生產

物과 그土地는 어느酋長이나 어느種族에게 附屬되지않고 每家族에 附尿屬케되엇다고한다。

### (3) 政治的發達

이 인디안種族의 政治的組織은 專制政治 貴族政治 或은 民主政體로 組織되어엇다。인디안은 種族別로 살엇고 種族은 다시 閥族別로 區分되엇다。閥族은 親近의 單位로 區別되엇고 各閥族은 二種의 指導領袖를 갖엇으니 酋長과 頭取이엇다。

A 酋長 (Sachem)

이 酋長의 公務는 平和條約處決 裁判 上古風俗 習慣 規禮를 管理 處決하는것이엇다 酋長은 各閥族 各員들의 承諾으로 選擧 或은 免職되엇으며 職座는 永久한것이엇다。男女를 勿論하고 長年者이며 누구나 投票選擧할 權利를 가컷엇다。各閥族은 한酋長式을 두엇으나 酋長의 員數는 制限되여 잇엇다。

B 頭取 (Chief)

이 頭取는 軍事上目的을 爲하야 或은 特殊한 境遇의 特別한 活動을爲하야 選定하는것이엇으며 職座는 永久치 않엇다。이 頭取의 員數는 各閥族의 員數를 딿아서 變하엿으나 大槪는 每五十名에 一人의 頭取를 두엇으니 上古 인디안社會에 잇어서는 그 人數 比例가 높다고 생각된다。이 頭取도 亦是 各閥族들이 投票撰定하엿으며 萬一에 頭取로서 職務實行이 不實한때에는 免職을 식히는것이 常例이엇다。酋長은 閥族들의 血族關係를 代表하엿지만은 이 頭取들은 各自의 武勇을 代表하엇다。어떤種族中에는 그種族을 管轄할 可能을 所有한 最高酋長이 잇엇으니 이는 酋長中에서 選擧한 一酋長이엇다。그리하야 이 最高酋長의 公務는 種族會議에서 種族別을 限定시기는것이엇다。그렇나 이 頭取는 오즉 軍事上 特別境遇를 爲한 各閥族의 領袖뿐이엇다。

C 會議

(一) 閥族會議 이 閥族會議議員들은 各閥族들의 長年男女들이엇으며 酋長 頭取를 選擧 或은 免職시기는 公務를 履行하엇으며 殺人者 處罰制 新入議員의 入會接受等 一切 事務를 掌理하엿다。이것을보면 民主政體의 政治發達을 알게된다。

(二) 種族會議 이種族會議의議員은 種族內에 잇는酋長과 頭取들이엇으며 그 權限範圍는 種族 全體의 間 또는 다른種族과의 關係事件을 議決하는것이엿다。種族會議는 男女를 勿論하고 누구나 自由로 出席하야 演說及 其他 諸般것을 參見할수 잇엇으나 그處決及投票하는 일에는 아모 權利가 없엇다。

### (4) 娛樂的發達

인디안 種의 가컷든 여러가지 娛樂은 그들의 本能 그대로의 娛樂이엇다。그들의 石戰運動은 오늘에 잇어서는 뚤뽈이나 삐스뽈運動에 近似한것이엇으며 어떤때는 날을 擇하여 가지고 활쏘기와 投槍競技로서 大運動會를 열엇으나 이러한 運動에는 經費關係上 富한者가 多數히 參加하엿엇다。或은 歌舞大會를 열고 그들의 天然的娛樂生活을 보엿으나 그들에게는 賭賻群은 少數엿다。

### (5) 美術的發達

美術的 發達에 잇어서는 그다지 世界文化에 貢獻시길만한 傑作은 없엇을지라도 建築制度의 發達과 書畵의發達은 參考할만한것이엇다。그들에게도 詩調 詩가 잇엇지만 大端히 底能한 程度이엇으며 오늘날에 우리가 가락지를 끼듯이 그들은 팔에다 그림으로서 裝飾을 하엿다고 한다。

### (6) 知的發達

인디안種의 使用하든 言語는 五六千種에 不過하엿고 다만 三千餘語의 意味다른 單語를 가컷을 뿐이엇으며 따라서 一定한 辭典이나 字典이 없엇다。物理化學을 利用못하고 機械使用을 利用못한 그들이라도 商工業方面에는 그들의 本能的으로 가진 知力은 非常히 놀랠만하엿고 規法이 一定치못한 物物交換의 貿易業이라도 發達되엇다고 한다。

### 7 倫理及宗敎的發達

「倫理」 인디안種은 倫理的으로 어느다른人種에 比하야 떠러진바 없엇나니 夫妻와 父子間 朋友와 長幼間에는 반드시 嚴節한 禮儀가 잇엇으며 起居坐立에 모든 禮節은 높은 敎化를 가젓든 人種에게라도 뒤지지 않엇다。婚姻制度에 잇어서는 同一한 民族間의 婚姻은 嚴禁되엇엇으며 萬一 結婚하는者가잇으면 그는 死로써 罪罰을 받게되엇다。또殺人者가 잇을때에는 殺人者는 반드시 死를 주엇으며 或은 多額의 金錢賠償을 받는 嚴格한 法的 倫理標準이 서잇엇다。또 그들의 生活은 一般으로 正直한 生活이엇다。他人의 所有財產이나 所持物을 盜窃하는일이 적엇으므로 民事 刑事間 裁判訴訟이 적엇다。이로보면 上古인디안社會의 倫理는 가장 發達되엇다고 볼수잇다。

「宗敎」 인디안들도 自己네가사는 人間生活을 支配하는 宇宙的 偉大한 神이 잇으믈 推想하고 崇拜하는 儀式과 法禮는 달럿을지언정 神으로 믿고 崇拜하엿다。그렇나 그들은 祈禱를 다만 恐怖心으로 하엿기 때문에 度數가 적엇다。그들은 自己의 靈魂을 認識하엿고 딸아서 어떤種族은 死後에는 반드시 幸福스러운 사냥場 (Happy Hunting Ground) 으로 갈것과 來生이 잇을것을 믿엇다。一般으로 그들이 믿든 所謂 宗敎는 그레잍•스피맅 (Great Spirit) 이엇으나 日月 山川과같은 自然物을 崇拜하는 迷信的 生活이 그들을 支配하엿다고 할수잇다。어떤때는 巡禮宣敎者가 잇어 相互扶助의 慈善事業團體같은 組織도 잇엇다고 한다。

## (3) 인디안과白人種과의關係

簡單히 말하자면 인디안種 全體는 白人種이 一四九二年 北米大陸을 發見한 後로불어 漸次로 衰亡의 傾向을 걸엇나니 다시 重言을 要치 않을것이다。白人들은 自己네들의 優越한 地位感으로서 인디안과 關係를 맺은後로불어 敎育 衛生 風俗 習慣 改善事業에 盡力하야 自己들에게 感恩을 돌닐만치 善導한것으로 자랑 한다。그러나 인디안에게 잇어서는 滅種의 始初를 걷게된것이다。 北米合衆國政府는 所謂 인디안種을 保護한다는 口實下에 限定된 領域을 가지도록 區域을 備置하야 그들에게는 人種的으로 더 發達될 餘裕가 없이 衰殘의 길을 밟게되엇다。그렇나 아즉까지도 그들은 山中으로 작고작고 쫓겨 들어가면서도 인디안獨立國을 建設하고 살겟다고 極力 主張하는것을 보면 그들의 天禀的 自由를 잃지 않으려는 自由思想과 그 理想을 볼수잇는것이다。資本主義가 極度로 發達되고 弱肉强食으로 眞理를 삼어 生存競爭의 覇權을 다투는 오늘에 잇어서 인디안種의 未來를 누가 믿으랴? 一千五百年頃에는 北아메리카에만 五百萬이든것이 一九一一年에는 人口가 겨우三十二萬二千七百十五人이엇고 그後에는 敎化되엇다는 五種族을 合하야 겨우 十萬一千二百八十七人이엇다。敎化를 잘 받엇다는 五種族은 체로키—스 (Cherokees) 촤터스 (Choctaws) 칰카서스 (Chickasaws) 크맄스 (Creeks) 쎄미놀스 (Seminols)等이다。

一九一一年에 北米合衆國政府의 인디안을爲한 經費는 10,452,911$ 이엇고 一九二九年에 인디안을爲한 所謂敎育費는 겨우 9,381,232$ 이엇다。

멕시코近地即 中央아메리카에 埃及文化를 建設하엿든 인디안種族도 亦是 西班牙人 渡來當時로불어 오늘까지에 이르는동안 가진 虐待와 人種的 殘滅을 當하엿다。그렇나 오늘에와서는 멕시코와같은政府의 法律로 인디안에게도 自由로운 生活을 하도록 許諾되엇나니 例를들면 敎育方面에잇어서 그들도 自己種族의 言語를 敎授하는것과 같은것이다。

如何든 인디안과 白人種과의 關係는 人種的 權力과 優越感問題이니만콤 未來의 인디안種의 人種的 發展이라고하는 點에 잇어서 누구나 疑訝心을 가지지않을수 없을줄로안다。

1932, 10, 10

# 美術과朝鮮女子衣裳及化粧의槪念

加洲大學　金　蘭　兮

梨專文科를 畢了하고 現在 羅城 加洲大學 美術科에 在學中인 金孃은 明日의 朝鮮藝術界를 爲한 貢獻과 努力이 잇을것을 우리는 믿는다。 —編 者—

醜한것을 싫어하고 美를 가장 사랑하는것은 우리의 숨길수 없는 本能이다。더구나 우리 女性에게 이 點에 對한 反應이 더 銳敏하다고 본다 틈틈이 化粧하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닙는것은 우리가 작구 하고싶어하는바이오 決코 習慣에 굳은 無意識的 動作에서 나오는것이 안이다。

나는 以下에 쓴 몇 條目을 들어서 어떠케하여야 좀더 理想的으로 우리의 가진 自然的美를 더 表現해볼가 함이다。

## (一) 衣裳의曲線과姿勢

아름답고 잘 아울리는 衣裳을 撰擇하는것은 女子의 要求하는 美術的 才能이다。

우리의 옷 制度는 其曲線이 너무單純하고 또 一定하여 衣裳을 撰擇하는데 各個性의 趣味를 發揮할 길이 좁다。그러나 單純하니만콤 大體로 보아서 우리 姿勢에 잘 아울린다。各個人 體形의 大小를 따라 옷을 만드는것 같이 其姿勢에 對하여 맞도록 注意하여야 할것이다。

키가 크고 肥大한이는 저고리기장을 길게하며 치마를 좀 짧이하되 두가지 빛 (자주저고리에 검정치마) 이나 或은 同一한 色彩로하되 濃淡의 差異(黑,白,或남빛과 옥색)만 取할지며 치마幅의廣狹을 잘 調節하거나 넓게하며 줄음을 우로부터 단까지 크게 잡어 넓은 치마풍채를 縮少하게 보이도록 할것이다。

키 크고 몸 가는이는 긴저고리품을 좀넓게하며 異色이나 或 同色으로 濃淡의 差異되는 빛치마를 닙으되 폭을 넓게하고 줄음을 좁게잡어 視線이 橫으로 向하도록 注意할것이다。

키 짧고 肥大한이는 저고리 기장을 짧게하고 품을 몸에 꼭 맞게하며 치마길을 길게하고 폭을 넓게하되 줄음을 우으로 단까지 나려잡어서 視線을 上下로 向하게하며 저고리 빛과 同一한 色彩를 할것이다°

키 짧고 몸가는이는 저고리기장을 짧게하며 품을 너글너글하게하며 同一한 色彩로 치마풍치도넓게하며 몸이 적지않케 보이도록 힘쓸것이다。

## (二) 色彩及顏色과의關係

色彩야말노 우리가 實驗的으로 빛과 빛을 서로 對照하여보기前에는 其反射的 影響을 抽象的으로 其縱橫과 長廣의 質量을 批評하기어려운일이다。

一般的으로 보아 살결(Complexion)이 맑은 이에게는 부드러운빛이 잘맞는다 反對로 淡褐色인이에게는 濃厚한빛이 잘調和된다。살결흰이에게 適當한빛은 분홍 옥색 노랑 당홍 보라 검정빛들이다。注意할것은 白色衣를避할것이다 淡褐色顏에게는 濃厚한 자주 초록 黑褐色等이 맞는다。淡褐色옷을 안입도록 避할것이다。

輪廓 (Shape of face) 이아름다운이는 살결과 對照되는빛을 입어 容貌의아름다운 曲線의美에 強力을줄것이다。其와 反對로 輪廓이 곱지못한이는 特히注意하여 살결에調和가 잘되는 옷빛을取하여 얼골이 왼 몸에서 뛰어나지 않게 보이도록 힘쓸것이다 그럼으로 옷감을 끈기前에 몬저 옷감을 顏色에 對照하여보고 잘調和되는 빛으로 사는것이 智慧롭다

## (三) 組織物과 個性

組織物의 品質을 따라서 各個人의 性格을 表現할수 잇다。가령 몸이 간엷으고 性品이 溫和한 女性的 姿態를가진이가 굵고 악살스러운 베나 木棉 옷을 닙는다면 그몸이 옷에 눌려보이며 무겁고 不快한 感을 늣길것이며 其와 反對로 運動家의 體로 생긴 男子에게 부드럽고 하들을한 하부다이 옷을 닙힌다면 그것처럼 아울리지 않고우섭운것은 없을것이다。

前者는 女性답은 옷감으로 닙어야할것이오 後者는 男性다운 굵고도 튼튼한 組織物을 입어야할것이다。各個性을 따라 特有한 타입이 다잇다。어떤이는 貴婦人의 타입을가젓고 第二者는 藝術家의 타입이며 第三者는 職業婦人의 타입으로 보이며 第四者는 준수하고 점잔허보이며 第五者는 活潑하게생겻다。이모든 타입대로 組織物과 色彩를 愼重히 撰擇하여야 할것이다。快活

하게 생긴이는 가벼운 옷감으로 刺戟性을 가진 紅 黃等 色彩를 撰擇하되 其顏色에 調和되는 것으로 닙어야 할것이다。그럼으로 몬저 各個性의 타입과 性格을 잘알은후에 組織物을 撰擇할것이다。

制限이 一定한 우리옷으로는 속옷이 其中가장 美를 表現할수잇다。그것은 우리마음대로 便利하고 더 아름답게 할수잇는것이다。할수잇는대로는 몸에꼭맛도록 품을좁게하며 柔軟한 組織物로 부드러운빛(연분홍 옥색 연두 힌빛等)으로 함이 女子肉體美에 잘아울린다。

## (四)付屬品과 色彩의調和

衣裳이라하면 입는그것들만이 안이다。머리에 쓰는갓 발에신는신과 洋襪 목에둘느는 목도리 손에끼는 장갑 들고다니는 손주머니等모든것이다° 옷을 中心點으로 趣味를 加한것이다° 옷과 附屬品의 關係가 密接한것과 같이 그 貌樣組織及色彩를 對照하여 撰擇하여야 될것이다。가령 鮮明한 여름날에 힌모시옷을 닙는다면 힌신(힌가죽이나組織物)에 肉色洋襪과 옥색 손주머니에 힌장갑과 옥색洋傘을 받음이 힌빛과 옥색과 肉色이 서로다른빛으로여겨서 더 趣味잇어보일것이며 서늘한 快感을 느낄것이다

치운날 겨을에는 濃厚한 綠色이나 藍色두터운 옷에 黑色(黑色은 모든色素를 다吸收하엿기 때문에 아모빛과나 다調和가됨) 運動靴式制신에 灰色과 肉色中間色 양말과 黑色革制 손주머니에 同色장갑에 濃厚한자주빛과 노랑빛과 黑色으로 섞어짠 목도리로 色彩의强力을 더함이 趣味롭울것이다。

畵家가 아름답운 色彩를 엮거서 一幅의 肖像畵를 創作하는것과같이 우리의 닙는 옷과 가지는物件을 意味잇고 아름답게 調和된 色彩를 取함이 가장 愉快할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수잇는대로는 옷과 付屬品사이에 對照되는 色彩를 取하도록 注意하며 同一한 빛을 避할것이다。

그것은 美學上으로 보아서 아모趣味가 없는까닭이다。體小한이는 其比例의 模範대로 적고도 精密한 模樣으로 생긴손가방과 化粧品들을 가질것이오 큰이는 큰模樣의 付屬品을 가저야보기 좋을것이다。그럼으로 억개가 좁은이는 좁은목도리를 둘을것이다。

## (五) 化粧及結髮

女子의 貞操가 高潔하다면 그의하는 化粧도 그만한 보배로운 價値가 잇는것이다。그의化粧으로 發表하는 態度를 따라서 性格과 地位와 修養을 判斷할수잇다。貴婦人은 점잔케 學生은 快活하게 娼妓는 賤하게 各其品格대로 化粧한다。劇場의 出演하는 俳優의化粧은 專門的 研究科임으로 別問題에 두고 우리가 恒常하는 化粧에 對하여 생각해보련다。理想的 化粧은 自然美를 더 아름답게 保存하려함이 其本意다。몬저 우리의 肉體가 健康함이 自然味의基礎다。皮膚를潤澤하도록 保護하여야 할것이다。비누洗面을 避하고 (皮膚脂肪을 吸收함으로 살결을거칠게함) Cold Cream or Cleansing Cream 으로 얼골에 바른후 柔軟한 Cleansing tissue 조히로 다쓰신후에 Venishing Cream (脂肪이많은이는脂肪을 적게하는쿠림 적은이는 脂肪質을供給하는 크림) 을 발은後에 그顏色과 近似한빛粉과 調和되는 연두를 바를것이다。輪廓이둥근이는 연두칠을 길이로발너서 縱線으로色彩의 强力을주어 갤죽하게 보이도록注意하며 얼골이긴이는 연주를 뺨웃쪽으로넓고도짧게 발러橫線으로 强力을줄것이다。다른化粧을 다하고나서 맨나종에 lipstick (입술에발느는것)을 발으고나야 소시를다마친感을 느낀다。그것은 빨안 입술이 붉은두뺨의中心에잇어 色彩의 强力을주어 얼골의 趣味를 끄을기 때문이다。lipstick 이曲線(입술)밖으로발 지않도록 注意하여 明確한曲線이 나타나게 할것이다。

結髮이야말로 얼골의美를調節하는 特權이잇다고생각된다。結髮하는式을 보아 얼골모양을 變하게할수잇는것이다。顏形이길고 니마가 넓은이는 머리털로이마를가리우고 가름자를 한편으로 치우치게갈너 左右편으로 머리털을 부푸러틔거슬여 틀되 knot 를一字形으로 꼬지며 머리빛과 同一한色빗을 쓸것이다。

니마가 좁고얼골이 둥근이는 가름자를中心點에서 조곰치웃치게 갈느며 우으로 틔거슬녀 빗어 니마를넓게하며 머리털노 左右뺨을 질게나려 덥프며 knot 를 圓形으로늣게나려틀것이다。體形의 大小를 따라 knot 도적고크게 틀을것이다。적은姿態에 큰 knot 이 무겁게달린것처럼 不快하게 보이는것은없다。

斷髮이職業婦人에게는 便利한點이 잇으나 化粧法研究科에서 美學上으로 여러式으로 實驗해본나의 批判으로는 東洋女子에게 도모지아울리지안는다고 생각한다。공단결같은 머리도 優雅하게 結髮한것이 우리게 가장 곱게아울린다 꾸러쓰의 有名한彫刻 Venus of Milo 를보라 女性의美를 가장圓滿히 表現한 理想的模型이다 보면볼사록 끝임없는 우리듬이 흘은다。

一九三二年十月十五日 加洲大學一隅에서

# 「金活蘭氏博士論文寸殺」과 「朴仁德女史離婚에對한社會批評」을 읽고

미쉬간大學 極 星

筆者 金孃은 京城 梨專을 卒業하고 現在 미슈간大學 音樂科에서 피아노를 專攻하며 빛나는 조선 樂壇의 將來를 위해 새로운 修養과 準備를 蘊蓄中이다。——編者——

먼저 讀者들에게 이 글을 쓰는 동기는 筆者가 무슨 朴氏와 金氏와의 親交가 잇음으로 辯明하는것이 아니오 그 글을 읽는 瞬間에 이러나는 感情(同性이란)을 못니겨 붓을 들게 된것이다。고달픈 腦에 더구나 오래간만에 글을 쓰게되니 잘써질지는 모르겟다。讀者의 諒解를 빈다。

잠간 그들의 銳敏한 神經을 鎭定하고 過去 數百年間 朝鮮 女性의 暗黑場面을 回想하여보자 ——이 說明치 우니하여도 그동안 如何한 壓迫과 구속下에 얽매엇든 참혹한 幕을 드려다 볼수잇는 것이다。그러면 그러한 場面을 깨치고 첫번으로 勇敢히 떨처나온 女性들은 얼마나 偉大한가 男性들은 모르리라 그러나 우리 女性들로서는 그들을 仰慕하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다。萬一 女性社會를 一國家로 看做한다면 그들은 革命家요 冒險家들이다。나폴레온이나 레닌이나 무엇이 다를것인가 그러면 그들은 그만큼 싸우고 나오는道程에 얼마나한 苦境과 風波가 잇엇을것이다

이제 朝鮮社會여! 나는 뭇노라 웨 그대들은 온겨울 酷寒에 무치엇다가 새봄되여 겨우 살어날려는 朝鮮女性들을 악착히도 짓밟으려고 애쓰는가 나는 의심한다。過去에 얼마나 無數히 짓밟혓는가를 다만 그네로서의 勇氣가 없엇음이오 첫번 밟음에 너머 길것이매 社會에서 알 겨를도 없엇고 떠들 餘地도 없엇든 것이다。

멀리 앉어 듣건대 現在로는 女性中에 큰 問題거리 둘이 생긴모양이다。朴仁德女史! 조선 社會는 그를 익숙히 잘 안다。그의 過去歷史는 모든 雜誌에 競爭을하여가며 記載하엿다。그가 첫번 失敗하엿을때 (夫人잇는이에게 婚姻함) 社會는 얼마나 그를 비난하엿는가 또는 그의 態度는 어떠하엿는가 그는自愧함을 못이기엇든지 社會의 눈을 避하려함이엇든지 退隱하엿섯다。그러나 不得已 生活困難에 職業婦人으로 出戰하엿을때 다시 社會에서는 얼마나 떠들엇는가 그러나 朴女史自身으로는 甘受하여야할만한 境遇엿다。그는 그만큼 覺悟하고 나선것이다。自己의 過去를 後悔도하엿을것은 事實이다。그러나 그비난에 그는 墮落하지않엇다。얼골에 침을 배앗더라도 어떵한 비소를 받더라도 그는 다 甘受하엿다。그러나 그모든 비난을 받는 그 가삼이 얼마나 아펏고 쓰렷고 기막히엇을것은 讀者로서 推測할수 잇을것이다。그러나 그는 泰然하엿다。그리다가 그는 어떠한 抱負를 가지고 혹은 複雜한 腦를 쉬일겸 海外로 나선것이엇다。海外에서 그는 成功하엿다。그러나 故國을 向한 그는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졋을것이다。果然 故國땅을 밟기도전에 그에게 對한 惡評은 雨後竹筍의 勢이엇다。第一의 問題거리는 그의 離婚可否이다。나는 그 問題의 可否를 叅觀할 아모權利도 없고 또 하고싶지도 아니하다。그리고 그 問題는 亦是 그들

當事者끼리의 問題이니만큼 第三者는 아모간섭할必要가 없는것이다。도로혀 어리석게 생각된다。그의 將來事業成功與否는 우리는 亦아모 批評할 權利가 없는것이고 또한 先見者가 아니매 斷言할수도 없는것이다。그러나 過去에 많은 싸움을 싸운 그는 落心치 않고 奮鬪努力하야 成功할줄 안다。

朴女史와 反對의 背景을 가진 金活蘭氏！그는 잔잔한 물결속에 아모 風波없이 잘거러왓다。이제 그는 얼마쯤 成功이다。朝鮮이 나은 女性中에 첫成功人物이라고 보아도 過言이 아닐것이다。女性前途에 光明이 되고 朝鮮의 자랑거리인 그에게 끝없는 敬意를 나는 表하고싶다。

이쫘「批判」二月號를 通하야 그를 對한「博士寸殺」文은 極端的으로 그를 無視하엿다。나는 뭇고싶다。몇사람이나 조선社會에서 이글에 共鳴하는가를 나는「無言生」이 어떠한 人物인가를 疑心한다。朝鮮社會에 얼마나 貢獻이 잇으며 얼마나 偉大한 背景을 가진 人格者이며 따라서 他人의 論文을 批判할 價値가 잇는가 궁금하다。그렇다면 그는 世界에서 뛰어난 學者이오 評論家보다 더 훌륭하다고 본다。그러나 같은 民族이란 感情下에 自試反省하기를 忠告한다。나는「無言生」만이 아니오 조선의 多數가 그러한 態度를 가지고 잇다고보아진다。도모지 해석할수가 없다 웨 조선사람은 好評보다 惡評을 좋아하고 남의 幸福을 비는것보다 敗亡을 바라고 잇는가를 나는 그들의 反省을 忠告하고 싶다。

나의 見地로는「無言生」글 自身의 矛盾으로보아 그를 의심한다。曰「뿔新聞이나 또한 그 雜誌는 ………氏의 歡迎會가 열리어서 云云」하엿다。뿔側에서는 歡迎이오 푸로에서 비난이엇다。나는 퍽 이상하게 생각한다。웨 푸로側에서는 그를 歡迎하지 않엇는가를 그가 根本부터 뿔階級에서 生長하고 敎育을 받고 나서는 길이닛가 미리부터 그는 뿌르가 되리라고 생각한것일가? 그러나 사람의 將來를 뉘알니? 그가 將來의 뿌르의 鬪士가 될지 푸로의 鬪士가 될지를 만약 무섭게도 눌니엇고 弱한 朝鮮女性의 見地로보면 그中에서 惡戰苦鬪하야 自己네의 앞길을 헤치려고 애쓰는 그를 뿌르側보다 푸로側에서 몬저 歡迎하고 同情하여야할것이다。理由는 과부의 설음은 동무과부가 안다는 까닭이다。그리고 萬一 뿔側에서 어떻한 偏狹心을 떠나 朝鮮全體의 代表的 女性으로보아 歡迎을하엿다면 어떠하엿을가? 나는 푸로側에서 본 態度가 몹시 偏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의 論文 參考書類가(鮮文) 乏盡한것을 論評하엿다。 생각건대 參考의 핍진은 金氏의 失手가아니오 그만흔 材料를 供給할만한 朝鮮의 冊子가 없는것 같다。萬若 그렇다면 우리 社會로써 그만한 材料를 供給할만한 무엇이 없는것이 羞恥가 아닐가? 그런즉 材料 없는 그로써는 그論文을 쓰기 얼마나 困難하엿을것은 事實이다。그러면 도로혀 朝鮮社會로써는 그에게 未安한 態度를 가저야할것이 아닌가?

그의 結論에 들어가 누구나 米國의 博士를 할랴면 英語工夫만 잘하야 春香傳만 써도 훌륭한 博士가된다 하엿다。여긔에는 아모論評할 價値조차 없는것이다。그야말로 逆說이다。그러나 氏가 얼마나 外遊에 經驗이 잇는것을 알고싶다。없다면 한번 經驗할 必要가 잇는것을 忠告하고싶고 過去에 잇엇다면 그에게 降服한다。그는 天才일러이닛가!

朝鮮社會여 萬一 당신의 家庭에서 당신의 딸이나 아들이 어떠한 失敗를 하여 家門의 羞恥가되고 亡身을 한다면 그네들의 態度는 어떠할것인가? 당신의 딸의 실책을 新聞雜誌에 廣告하야 다시 出世도 못하게할것인가 不然이면 忠告하야 다시 再生하기를 바라는가? 反對로 萬一 당신의 子女中에 큰 成功을 하엿다면 어떠할것인가? 아마 온 家族은 기쁨에 넘처 큰 잔채를 베풀고 모든 친구와 기쁨에 뛰놀것이다。적은 例로 高等科만 마처도 온 집안이 기뻐한다。

朝鮮社會여 조선의 딸들을 앗기자! 당신의 딸들을 잘 인도 하여보자! 서로 짓밟지말고붓들어 이르키자!

(1932, 3. 어느날 미쉬간校庭에서)

# 米國醫學校制度와그內容

액지니아州立大學 崔 濟 昌

開城松高를 畢業하고 渡米한君은 只今 액지니아 州立大學에서 醫學을 研究하며 刀圭界에 새로운 貢獻을 爲해 只今붙어 남달은 研究가 잇다고 한다。 ——編 者——

世界大戰 以後 米洲에 잇어 醫學은 우리가 생각할수 없는 程度로 發展됨을 쫓아 本國서 醫學을 目的하고 渡米하는 學生이 年年이 增加됩니다。本國에서 醫學을 專攻하시는분 中에 米國 醫學校 制度와 그 內容을 알고저하시는 분이 게실듯하야 붓을 들어 간단히 紹介하려 합니다。米國 醫學校 制度는 本國이나 日本에 잇는 醫科大學制와 綜合大學醫學部制로 되어잇읍니다。그렇나 本國에 잇는 세부란스醫學專門學校나 總督府 醫專 같이 高普만을 마치고 入學하게된 專門學校制度의 學校는 없읍니다。現在 米國內에는 七十六個의 醫學校가 잇고 總學生數는 二萬二千餘名假量인데 每年 卒業生은 三千餘名쯤 됩니다。七十餘校中에 大概는 男女共學이며 現代 女醫學生數는 九百餘名 假량입니다。以上 말한 七十餘個의 醫學校는 中央政府의 法令이나 指導下에서 一般 事物을 處理해나아가는것이 아니라 純全히 民衆機關인 米國醫學協會의 指導下에서 完全한 醫業者를 내기에 도모합니다。

## 醫學校入學에關하야

醫學校 入學에 關하야는 本國에서나 日本에서 行하는 入學試驗制는 없고 大學(College)에서 工夫한 學業 成績表와 推薦書에 依하야 入學이 됩니다。六七年前붙어 入學志願者數가激增됨을 쫓아 入學하기가 如干 어렵게 되지 않은것입니다。各醫學校는 米國醫學協會에서決定한 規則에 依하야 入學을 許하는대 入學을 志願할만한 資格을 가진 사람은 如下합니다。

I. [Gene]ral. A Certificate of good moral character, signed by one or more reputable phisician or others.

II. Education.

The Minum requirements for admission to an approved medical College, in addition to satisfactory high school work, are sixty semister hours of Collegiate work in a college approved by a recognized accrediting agency.

The sixty semister hours of Colligiate instruction indicated a bov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subjects at last the amount work indicate for each.

A. Required subjects..........semister honrs.
- Chemistry(organic & inorganic)........12
- Biology..........8
- Physics..........8
- English composition & literature........6
- Other Non-scientific subjects..........12

B. Subjects strongly urged...semister houres.
- A mordern foreign language........6–12
- Advanced zoology..........3–6
- Psycology & logic..........3–6
- Advanced Mathematic........6

C. Other suggested Elective Subjects.
English (advanced), economic, history, sociology, Political sciences.

(One semister hour 라는것은 十六週日間을 工夫하는 새에 每週日 한時間의 講義時間이나 每週日 두時間의 實驗時間을 表함)

以上 記錄한 科目과 時間數는 醫學校에 入學을 志願하면 적어도 그만한 準備가 잇어야 志願할 資格이 잇다는것이오。決코그것이 滿足하야 入學을 할수잇다는것은 아닙니다。一九三〇年度 入學志願者와 入學許可를 받은 사람의 比率을 보면 11:1 이 比입니다。이와 같이 志願者數가 많은 까닭으로 그中에 入學할 可能을 가진 사람은 될수잇으면 大學에서 工夫한 成績이 越等히 좋거나 各方面으로 보아 준비가 充分한 사람입니다。그런 理由로 最近에 이르러서는 大學을 卒業한 사람 即 A. B. 나 B. S.를 畢한 사람이라야 하며 좋더 나

아가서는 學士位(M. A.)를 마친 사람이라야 入學할 可能性이 많읍니다。紐育州에 잇는 코넬大學 醫學部 콜롬비아大學 醫學部 시카고大學醫學部 같은 學校에서는 每年 五十名으로 乃至 百名가량 入學을 許諾하는데 每年 每校에 志願하는 志願者數는 五六千名에 達합니다。一般으로 大都市에 所在한 醫學校에는 志願者가 조고만한 都市에 잇는 醫學校에 比하야 大端히 많으며 그 理由는 臨床에 關한 實驗을할期會가 더 많은 까닭입니다。米國 잇는 醫學校는 私立과 州立이 잇는데 一般으로 말하면 外國學生으로는 州立學校에는 入學하기가 그리 容易치아니하며 그렇지 않으면 年謝金을 그州에 居住하는 學生보다 더 내야됩니다。그理由는 州立醫學校는 州民의 稅金과 州에屬한 基本金으로 維持해 나아가며 또한가지 理由는 各州는 各各 自治해 나아가는 同時에 自己州의 發展과 安寧을 爲하야 힘쓰므로 될수만 잇으면 州民中에서 醫師가 많이 나서 州를 爲하야 일하는 目的입니다。

大槪 各學校에 入學願書를 接受하기는 四月부터 六月頃까지 입니다°(開學은九月) 志願者는 自己가 志願하는 學校에 入學願書를 請하야 記入할것을 記入해보내면 各學校에는 入學委員이 잇어 許諾與否를 通知합니다。本國서는 日本서 專門學校를 마치신분으로 入學하려 하시는 분은 여러가지 理由로 直接 入學할수 없으므로 渡米後 一年으로 二年間쯤 米國大學에서 在學해가지고 入學하게 됩니다

本國이나 日本서 醫學을 공부하신 분으로 渡米하야 米國醫學校에서 더 工夫하는데 對하야 몇가지를 參考로 쓰려합니다。醫學校에 入學한后 四年間을 工夫하면 所謂 M. D.學位를 받을수 잇는데 米國醫學協會에서 作定한 規則에 依하야 四年間을 指定한 醫學校에 在學하되 적어도 마지막(三年級四年級)二年間은 한學校에서 工夫해야 M. D.學位를 授與하게 됩니다。다시 말하면 一二三學年은 컬럼비아大學醫學部에서 잇다가 四年級때에 西北大學醫學部로 轉學하는 境遇에는 西北大學에서 M. D.位를 주지않읍니다。西北大學에서 學位를 받으려면 三年級과 四年級을 마처야 하게됩니다。그런 理由로 本國이나 日本에서 醫學校를 卒業하신분이 米國醫學校로 와서 A. B. 學位를받으려면 三年級에 入學하게 됩니다。三年級에 編入하는데는 別로 困難이 없을것이며 英語에만 좀 常識이 잇는분은 工夫하는데도 別로 어려웁지 않을듯합니다。

## 醫學校費에 關하야

무슨科目을 전攻하려던지 그것을 始作前에 예비할것은 學費일것 같읍니다。本國에서도 그러하거니와 特히 米國에 잇어서는 醫學校에서 처럼 學費 많이 드는 곧이 없읍니다。一般으로 말하면 우리 朝鮮學生으로 大學에 在學하는 學生들도 大槪 年謝金을 免除받은 機會가 잇으나 醫學校에 잇어서는 絕對로 그런 機會가 없다고해도 過言이 아닌것같읍니다。米國은 苦學할 福地이므로 일하면서도 工夫할수 잇으려니 하고 생각하실분이 잇을른지 모르니 다만 醫學校에 在學하는 사이에는 時間이 許諾지 않읍니다。

現在 醫學校의 年謝金은 三百弗로 乃至 六百弗찜 됩니다。大개 學費는 學校 地方 都市의 大小等에 딿아 틀닙니다。그러므로 學校를 列擧하야 年總學費를 게재하려 합니다。

米國醫學校一年內學費

| 校名 | 所在地及人口 | 年謝金 | 宿食費 | 校費及實驗費 | 冊價 | 雜費 | 合計 |
|---|---|---|---|---|---|---|---|
| 컬럼비아大學醫學部(東方) | 뉴욕市 6,930,446 | 530$ | 490$ | 20$ | 60$ | 200$ | 1,300$ |
| 西北大學醫學部(中西地方) | 쉬카고市 3,376,438 | 335$ | 450$ | 30$ | 50$ | 180$ | 1,045$ |
| 캘리포니아大學醫學部(西方) | 桑港 634,394 | 525$ | 350$ | 20$ | 40$ | 150$ | 1,085$ |
| 에모리大學醫學部(南方) | 애트랜다市 360,690 | 300$ | 300$ | 30$ | 40$ | 150$ | 820$ |

## 一般內容

各 醫學校를 訪問치못하고 內容을 쓰기는 어려우나 筆者가 七八個 醫學校를 尋訪한 일이 잇엇고 米國 醫學會會報等을 綜合하야

簡單히 紹介하려합니다。

前記한바와 같이 七十餘個 醫學校는 民衆機關인 米國醫學協會의 規則下에서 모든 일을 處理해가며 七十餘個 學校中에 半은 私立 (敎會慈善事業機關 民衆團體에서 設立한것)이며 그 半은 州立이라 할수잇읍니다。

그러면 各州에는 醫學校가 다 잇느냐하면 없는것이아니라 어떤 州에는 없고 어떤州에는 州에서 設立한 醫學校가 둘이나 되는 곧이 잇습니다。

北州에서 維持하는 醫學校가 없는 理由는 勿論 財力 不足이겟지만 米洲 南方에 잇는 쁘로리다州에 醫學校가 없는 理由의 하나는 州法에 人體를 解剖하지 못하는 까닭이라 합니다。

一九二八年까지는 米國 醫學校를 分級하야 A. B. C 等의 種類가 잇엇읍니다。各 學校의 財政 設備 敎授等에 依하야 그와같이 分別햇으나 只今은 그러한 分別이 없고 다만 指定한 醫學校와 指定치 아니한 醫學校로 만 分別됩니다。

四年間 醫學校에 在學하는새에 工夫하는 時間數는 四千三百餘時間찜 됩니다。처음 二年間은 所謂 Pre-clinical work이 라하야 臨床實驗의 基礎가 될 學課를 敎授하며 남어지 二年間은 Clinical work 大部分 時間을 病院에서 보냅니다。四年間 工夫하는 學課와 時間은 學校에서 配布해놓은대로 出席해야 합니다。此最近에 와서 多數의 醫學校는 學生에게 一週日에 몇 時間식 自由時間을 주어 가지고 自己가 趣味가진 學課를 工夫하게 합니다。그렇다고 決코 醫學校에 在學하는 새에 獨特한 科를 專攻하라는것은 아닙니다。北 米國醫學協會의 方針으로는 四年間 醫學校에 在學하는 새에는 一般的으로 工夫하고 卒業後에 專攻하기를 도모합니다。

各 醫學校를 쫓아 每學年에서 工夫하는 科目이 좀 다르나 大同小異합니다。그 科目은 如左합니다。

一學年…解剖學, 胎生學, 組織學, 生理化學, 生理學, 神經學等。

二學年…病理學, 細菌學, 藥物學, 外科, 空中衛生, 臨床病理學, 診斷學, 內科學。

三學年…內科學, 皮膚學, 花柳病學, 診斷學, 臨床病理由學, 眼科學, 婦人科學, 耳咽喉學, 內科學, 小兒科學, 產科學, 精神病學, X光線學, 外科學(一般)整理學, 神經手術學, 生殖器及泌尿器手術學, 處方學。

四學年…皮膚學, 花柳病學, 婦人科學, 內科學 精神病學, 產科學, 小兒科學, 眼科學 耳咽喉科學, 豫防學整形學, X光線學 治療學, 齒科學。

一般으로 모아 米國 醫學校에서는 무엇보다도 實地方面에 더 힘을 씁니다。그러므로 以上 學科를 工夫하는새에 항상 實험이나 臨床을 爲하야 보내는 時間이 講義時間의 몇倍가 됩니다。筆者가 생각하건댄 이點이 米國에 잇는 醫學校와 다를것입니다。醫學校에 在學하는새에 試험制度가 잇으니 그것은 口頭試驗과 筆記試험인대 平常時에 보는것과 學期末에 보는것이 잇읍니다。

進級하는대 對해서는 以上 試험의 結果에 依하야 進級되는대 最小 通過點은 七十五點이요 平均으로는 八十點이 넘어야 합니다。卒業할때에 시험은 論文을 提出하게된 學校도 或잇지만 大概는 各科에서 口頭試험을 봅니다。이것이 醫師될때까지의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 M. D. 붑位를 받은 後에 自己가 開業하려는 州에서 擧行하는 시험에 通過되어 비로소 그 州에서 開業하게됩니다。以上에 記載한 學科를 一一히 紹介치 못하게 된것이 유감이나 數科를 들어 最近에 이르러 各醫學校에서 特히 힘쓰는것을말하면 神經學과 肺病에 對한 硏究라 할수 잇겟읍니다。紙面關係로 米國醫學校에 對하야는 그만콤 紹介하고 나머지 紙面을 利用하야 歐米에잇는 數國을 列擧하여 每一人 醫師에 對한 人口比를 봄으로 米國 醫學界가 發展된것을 그림그려 볼수 잇겟읍니다。每一人醫師에 對한 人口比는 如下 합니다。

| | |
|---|---|
| 米 國 | 八百人 |
| 瑞 西 | 千二百五十人 |
| 丁 抹 | 千四百三十人 |
| 英 國 | 千四百九十人 |
| 獨 逸 | 千五百六十人 |
| 佛 國 | 千六百十人 |

今日의 狀態로 米國 醫學界가 發展한다면 不過數十年이 못되어 그結果는 우리가 只今 想像조차 못할 貢獻을 世界 醫學界에 보일 것입니다。紙面關係로 좀더 仔細히 紹介하지 못하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後로 機會 잇는대로 좀더 米國 醫學界의 眞相을 쓰려합니다。

一九三二年十月 애지니아州立醫科大學에서

# 北米留學案內小考

쉬카코 南 宮 寅 出

머 리 말

內地에 잇는 親友들中 米國大學 入學手續과 其他旅行券 手續等을 뭇는이가 많음으로 或 案內 小考가 될가하야 내가 밟은 手續方法을 紹介코저 할뿐이다。

## (一) 米國各大學의 學費概算

北米合衆國에 잇어서 數많은 大學의 學費 概算을 어찌다 詳細히 細別하야 말할수 잇으랴마는 一般的으로 드는 大概만을 말코저한다。北米合衆國 學制에는 Quater System과 Semister System의 두制度가 잇는데 먼저것은 四學期로 나누인 制度이고 後者는 二學期制이다。學期制는 다를지언정 드는 月謝金은 大同小異하다。最高로 每年 月謝金이 約五百弗이고 最下로 約百五十弗 內外라고 할수잇다。

其他 學生會費와 運動費가 約五十弗 書籍費가 二十弗로 三十五弗 宿舍費가 每月約二十弗 食費가 約三十弗로 四十弗이다。學校를 따라 勿論다르려니와 東方에잇는 各大學의 費用이 西方보다는 高騰하다。그러면 이와 같이 高騰한 學費는 어떻게 自擔하며 어데서 나올수잇을가?勿論 內地에서 學費를 갓다쓰는이에게는 問題도 될것없지마는 내가말하랴는것은 苦學을 意味하는말이다。해마다 달라지는 米國經濟形便에 苦學生 生活은 大端히 困難을 느끼게되니 말이다。所謂 學生職業으로 普通 먹고자고 每日 五六時間 勞働에 五弗로 約十二弗까지는 每主日에 벌수잇는 現今의 形便이다 어떠한 學友는 東洋物品 行商으로 學費를 自擔하여간다。如何튼 餘裕잇는 學窓生活은 못되여도 겨우 工夫해갈수는 잇다고본다。或은 大學에서 研究成績이 優勝하면 全學費 免除를 받는일이많으니까 모든것은 各自의 手腕如何와 그才質에 달렷다고 생각한다。마음을 가다듬고 큰 目的을 세우고 쉬지않고 싸와나가는이에게는 前途가 열일것이며 成功의 彼岸의 主人公이 될수잇다고 장담할수잇다。

## (二) 入學手續과 旅行券手續

### A 入學手續

米國 各大學에 入學手續을 하려함에는 그다지어렵지는 않다。年來로는 米國 宣敎師에게 依托을하거나 或은 敎會機關을 經由하여 手續을하여왓지마는 近者에는 더 便利한 方法이 많다。第一로 米國 어느 大學에 在學中인 親한 親友가 잇으면 그리 付托하여도 좋고 또는 米國에 여러 韓人 社會團體가 많으니 그리로 請願하여도 잘 指導맡할줄로 안다。特히 外國學生 親睦會일을 맡어보는 李哲源氏 (Mr. Chulwon Ryee Room 1009, 347 Madison Avenue, New York City. N. Y.) 에게請願書를 提出하여도 잘 引導할줄안다。

처음으로 米國大學에서 入學承諾書를 얻을랴면 먼저 (一) 學校卒業證明書와 成績一通 (二) 履歷書 (三) 寫眞等을 添送할것이다。或學費免除를 爲하야 所謂 스칼라쉽(Scholarship)이라는것을 얻으랴면 時日걸리나 旅行券 手續에는 아모差異가없다。渡米後에 스칼라쉽運動은 하여도 無關할것이다。어느 大學에서던지 이入學承諾書를 얻어진뒤에는 內地에서 旅行券 手續을 敏速히할 必要가잇다。

### B 旅行券手續

이 旅行券 手續을합에는 第一次手續과 第二次手續이 잇나니 어떤때는 時日이 長久히 걸릴때도잇다 그러나 地方에 따라서 다르니까 手續하는이의 各自手腕에 달렷다。

#### (一) 第一次手續

第一次 手續이라함은 所轄警察署에 提出하야 日本 外務大臣의 싸인을 맞은 外國旅行券을 얻는 手續이다。第一次 手續을 합에는 左記 書類를 提出할것이다。

- 一 旅行券下附願 二枚
- 一 半身形最近寫眞 二枚
- 一 戶籍謄本 二枚
- 一 履歷書 二枚
- 一 入學承諾書 (英文原本 及寫本) 各一枚
- 一 健康診斷書 一枚
- 一 學費保證書 一枚

以上과같은 書類를 第一次 手續으로 所轄警

察署에 提出한後 同署 高等主任刑事를 往往尋訪하야 할수잇는대로 速히 나오게해달나고 催促을할지니 過히書類에 틀림이 없으면 不過數週日內로 道廳을 經由하야 나올것이다。旅行券下附願과 學費 保證書는 다음과 같은 形式으로 提出할것이다。

(A) 外國旅行券下附願

一 本籍
一 現住
一 職業
一 姓名　　某　　(英文으로도)
一 生 年　月　日
一 戶主トノ關係

右ハ 今般 北米合衆國 某洲某市 某大學ニ於テ入學承諾ヲ得 某科ヲ 學修ノ爲メ 渡米スルコトニ 就キマシテハ 總テノ書類ヲ相添ヘ 外國旅行券 下附ヲ 此段願上候。

年　月　日

右者　某　(印)

朝鮮總督 某　殿

(B) 學費保證書

本籍
現住

敎員及學生　某
年　月　日生

右者今般 北米合衆國 某洲某市 某大學ニ於テ修學ノ爲メ 渡米スルコトニ 就キマシテ 往復旅費貳千圓並ニ 留學中 四年間ノ學費 (但每月貳百圓宛) 及其ノ他 總テノ 費用ハ 拙者ニ於テ 負擔可致此段 保證致シ候

年　月　日

本籍
現住

右保證人　某　(印)

何道何郡何面長 殿

(二) 第二次手續

第二次 手續이라함은 旅行券을 얻어가진後 米國領事에게 履書 (Visa) 를 맡는것을 말함이니 이것만을 畢하면 米國留學手續은 完全히 마치게되는것이다。

第二次 手續에는 左記의書類를 添付할것이다

一 戶籍謄本　(日文及英文) 各二件
一 入學承諾書　二件
一 學費保證書　(本文及英譯) 各二件
一 健康診斷書　二件
一 紹介書　(宣敎師)　二件
一 學校卒業證明書 (日文及英譯) 各一件
一 寫 眞　(最近半身形)　二枚

第一次 手續에는 地方醫師의 診斷書도 無關하지마는 第二次 手續에는 外國旅行者 身體檢定醫師의 차인을맞은 診斷書가 必要되나니 쉬부란스나 總督府病院에가서 함이 必要할줄로안다。

이와같은手續을 畢하고 모든 書類를 손에쥔뒤에는 出發日字를 豫定하는 一便으로 體內에 아모病이나 없는지 잘診斷하야 療養할것이며 特히 十二指腸虫이나 추랙홈―과같은 眼疾의 根性이 없어질때까지 治療하여야 後日의 困境이 없을것이다。出帆 日字와 諸般 未備한 事件을알기爲하아는 日本神戶와 橫濱에 잇는 各旅舘에 問議할 必要가 잇나니 神戶港 榮町四丁目四十三番地 歐米各國 乘船取扱所 自由舘과 橫濱港 櫻木町 歐米各國取扱所 大馬屋과 같은 旅舘이 親切한 案內를 하여줄줄노 안다。또는 米國上陸時에 便利를 얻기 爲하아는 桑港新韓民報社 主筆이신 白一奎先生 (Mr. E. K. Paik 1053 Oak. Street San Francisco, Cal, U. S.A.)게 付托함이 가장 必要할지니 出帆하기前 一週日前에 書信을 보냄이 조흘듯하다。

(三) 移民局關係

이 移民局 關係에 잇어서는 우리가다常識的으로 아는바이니까 다시 重言復言함을 要치않을줄로안다。첫재 渡米한 卽時로부터 學校에 在籍을두고 每週에 十五時間科目을 擇하야 專攻치 않는以上에는 조금도 容恕없이 逐出을 命하는것이 北米合衆國 勞働者 移民局法이니까 누구나 먼저이것을 理解할 必要가잇다。

近者 傳聞에 依하면 移民局法이 좀더 까다롭게 變한다는 말이 잇다。다시 말하면 苦學生은 絕對로 容恕치않고 自費로 專攻할 外國學生만을 入國시킨다고한다。다른 一便으로는 上陸時에 現金으로 五百弗 即 日本돈으로 約二千圓 保證金을 세워야 上陸許可를 시킨다고한다。이것은 아즉 公公하게 發表한것이 아니니까 잘나서 말키는 어렵고 다만 今後로 渡米하려는분은 모든것을 잘 參酌하야 中途에 失敗가 없도록 注意를 加할 必要가 잇는줄안다。

詳細한 北米留學案內書를 作成하야 渡米하실분의 便利를 돕고저하지마는 다만 적은 參考로 내가 밟고 드른것을 몇마듸 적을뿐이다。

# 오림픽大會餘感

布哇 李 漢 植

現代 오림픽大會가 復興된지 三十六個星霜에 每四年 一次식 계속的으로 進行하야온 以前 結末과 全世界人類의 體育上 技術이 大步로 進取되여온 오날에 過去 未曾有의 大盛況을 일운 第十回 國際오림픽大會의 經過를 記錄하려 한다。

上古 오림픽運動이 世上에 踪蹟을 감치운지 九百六十年만에 새삼스러히 現代 오림픽이 始作된 왼갖 功勳은 佛人 쿠버린 (Baron Fierre de Coubertin) 氏가 粉骨碎身토록 努力한 結果이다。쿠버린氏가 提議한 오림픽•께임復興을 第一에 瑞典이 贊同하고 米國이亦是 協調하고 또는 次次 世界 一致로 響應되여 一八九五年에 巴里에서 國際오림픽大會의 幹部會를 組織하고 一八九六年에 第一回 競技大會를 오림픽•께임의 祖宗地인 希臘 首府 雅典에서 大理石으로써 華美하게 建設한「오림피어一드」에서 開催하엿다。

第一回 一八九六年 希臘 雅典

全部 競技 十四條目에서 米國九 英國三 希臘及丁抹兩國이 各一項식 勝利。

第二回 一九〇〇年 佛國 巴里

全部 競技二十二條目에서 米國十七 英國三 佛國及洪牙利가 各一項식 勝利。

第三回 一九〇四年 米國 쎈•루이스

米國 博覽會의 一部로서 觀察되여 各國運動界에서 特別히 趣味를 두지아니하엿으므로 國際的으로 보아서는 크게 失敗하엿다。

第四回 一九〇六年 希臘 雅典

一九〇四年에 米國서 開催하엿을 때에 世界列國의 代表選手들을 派遣치 아니하엿으므로 更次 雅典에서 大會를열어 全部 二十三條目에서 米國十一 英國 四, 希臘三 瑞典二 獨, 墺, 露 各一項식 勝利。

第五回 一九〇八年 英國 倫敦

이때에는 點數制度를 써서 英 155 米國 131 瑞典 31 獨乙 22 佛 15

第六回 一九一二年 瑞典스탁코

瑞典 133 米國 129 英國 76 芬蘭 52 獨 47 佛 31 丁抹 19 南阿弗, 洪牙利, 諾威伊 各16點식。

第七回 一九二〇年 伯耳義 앤트워一프

바로 世界大戰이 終熄되자마자 萬國의 스포一츠界에 何等 準備가 없엇으므로 一般 運動家들이 興味를 集中식히지 못하엿슴을 따라 所謂 國際오림픽이라는것이 京城培材 徽文兩學校間 蹴球競爭 만치도 오히려 盛況을 일지 못하엿다。

第八回 一九二四年 佛國 巴里

於是乎 비로소 女子運動 水泳 庭球等을 오림픽順序에 挿入하엿다。競技 結果는 米國 12 芬蘭9 英國3 墺, 伊 各1 條目식 勝利。

第九回 一九二八年和蘭 암스터一담

米9 芬5 加奈陀4 英2 佛, 獨, 波蘭, 日本 瑞典, 南阿, 各一條目식 勝利, 米國175 芬蘭102 英46點 十二오림픽新記錄을 내엿다。

今年에 米國羅城서 開催된 第十回 오림픽大會陸上競技, 日記, 及總結末

七月三十日 開場式

薄雲에 가리운 太陽은 히미하게 光線을 投下하고 太平洋을 거처온 三夏輕風은 活舞臺를 裝飾한 列國 方旗를 飜飜하고 各國 代表들이 行列하야 場內로 들어온뒤에 米國 副大統領커티스氏의 짧은 演說이 끝나자 스터디움의 東便 오림픽公園에서 第十回를 意味한 十發 砲聲은 一時 掀天動地를 하고 千人으로 合音한 男女聲樂隊는 스터디움의 西部에서 오림픽歌를 볼을때에 五輪을 그린 오림픽旗를 正肅히 揭揚하야 日空에서 너울너울 하고 順序가 끝나기前에 凱旋臺의 最上部에 突出한 오림픽燭臺의 火光이 춤을 춘다。

七月三十一日 陸上競技 開始

一萬米는 波蘭人「꺼소신스키一」氏가 30分2秒4로써 一着。오림픽新記錄。

今番大會 長距離競走에 觀衆이 歎美를 第一 많이 惹起하엿다。

砲丸投 米國選手 「섹스턴」君이 16米4로써 容易히 勝利。오림픽新記錄。

高跳 加奈陀「맥노—돈」君이 1米962를 뛰어넘어 一等을 하엿으나 自己의 平素 成績보다 매우 떠러젓고 一二等이 다 南加大學生으로서 大學競技에 恒常一等을 하던 米國選手가 當日 不運으로써 二等이 되엿다。

八月一日

햄머—投 運動에經驗이 많은이들의 豫測과 如히 愛蘭運動大家「카라한」博士가 52米92로써 勝利。오림픽 新記錄。

一百米 米國黑人「토—므맨」君이 10秒3으로 一着。오림픽 新記錄。二着도 黑人。

四百米障碍 愛蘭選手「티스돌」氏가 51秒8로써 一着을하엿으나 一時惡運에 所拘되여 障碍一個로 번복하엿으므로 二着인 米人「하—딘」君이 52秒로써 오림픽•참피온의 名佩를 받엇다。오림픽 新記錄。

八月二日

廣跳 墨國 黑人選手 꼬—던君이 7米64로써 참피온이 되엇다。

八百米 英人「햄쏜」君이 1分49秒8로써 一着 오림픽 及世界 新記錄。

햄쏜君이 雄步로써 뛰어갈때에 다른 選手들은 到底히 一着을 圖謀할수 없엇다。

八月三日

圓盤投 米國「앤더손」君이 49米5로써 容易히 一等。오림픽 新記錄。二等도 米人。四等인 佛國代表「노엘」君이 當日 自己가 奮鬪한 中에 最長 距離로써 던진 圓盤이 落下한 곧을 찾지못하엿으니 그 誤審을 觀衆까지 크게 痛憤히 생각한 바이다。

棒高跳 日人 西田君과 米人「밀러」君이 莫上 莫下로써 뛰어 넘을때에 觀衆의 興味가 焦點에 達하여서 應援聲이 스터디움에 가득하엿다。乃終에는 米人「밀러」君이 4米315로써 勝利。오림픽 新記錄 世界 新記錄

一百十米障碍 一般 運動家들의 豫測과 如히 米國「쎌링」君이 14秒6으로 一着。오림픽記錄 二三着도 米人。

二百米 米國黑人豪傑「톨렌」君이 21秒2로써 一着 오림픽 新記錄。三著도 米國 選手들。

八月四日

投槍 一二三等을 다 芬蘭選手들이 占領하엿다 。一等은「짜비넌」72米71 오림픽 新記錄。

片足廣跳 日本選手南部君이 15米72로 올림픽 及世界 新記錄 一等。

千五百米 伊太利選手「뻬칼리」君이 남보다 훨신 앞서 3分51秒2로써 一着。오림픽 新記錄

八月五日

十種競技始作。

五千米 芬蘭「레티넨」君이 14分30秒로써 一着。米國人「힐」君이 14分30秒1로써 二着。

現代 國際오림픽競技大會가 復興된지 三十六年에 此五千米競技처럼 異論이 紛紛한적은 없엇다。該競走 마지막판에「힐」이 앞스려고 할때에「레티넨」君이 뒤를 도라다본뒤에「힐」君의 앞길을 妨害하면서 다름박질하고 다시「힐」君이 方向을 變하야서 앞스려고 할때에 다시「레티넨」이 뒤를 도라보고「힐」君의 前方을 向하야 一尺七寸可量을 앞서서 決勝線을 넘엇다。甚至於 審判官 까지라도 如出一口로「레티넨」君이 違則이라고 하면서도「렐」君이 勝利하엿다고 判決하엿다。筆者의 觀으로써「렐」君이 違則을 하엿으니「힐」君이 참피온이 아닌가? 觀衆이 부—부하는 야지聲은 一時 스터디움을 沸騰하게 햇다。

四百米 米國「카—」君이 46秒2로써 一着。오림픽及 世界新記錄。二着인 米人「이스터맨」君이 以前 世界記錄者로써 自己의 新記錄을 내엇으나 最大急行으로 疾走하는「카—」君에게 屈服을 아니할수 없엇다。

八月六日

三千米野外競走 實狀은 三千四百五十米을 競走하엿으나 時間을 三千米로 計算하면 芬蘭人「이스홀로」君이 9分18秒4로써一着。오림픽新記錄。

十種競技。米國「뱦—쉬」君이 8462點23으로써 一等。오림픽新記錄。

八月七日

四百米릴레이 40秒로써 米팀이一着。世界及오림픽新記錄。百米에 一二三着보다 到底히 뒤떠러지지 아니한 選手들이 릴레이競走를 하엿으니까 米國이 一着할것은 勿論이다。

千六百米릴레이 3分8秒2로써 힘들지 않게 米國이 一着。오림픽 新記錄。

마라손 朝鮮選手二人이 參加하엿스므로 海外 海內를 勿論하고 朝鮮人의 오림픽大會에 關한 興味는 마라손에 集中되여 幸혀나 金 幸혀나 權 기다리든바이다。아르젠티나「짜발

라」君이 2時31分36秒로써一着。오림픽新記錄。金恩培君은 凛凛하고 元氣잇게 2時37分28秒로써 六着에 昇格되고 權泰夏君은 九着으로써 入場할때에 氣質이 消盡되어 이리 커리 쓰러질듯 徐徐히 뛰여가다가 最後前道三十尺을 압에두고 쓸어넘어지려다가 다시 勇氣를 떨치고 自己 一平生의 길고먼 30尺의 目的을 達到할때에 同情의 한줄기에서 복바치어 나아오는 觀衆의 拍手聲은 天地를 뒤집엇다。

今般 大會가 有史以來에 第一 宏大 圓滿하게 進行된것는 勿論이고 競技 自體外에 果然 嘆服할만한것이 더욱 많다。日氣晴凉도 理想的이려니와 羅城 附近의 景概도 絕勝이오 選手들의 別邸는 仙境內에 位置되엇다。스터디엄이 雄大하기 觀衆의 數爻 權泰夏君이 決勝點을 넘을때의 拍掌소래 米國 뻘뻘 運動할때에 二千六百人으로써 組織한 樂隊等이 다 오림픽 新記錄이다。

伊太利 代表 選手들이 修養。伊首相 뭇소리니氏가 自己代表 選手들에게 깍듯이 千萬付託하기를『今番 大會에 參加만하지 말고 得勝하라』하엿다。伊人들이 오림픽村에서 留宿할동안 社交生活은 永爲斷切하고 甚至於 外人訪問까지라도 絕對 謝絕하여서 平素에는 佛國選手들에게 항상 뒤 떠러진 伊人들이 今番大會에는 佛人 보다 훨신 優勝하엿다。今番大會時에 朝鮮人選手들도 넘어 社交에 出入이 頻頻하지 아니하엿더면 그이들의 成績이 良好하엿으리라고 筆者는 斷言한다。

第十一回大會에 朝鮮人의 態度? 今番大會에 朝鮮人 代表가 朝鮮人 名下에 派遣되지아니 하엿다고 頌說이 多端함은 一般人士들이 熟知하는 바이다。徃事는 勿論하고 自今四年後에 獨乙 伯林에서 開催되는 第十一回大會에는 朝鮮選手들을 如何히 參加하게 하려는가? 以前처럼 日人名下에? 또는 朝鮮人의 名下? 이 宿題를 無權利한 選手個人들이 到底히 解釋할수 없고 各 社會團體에서 只今불어 相當한 準備가 잇어야 되겟다 萬一 우리의 財力이 高裕하면 臨時變通도 容或無妨하려니와 物質上으로 柔弱한 朝鮮의 處地에서는 只今불어 各人及 各團體의 諒解와 同情을 얻어야 晩時之恨이 없을것이며 우리社會에서는 오림픽大會에 關한 經驗이 淺薄하므로 長久한 時間에 實事情을 討議하여야 일을 圓滿히 成就할수 잇겟다。 (終)

## 第十回國際오림픽大會 陸上競技一覽表

| 競技種目 | 一等 | 二等 | 三等 | 四等 | 五等 | 六等 |
|---|---|---|---|---|---|---|
| 一百米 | 米 | 米 | 獨 | 米 | 南阿弗 | 日 |
| 二百米 | 米 | 米 | 米 | 獨 | 亞爾然丁 | 南阿 |
| 四百米 | 米 | 米 | 加奈院 | 南阿 | 米 | 濠 |
| 八百米 | 英 | 加奈陀 | 加奈陀 | 米 | 米 | 米 |
| 千五百米 | 伊 | 英 | 加 | 米 | 瑞 | 米 |
| 五千米 | 芬 | 米 | 芬 | 뉴지랜드 | 瑞 | 獨 |
| 一萬米 | 波 | 芬 | 芬 | 芬 | 獨 | 瑞 |
| 四百米障碍 | 愛蘭 | 米 | 米 | 英 | 伊 | 瑞 |
| 一百十米障碍 | 米 | 米 | 米 | 英 | 英 | ○ |
| 三千米野外競走 | 芬 | 英 | 米 | 芬 | 英 | 米 |
| 廣 跳 | 米 | 米 | 日 | 瑞 | 米 | 日 |
| 高 跳 | 加 | 米 | 比島 | 米 | 芬 | 日 |
| 圓盤投 | 米 | 米 | 佛 | 佛 | 洪 | 洪 |
| 棒高跳 | 米 | 日 | 米 | 米 | 日 | 伯 |
| 投 槍 | 芬 | 芬 | 芬 | 獨 | 米 | 米 |
| 햄머投 | 愛 | 芬 | 米 | 瑞 | 米 | 亞爾然丁 |
| 片足廣跳 | 日 | 瑞 | 日 | 愛 | 和 | 米 |
| 砲丸投 | 米 | 米 | 쵝코 | 獨 | 米 | 獨 |
| 四百米繼走 | 米 | 獨 | 伊 | 加 | 日 | 英 |
| 千六百米繼走 | 米 | 英 | 加 | 獨 | 日 | 伊 |
| 十種競技 | 米 | 芬 | 獨 | 米 | 獨 | 芬 |
| 마라손 | 亞爾然丁 | 英 | 芬 | 英 | 日 | 日 |

## 第十回오림픽各種競技一覽表

| 競技種目 | 一等 | 二等 | 三等 |
|---|---|---|---|
| 男陸上競技 | 米 | 芬 | 英 |
| 女同 同 | 米 | 獨 | 波及加 |
| 男水泳 | 日 | 米 | 獨 |
| 女水泳 | 米 | 英 | 濠 |
| 水泳폴로 | 洪 | 獨 | 米 |
| 競 漕 | 米 | 英 | 加 |
| 拳 鬪 | 米 | 亞爾然丁, 南阿三相對 | |
| 相 撲 | 瑞 | 芬 | 米 |
| 自轉車 | 伊 | 佛 | 和 |
| 體操術 | 米 | 伊 | 洪 |
| 射 擊 | 伊 | 瑞 | 墨 |
| 홋케이 | 印 | 日 | 米 |
| 航船競技 | 米 | 加, 瑞, 相對 | |
| 競 馬 | 米 | 佛 | 瑞 |
| 擊 劍 | 伊 | 洪 | 佛 |

以 上

# 올 림 픽 大 會

文 章 郁

(緖論——大會의 任員組織——競技種類及施行場所——開會式——볼만한 陸上競技——優勝禮式——마라쏜選手席의雜觀——쭛뽈——하키——體操——閉會式——結論)

## (一) 緖 論

올림픽 올림픽 내가 올림픽이란 말을 들은때는 아마 오래젼 中學時代인듯하며 確實히 올림픽의 語義와 實例와 事實을 알게된 것은 (1928年 夏期 市加古에서 新聞紙上으로 멀리 암스터담에서 열린 올림픽大會의 記事를 읽고보던 그때이엇다。그러다가 流浪의 學窓生活이 年數를 거듭할사록 東으로 西으로의轉轉은 발자최를 南國 羅城에 머물게 된것이며 이번 올림픽大會에 南加州大學 運動部의 付托으로 올림픽 스태듸움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고 求景하게 된것이 仔細한 올림픽을 알게된것이며 따라서 이글을 쓰는 動機인가한다。

### 1 大會의任員組織

每四年마다 一次式 行하는 世界的 大競技를 試合하기 위하야 여러 組織體가 잇음으로 알수잇다。國際올림픽 委員會 名譽委員會 各國 올림픽 委員會 國際選手協會 加州第一回올림픽委員 第十回 올림픽 行政委員會 各國올림픽 隨行員 或은 公使館員等이다。國際올림픽 委員會에는 빠론 피어러 데-쿠버틴氏가 創立者 카운트 데 빼일레래투어氏가 會長이며 名譽委員會에는 大統領 후버氏와 빠론 쿠버틴氏가 名譽會長이며 加州第十回올림픽委員과 第十回同大會行政委員會에서는 윌리암 메이 갈란드氏가 各各 會長이되어잇다。

### 2 競技種類와그施行場所

一般運動競技 拳鬪 自轉車競技 競馬 劒術 陸上하키 體操 五種競技 射擊 漕艇 水泳 水球 十種競技 重量擧 씨름 쭛뽈 라크로쎄뽈 以外에 各種 美術競爭等이 잇엇다。그 施行한 場所는 七個所가 잇으니 第一 有名한곧은 올림픽 스타디움이다。이 世界的 有名한 競技場은 總經費一百七十萬弗로 數年동안 建築한것이다 收容人數는 十萬五千名以上. 長은 一千一百二十尺 廣은七百九十尺 周圍가三千尺이다。場內로 引導하는 出入口는 二十八個의 굴로된 通路와 그外에 層臺를 合하야 五十七個所나 된다。大體 重要한 競技는 거이 이곧에서 實行하엿으니 開會式 一般 運動競技 體操 하키 쭛뽈 馬術 그外 各種 優勝禮式은 다 여긔서 볼수잇엇다。다른 場所는 水泳場올림픽 오듸터리움 렁삐취 羅城射擊場 練兵場 파사데나——오로스뽈 리베라競馬場 羅城博物舘이며 徒步競走와 長距離競走는 各各指定한 區域에서 行하엿다。

## (二) 開 會 式

世界的 雌雄을 다투는 歷史的 大競技의 開幕은 一千九百三十二年七月三十日 (土曜日) 午後 二時半 米國 羅城 올림픽스태듸움에서 擧行되엇다。早朝부터 몰려드는 觀衆들은 다시 正刻이되자 場內에 十萬五千餘名을 收容한後 올림픽 任委의 入場과 同座定이 끝나자 이어서 우렁차고 료량한 米國國歌는 푸른하날 맑은 空氣에 傳播되기 시작하얏다。一千二百의 合唱隊와 二百五十의 樂隊가 十萬五千의 구경군을 招待할제 果然 壯觀이엇다。

希臘을 先頭로하고 A B C 順으로 行列하든 各國選手들은 의기가 당당하고 容姿가 稟稟하여 泰山을 옴기고 南海를 뛸듯한 氣상이 나타낫다。人種展覽 國旗展覽 服色展覽 또 各國民의 體質 特色等等의 各種展覽을 보앗다。

米國의 三百二十五名의 多數를 으뜸으로 伊太利 日本의 約二百名의 選手들이 둘재 多數이엇다。아모리 體質이 좋은 運動家이지만 넓은 場面에 數없이 별려 놓을케 人形과 같은 感이 잇다。헝가리 加奈陀의 赤衣와 伊太利 뿌라질의 靑服이 더욱 視線을 끈다。各國 選手들의 處所整돈이 마치자 米國 副大統領 커틔스氏는 「나는 近世 第十回 올림피아드를 祝賀하며 또한 羅城올림픽大會의 開會를 宣言하노라」하든 簡單한 열일곱마듸의 英語로 發表하엿다。료량한 喇叭소래가 空氣를 헤치며 올림픽노래를 合唱하자 니어서 十發의 祝砲를 울니어 올림픽 燃臺우에 홰불이 켜지어 希臘傳來의 古代遺風을 다시 想像케 되엇다。올림픽會旗는 바람과 함끠 나부낀다。더욱 數千萬의 平和鳩는 空中에 춤을 추며 空前의 壯嚴을 더해주엇다。加州大學總長 스프롤氏의 祝辭와 祝禱가 三時五十分頃에 끝나자 繼續하여 宣誓式을 擧行하엿다。

各國選手를 代表하여 米國 카르넨中尉는 中央臺上에 올라스며 各國選手들과 一齊히 손을 올려 盟約하기를 「우리는 올림픽大會의 規則을 尊重하며 참된 運動家의 精神을 가지고 運動의 名譽를 爲하여 正正 堂堂히 싸우고저 이 大會에 參加한다」이와같이한後 場內를 一週한 各國選手들의 退場으로 意義잇는 競技의 첫날 開會式도 幕을 닥치게되엇다。

## (三) 볼만한陸上競技

紙面關係로 豫選에 對한 여러가지 事實을 避하거니와 决勝에 對한것도 다만 몇가지를 적으랴한다。每日 數十페지의 小冊子로된 푸로그램에 記載된 事實을 적자면 한卷의 冊을 쓰고도 남을것이다。只今 運動種類와 一等한 國家만을 적으면 約三日間에 高跳에 카나다 彈丸投에 米國 女子投槍에 米國 萬米競走에 波蘭 鐵槌投에 愛蘭 八百米 競走에 英國 百米女子競走에 波蘭이다。올림픽 有史以來로 高跳에 一等하든 米國이 加奈陀에 빼겻으며 女子投槍에 世界記錄을 突破한 伯林女性 뿌라우물너孃은 一等에 떠러젓다。壯觀스런 萬米决勝에 波蘭선수 쿠신스키가 芬蘭이 소홀로를 約二百米地點에서 뒤떠러트리고 一等의 榮譽를 얻을케 우뢰같은 拍手로 場內는 震動되엇다。百米女子决勝에 波蘭의 스타왈라孃은 米國 카나다를 앞서서 11,9秒로 올림픽 兼 世界記錄의 새것을 지엇다。

棒高跳 圓盤投 百十米障碍競走 二百米競走 投槍 三段跳 千五百米競走 女子八十米障碍競走 五千米競走 四百米競走 三千米스틔플체이쓰 十種競技等은 陸上競技의 第四日로 第七日까지 行한것이다。大槪 日本選手들의 成績은 如何한가? 廣跳에 三等을 먹은 日本이 棒高跳에 二等을한후 다시 三段跳에 一等 三等을 하고나니 日本選手의 氣勢도 좀 도을뿐만 이니라 日本도 뛰는데는 相當하다는것을 世界選手 앞에 자랑하게되엇다。圓盤投 百十米障碍는 米國이 各各一, 二等 二百米競走 女子 八十米障碍競走는 米國이 各各 一, 二, 三



(마라손出發光景)

等을 다하엿으니 米國 體育界의 驚異를 나타내며 活潑한 勇氣를 뵈여주지안는가? 投槍에는 芬蘭이 一, 二, 三等을 獨占하엿다。芬蘭의 優秀한 競技도 나타나기 始作한다。그런데 한가지 第一 창피스럽고 우숩고 가련한것은 女子 八十米障碍物競走豫選에 日本選手의 서투른試合이엇다。八月三日 午後 三時頃에 女子競技가 잇는것을 알고 늘 男子競技만 보기에 苦로운 筆者는 다시 女子들의 뛰는 貌樣을 좀 보리라하고 깃버하엿다。손벽을치며 웃는소래가 들리기에 運動場을 내려다 본즉 日本女子가 허들에 걸리어 두어바커 둥글다가 다시 이러나서 뛴다는것이 고

만 또걸려서 너머지니 이제는 다시 또갈 렴치가 없는듯이 고만두엇다。가엾은 꽃다운女性의 안타까운 失格이여!

十種競技는 한 選手가 열가지 運動 即 一, 百米競走 二, 廣跳 三, 彈丸投 四, 高跳 五, 四百米競走 六, 百十米障碍競走 七, 圓盤投 八, 棒高跳 九, 投槍 十, 千五百米競走等을 다하여 換點數 最高在가 優勝한다고한다。亦是 米國人 빠우쉬氏가 八千四百六十二點의 最高로 一等이며 또 世界 新記錄을 내엇다。

## (四) 優勝禮式

어느 場所를 莫論하고 올림픽 競技의 結果 即 一, 二, 三等의 優勝禮式은 다 올림픽 스태듸움안에서 擧行한다。五萬米徒步競走에는 英國이 一等이오 라트비아가 二等이다 빨틱海岸의 新興小國인 라트비아가 이번 大會에 叅加한것도 多幸이려니와 또한 二等을 얻은 것은 더욱 喜幸한일이다。라트비아國旗가 優勝旗堂우에 높이올라 밝은 바람에 나부낄제 달린스選手는 얼마나깃벗을런지!우뢰같은 拍手聲은 그를 祝賀하고 남엇다。이번 올림픽大會의 國際的用語는 (特別히스태듸움間에서)英語이엇다。그러나 優勝禮式時에『올림픽優勝禮式』이란 그것과『올림픽 참피온』이란 그것이 두가지는 佛語를 使用하엿다。세레만니 올림픽 프로토콜레이 라는 말을 여러번 듣는 同時에 코카콜라 飮料水 파는 소래와 恰似하여 各國 選手들은 프로토콜레어를 코카코라라고 부르며 웃기도한다。優勝禮式의 順序는 이러하다 例하면 세레모니 올림픽 프로토콜레어를 높이부른後 一同 起立 向東을 宣言하고 陸上競技 五千米競走에 레흐릐넨 芬蘭이 一等 十四分三十秒로 올림픽新記錄 힐 米國이 二等 버레넨 芬蘭이 三等 이와같이 宣布할제 一二三等 選手는 場內中央 優勝壇上에 높이스며 同時에 一二三等 優勝國의 國旗는 東便 優勝旗 棹上에 높이 달린다。이어서 一等한 國家의 愛國歌를 樂隊가 奏演하며 設團選手들은 따라서 노래한다。國際的優勝 올림픽 참피온 꽃다운 이름을 運動史上에 남겨둘이다。愛國熱은 이에서 鼓吹되며 民族性은 이에서 發揮되여 自身을 내어 놓고 自國을 愛着한다。끓어오르는 慷慨는 여름하



(優勝禮式光景)

날과 함끼 길어진다。一等한 國家들 따라 愛國歌가 各各 다르다。느리고 긴愛國歌도 잇으며 짧고 빠른 愛國歌도 잇다。樂隊들이 五十八個의 愛國歌를 演習하기에 奔走하엿을것이다。

## (五) 마라쏜

히랍 데살리 스팔타 앤틔카 아이오니아等古代 都市의 選手들은 마라쏜의 始祖라할수 잇으며 올림픽의 嚆矢인 以上 近代 올림픽에서도 마라쏜競走를 올림픽의 올림픽으로 認定하는것마는 事實일것이다。이번 올림픽大會 마라쏜에 一等을얻으랴고 一九二八年 第九回大會以後로 猛烈한 演習을 行한 各勇手들은 이날을 企待하고 잇엇다。따러서 權, 金兩選手도 羅城에온후에 많은 練習을한것마는 잘아는 事實이다。벌서 올림픽이 열리기전에 멀리오신 두選手를 마지하기 爲하야 올림픽村으로 찾어간일이 잇엇다。마참 두분을 만나 반가히 談話할제 金君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련습하던것과 米國에서 련습하는것이 大端 다른것은 地面關係 即 흙과 씨멘의 關係라고 하엿다。흙우에서 다름질하든 金君이 씨멘우에서 달니기에 딱딱하고 불편해서 발바닥이 아프고 머리가 울린것은 事實이다。雪上加霜으로 權君은 米國 오며부터 몸이不便햇다고한다。여러 不利益點을 가진 그들은

한편 念慮가 만햇엇다。金君은 謙遜한 語調로 六等만 入選된대도 부끄럽지는 않겟다고 햇다。

八月七日 午後三時三十分 스태듸움안에서 마라손이 始作될제 一般觀衆은 興奮에 興奮을 더하며 場內는 매우 緊張하엿다。밖에서는 마라손選手가 지나가는 거리마다 몇十萬이될지 수많은 群衆이人山人海를 이루어 그들을應援하엿다고 한다。十八個國 選手 二十二人이二十七마일 長距離競走에 月桂冠을 다투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國際的 大競技이엇다。往復二十七哩 路程中에 七個의 管理所(콘추롤스테숀)를 두어 選手들의 狀況을 報告하며 身邊을 保護하엿다。夕陽이 기우러진 스태듸움에 暗黑의 帳幕이 침노하기 始作하자 約六時半頃에 아젠틴選手 사바라氏는 意氣것 堂堂하게 스태듸움 入口를 들어선다。歡呼聲裡에 大混雜을 이룬 群衆은 起立 脫帽 躍動等 二時三十一分三十六秒로 一等當選兼올림픽新記錄을 얻은 사바라氏를 祝賀하엿다。다른올림픽新記錄은 一·二三四等의 四選手가 同時에 한듀랙 運動場內에 競走한것이다。一二三等의 選手들이 約百米를 隔하여 疾走케된것은 神奇한 事實의하나이다。一九二八年 올림픽選手이든 쓰다君은 五等으로 들어왓다。

### 六等은 金恩培君

金君이 씩씩하고 勇氣잇게 스태듸움안을 一週하는 光景은 얼마나 기뻣든지 같이 앉엇든 R兄과 함끠 뛰엇다。君의 凛凛한 活氣는 몇마일을 더 뛸것 같엇다 앞서온 選手들이 場內에 들어오자 氣盡한모양으로 간신히 뛰던것과 金君은 全然反對이다。體力을 많이 保留하여둔것같엇다。一九三六年 마라손優勝의 餘裕가 뵈이는듯하다。君의 將來를 祝福하며 成功을 企待하여 마지안는다。

### 九等은 權泰夏君

君이 最終線的 十米를 남겨놓고 極度에達한 疲困으로 거의 쓰러지랴하다가 다시 니러나서 決勝點까지 거러간것은 眞正한 運動의精神과 스포츠맨쉽의 精華를 發揮하고도 남은것이다。熱狂的 贊揚的 歡呼拍手聲은 그를 慰勞하기에 奔走하엿다。

## (六) 選手席의雜觀

이번大會에 많은 權利를 가지고 入場自由를 얻은 選手들이지마는 一定한 徽章이 아니면 入場을 할수없다。一一히 選手들의 徽章을 檢査할 責任을 맡은 筆者는 한편으로 奔走하면서 한편으로 滋味도 많엇다。어떤選手들은 外衣에 달지아니하고 或은 손에 쥐엇으며 或은 주머니에 너엇으며 或은 洋服저고리 속에 부치고 徽章을 차서도 제마다 내어뵈일뿐이다。그래도 男子選手들은 運動服或은 其他의 特徵으로 判斷할수잇으나 女子選手들은 깨끗한淑女로 化粧하고 다니는분이 많음으로 外觀上 分別키 어려우며 徽章을가지고 다니는데도 도모지 一定하지 아니하다 特別히 日本選手들은 一定한運動服에 日章旗票와 徽章을 틀림없이 부쳣음으로 조곰한 不便도 없엇다。日本의 軍國敎育과 歐米의 自由敎育과의 差異가 아닌가하엿다。歐洲選手들이 或은 英語를 모르고 筆者亦是 通話할수가 없어 不便함이 많엇다。形形色色의 雜觀은 다만 形容으로 發表할뿐이엇다。여러해만에 日本말을 使用할 機會는 그選手들과 對話할때이엇다。伊太利의 靑衣 加奈陀의 紅衣 헝가리의 紫衣 各國의 特色을 볼수잇다。키가 작고 體格이 正調되지못한 日本女性이지마는 그들이 水泳練習을 마치고 夕陽과 동무하여 스태듸움으로 도라올제 淸雅한 노래 輕快한 行動은 볼만하엿다。가끔 歐洲選手들의 撮影할 機會를 얻은것도 選手席의 一相이라 할지?

## (七) 쭛뽈 학키 體操

쭛뽈 쭛뽈 쭛뽈하고 노래를 불으며 미칠듯이 좋아하는 米國男女들은 이번 大會에서 試合하는 쭛뽈을 한번 보랴고 손곱아 기다리엇든것은 事實일것이다。無慮 九萬餘名을 收容한 이날저녁은 奇絕壯絕한 歡喜의 一夕이다。太陽과 못지않게 裝設한 電燈은 파―란 그라운드를 遺憾없이 비치엇다。

쭛뽈의 元祖인 米國은 이번大會에 參加한 外國選手들을 招待할겸 自由의 技能을 發表할겸 올 米國팀을 東西二部로 分立하엿다。하바드 예일 프린스톤은 東部를 代表하고 加

州大學 스탠포드 南加州大學은 西部를 代表하엿다。一九三一年 全米國의 優勝을가진 南加州大學의 뜻뽈選手들은 實로 對敵하리 없는 차재가는 選手들이다。壯觀스런 樂隊의行列과 淸雅한 合唱隊의 코러스며 부르짖는 應援隊의 歡呼聲은 가지각색으로 群衆을 깃부게하엿다。第一部를 勝否가 없이 마치고나서 다시 第二部에 白熱化한 選手들은 最後를 다하엿다。選手席의 윌을다마치고 뉴욕에서 오신 R兄을 맛기爲하여 場內를 一週할제 벌서 東部팀은 六點의 勝利를 얻엇다。R은 自己便인 東部가 이겻다고 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西部팀은 白熱戰을 繼續한다。六點 다시 一點을 加하여 七對一로 西部가 優勝을한후 R兄은 할말이 없엇다。時間은 다되엿다。올림픽의 뜻뽈도 하로저녁의 기쁨으로 마추엇다。

암스터담에서 優勝한 印度학키팀은 이번에도勝利의 自信이 豊富하엿다。굴뚝새와 같이 깜한 키가 적은 印度 選手들이 運動場에 널려서서 빨리 뛰는 모양은 보기에도 相當한 訓練이 잇는듯하다。前日 日本팀을 慘敗시킨 印度는 十一日 米國팀을 二十四對一로 이기고 말엇다。印度選手中에 찬이라하는 選手는 참으로 有名하다。끌은 거이다 이 選手가 넣엇다。찬이 공을 몰고가면 조곰잇다가 땅하고 한끌을 낸다。땅 땅 二十四次에 時間이 다되어 고만둔것이다。

體操에는 米國과 伊太利가 各各 優勝을하엿다。鐵棒 木馬 줄타고올으기 재조넘기 其他 各種을 數日間 行하엿다。이와 關係된 模範體操의 行列과 試合은 八月十日 저녁 八時부터 始作하엿다。一, 四個國 體操選手덜의 入場式 二, 獨逸턴베라인一隊二百五十名의 體操及舞蹈 三, 墨西哥選手一隊二百五十人의 戰爭舞蹈及 애스텍火邊舞踊 四, 체코스로박一유고슬로바키아 쏘콜一隊二百五十名의 體操及舞踊 五, 日本人一隊三百名의 柔術及擊劒模視等이엇다。

## (八) 閉會式

紙面關係로 乘馬術과 其他 올림픽스래되움外의 行事는 一切 避하거니와 十四日 동안 陸上 水上 長距離 短距離 乘馬 乘船 拳鬪 뜻뽈等의 競技로 國際的 競技場에서 國際的選手들이 國際的榮譽를 다투던 十回올림피아드 一九三二年 八月十四日 (日曜) 을 最後로 終幕을 닺게되어 올림픽횃불은 끄게되엇으며 올림픽 旗발은 거두게되엇으며 따라서 올림픽 選手들은 各其드러가게 되엇다

알프쓰登山成功의 獨逸 二靑年 即한쓰슈밋 토니슈밋 兄弟를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贈呈하엿다。그들은 前例에 없는 알프쓰絕頂登陟에 처음成功하엿다 한다。

各國國旗의 行列이 끝나자 國際올림픽大會長 빠일렛一래투어氏가 大會終了의 宣言을 마치고 올림픽會旗를 나린후 이 旗를 로스안젤스市에 臨特 贈與한다는 同大會長과 암스터담市長의 宣布가 잇엇다。羅城市長이 오는 大會때까지 會旗를 同市市廳에 保管하겟다는 答辭를 말할제 雷聲같은 拍手가 내리엇다。樂隊 合唱隊의 淸雅한 歌曲속에 各國國旗의 退場과 閉會를 象徵하는 라팔소리로 歷史的 大競技의 모임도 踪跡을 감추게되엇다。

## (九) 結論

올림픽 總決算을 하여보자 三十八個國選手의 參加 一百六十八萬名의 入場 三十種類以上의 世界올림픽 新記錄 엄청난 事實을 뵈여준다。各國의 得點數와 밋 그 次席은

| | | | |
|---|---|---|---|
| 1, 米 國 | 758 | 8, 英 蘭 | 133 |
| 2, 伊太利 | 225 | 9, 加 奈 陀 | 105 |
| 3, 瑞 典 | 172 | 10, 헝 가 리 | 80 |
| 4, 獨 逸 | 164 | 11, 和 蘭 | 66 |
| 5, 日 本 | 153 | 12, 波 蘭 | 42 |
| 6, 佛 國 | 151 | 13, 오스츄랠리아 | 42 |
| 7, 英 國 | 142 | 14, 아 젠 티 나 | 40 |

(以下는畧)

以上과 如히 日本이 長足의 進步를 한것이며 芬蘭이 意外로 落後된것이다。一九二八年 米國의 다음으로 優勝한 芬蘭의 이번에는 想像以外의 失格을 한것이라한다。北國 芬蘭이 運動의 特長을 가진 理由는 一、氣候關係 二, 規則的生活 三, 肉體勞働의 發達이라한다。一九〇六年 芬蘭運動協會組織以來로 全國的 奬勵를 한다고하며 스키, 長距離競走, 陸上競技, 우레슬링, 射擊, 뻬쓰뽈等이 優好한 成績을 가지고잇다고 한다。돌아가는 選手들로 올림픽村은 一大 混亂을 이루엇으며 歷史에 남어잇을 스태듸움은 말이 없이 꿀빠이를 傳하는듯 人山人海를 이루엇든 올림픽公開도 쓸쓸하기 짝이없이 가을빛을 마지하고 만다。올림픽은 갓다 米國의 勝利를 남겨두고 羅城에 記錄을 끼쳐놓고 올림픽은 갓다 올림픽은 갓다。(完)

# 英文學形式概論

템플大學 韓 世 光

템플大學에서 英文學을 專攻하는 君은 일즉이 英文詩를 發表하여 米國 學生界 文壇에 異彩를 發한 西京 出生의 詩人——우리는 앞날의 매스터피—즈를 볼때까지 沈默을 지키며 成功을 빌뿐 ——編者——

"Literature is criticism of life." ——M. Arnold——

"Literature is the artistic interpretation of life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language." ——H. Watt——

## 緒 論

英文學을 工夫할때 가장 처음으로 느낀것은 그 系統的 發達과 形式의 完備함이다

勿論 西洋文學의 形式(Type)이 모다 그릭과 라틘의 古代文學에서 繼承하야 發達한것이니 그 系統은 同一한것이다。

다만 그 發達의 範圍를 따라 形式上 大小의 差異點이 잇으나 藝術에는 國境이 없다는 眞理와 같이 그 形式의 傳統的 發達은 大同小異이다。

西洋文學의 形式을 一考함에 잇어 筆者는 英文學上에서 그 大要를 槪論하려고 한다。

○

아놀드•뻬넽은 「文學은 삶이다」라고 한다 매튜•아—날드는 「文學은 人生의 批判이다」라고 햇다。이것을 모다 綜合하야 왙은「文學은 言語를 使用하야 人生을 藝術的으로 解釋하는것이다」라고 定義햇다。

여긔에서 文學上에 그 形式이 重要함을 認識할수 잇는것이다。

○

世上의 모든 藝術은 그 表現形式이 잇다 藝術家들은 各自의 創作的 形式을 發見하려고 애를쓴다。그렇나 大體로는 우리가 傳統的으로 繼承하고 잇는 在來의 形式을 根本的으로 하야 거긔에 加減하게 된다。

萬一 어떤 藝術家에게 獨自의 創作的 表現方法이 잇다고 해도 有機的 社會生活을 하고잇는 人間들은 그것을 理解하지 못하는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過去를 되푸리하며 모든 遺傳的 事物을 重大視하게 된것이다。

○

이제 英文學上에서 形式에 對한 硏究를 되푸리 하자。그러나 作品의 內容을 說明하지 않고 形式에 對한다는것도 困難한 일이다。

이때문에 筆者는 다만 英文學上에 諸形式을 아옽라인하야 그 特徵과 定義를 參考한대로 論擧함에 끟지려고 한다。

○

英文學形式의 아옽라인은 總括的으로 아래와 같이 할수 잇다。

### OUTLINE OF LITERARY TYPE

- (1) Narative Poetry
  - Great epic
  - Metrical romance
  - Ballad
  - Metrical tale
- (2) Liric Poetry
  - Ode
  - Sonnet
  - Elegy
  - Song—Sacrad & Secular
  - Simple lyric
- (3) Dramatic Poetry
  - Comedy
  - Dramatic history
  - Tragedy
  - Mask
  - Dramatic monologue

(4) Minor Forms of poetry
- Descriptive poetry
  - pastoral
  - Idyl
- Didactic poetry
- Satiric poetry

(5) Prose Drama
(6) Essay
(7) Prose Fiction
- Prose allegory
- Prose romance
- Tale of adventure
- Novel
- Novelette
- Short-story

(8) Oration
(9) Miscellaneous prose

以上과 같이 分類하고 簡單한 例를 들어 그 性質과 定義及 形式의 範圍를 概論하려고 한다。

### (1) 叙事詩 (Narrative Poetry)

叙事詩 가운대에는 四種으로 다시 그內容과 性質을 定義하나니 (一) Great Epic (二) Metrical Romance (三) Ballad (四) Metrical Tale 等으로 細分한다。

(一) Great Epic

그레읻•에픽은 詩가운데 가장 雄大한 形式을 말함이다。그것은 長篇의 叙事詩로서 한 國家나 民族 나가서는 全人類를 背景으로하야 노래한것을 이름한다。
「그레읻•에픽의 가장 重要한 特徵은 過去를 背景으로하고 一國家 一民族의 文化 宗敎 神話 等을 叙事詩의 形式으로서 著作하는것이다」(一왙一)

例하면 호머一의「읠리앋」「아디쎄이」 딴톄의「神曲」 밀톤의「失樂園」等이다。

에픽을 다시 두가지로 分類할수 잇으니 즉 文學的(Literary)에픽 과 通俗的(Popular)에픽이다。例하면 밀톤의「失樂園」딴톄의「神曲」等은 文學的 에픽이요 호머一의「읠리앋」「아디쎄이」는 通俗的에픽이다。

英文學上에 最初作品으로 「Beoulf」「Derdre」等의 通俗的에픽이 七世紀에 著述되엇다。

(二) Metrical Romance

메트리캘•로맨스는 戀愛 特히 武士의 戀愛를 長篇 叙事詩形으로 노래한것을 이름한다 그러나 이 形式은 韻律을 特徵으로 하는것이 에픽의 形式과 다르다。
「아一셔一王의 이약이」가 著述된 後로붙어 많이 流行되엇으니「Alexander the Great」「Robin Hood and his Merrymen」等의 作品이 十四五世紀間에 盛하엇엇다。

(三) Ballad

밸랃을 民謠라고 譯名해도 좋을것이다。밸랃도 叙事詩部門에 屬한것인데 그 形式의 特徵은 四節로 되고 每第二節과 第四節은 韻律을 맞훈다。또한 라임을 要求한다。

朝鮮에 「새타령」「山타령」等의 여러가지 民謠가 地方마다 잇는것 같이 여긔에도 「Cow-boy Ballad」이니 「山노래」等이 잇다。

빨랃은 朝鮮의 民謠와 같이 大體로 口傳하는 노래로 되여잇다。著述로 創作된것은 文學的一或은 模作一빨랃이라고 한다。

"The Two Sisters" "The Cruel Brothers" 等이 著名하다。

(四) Metrical Tale

매트리칼•테일도 叙事詩의 一種으로 매트리칼•로맨스와 꼭 같은 形式으로 創作하나 그보다 짧은것을 이름할뿐이다。

매트리칼•테일의 作家로는 초서가 有名하다。초서의 "The Canterbury Tale" 노이스의 "Tales of Mermaid Tavern" 等이 有名하다。亦是 十四五世紀에 많이 盛하엿다。

### (2) 抒情詩 (Lyric Poetry)

抒情詩는 詩의 極美를 가진 形式이다。單純한 詩形을 말함이니 短形이다。

抒情詩의 特徵은 作者의 經驗 像想 情緖等을 主觀的으로 表現하는것이다。 이때문에 詩人이 小說家보다 讀者들의 寵愛를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도 詩의 生命은 作者의 主觀的 情緖의 表現이니 讀者는 詩人의 想心속으로 끄을리어 들어 偉大한 感情을 同感하는것이다。

在來의 抒情詩는 韻律을 必要로 햇으나 現代에는 自由形을 取하는이도 많다。

(一) The Ode

오드는 短詩形의 抒情詩로 가장 熱情的 무드를 生命으로 한다。이것이 그릭時代붙어 繼承한 古形詩이나 十八九世紀까지 盛行하엿다 그韻律에 잇어서는 不規律이어서 長短의 隨意를 가젓다。

밀톤의 "On the Morning of Christ's Nativity" 쉘리의 "Ode to the West wind" 等이 有名하다

(二) Sonnet (小曲)

小曲은 十四行으로된 抒情詩다。어느 때나 十四行의 規律을 가젓다。

前部 八行을 Octave라고 한다。여긔에 詩想과 情緖를 담는다。그러고 後部 六行을 Sestet 라고 한다。이 後部六行에서 結想을 짓는다。또한가지 小曲의 特徵은 라임 (rhyme) 을 ABBAABBA 로 Octave 의 八行을 맞히어야 한다。例하면――

**Milton's sonnet on his bliudness**

When I consider how my light is spent (A)
Ere half my days in the dark world and wide (B)
And that one talent, which is death to hide (B)
Lodged with me useless, though my soul more bent (A)
To serve therewith my Maker, and present (A)
My true account, lest he, returning, chide; (B)
Doth God exact day labour, light denide? (B)
I fondly ask. But patience, to prevent (A)
That murmur, Soon replies, God doth not need,
Either man's work or hisown gifts. Who best
Bear his mind yoke, they serve him best His state.
Is kingly; thousands at his bidding speed,
And past o'er land and ocean without rest;
They also save who only stand and wait.

每行 끝에 그 韻律을 (A)와 (B)로 表하얏으니 ABBAABBA의 라임을 알수 잇을것이다

이때문에 小曲은 매우 쓰기에 困難하나 쉑스피어는 이形式의 藝術的 價値를 좋아하야 百五十四篇의 小曲을 썻다。

(三) The Elegy (輓歌)

엘레지는 죽은사람을 吊喪하는 輓歌다。形式에 잇어서는 大體로 長短의 差異는 없어도 韻律的이다。

英文學上에 有名한 엘레지는 킷츠의 죽엄을 吊喪한 쉘리의 "Adonis" 同窓學友를 哀吊한 밀톤의 "Lycidas" 等이다。

(四) Song (詩歌)

詩歌(Song)는 抒情詩의 短形으로서 特히노래할수 잇는것을 이름한다。歌詞의 一定한 韻律을 가젓다。

詩歌를 質로 分하면 二種이 잇으니 即 聖歌(Sacred)――讚頌歌 (Anthem――와 通俗詩歌 (Secular)等이다。

詩歌作家로 有名한이는 쉑스피어 (主로劇詩中에) 토마스•무어, 테니슨等이니 일즉이 朝鮮서도「사랑하는 나의아들 언제나 도라오려나!」하는 무어의 歌曲이 流行하엿다。

(五) Simple Lyric (詩)

抒情詩中에 어느 分型에도 들지않는 單純한것을 詩라고 한다。이때문에 大部分을 單純히 詩라고 부른다。

### (3) 劇詩 (Dramatic Poetry)

劇詩는 古代 그릭 (500 B. C.) 에서붙어 繼承하엿나니 英文學上에서는 노-맨征服 (十一世紀) 以後에 盛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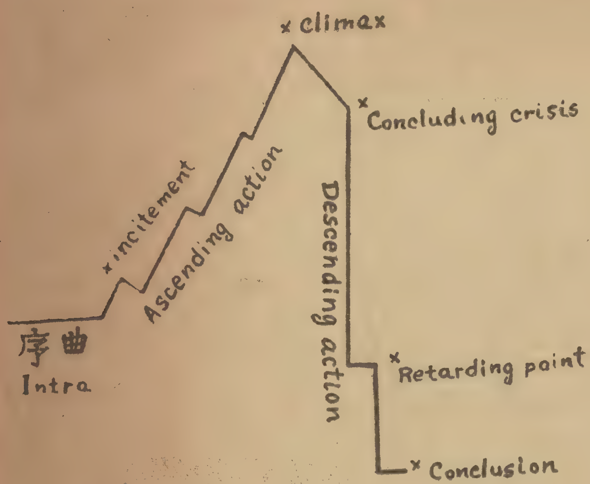
最初 英文劇詩의 發達史는 基督敎 運動에서 찾을수 잇으니 그때의 劇詩의 大部分은 聖書의 이약이 가운데서 그리여 내엇다。

例하면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誕生을 劇詩化함으로써 쉬게 第一步를 取할수 잇엇다。예수의어머니 마리아, 아이예수, 牧者들과 東方博士 其外에 天使들을 登場人物로 하게될것이다。

여긔에서 出發한 英文劇詩는 쉑스피어時代에와서 그 一極盛을 자랑하게 되엇으며 그 舞臺는 世界로 옮아 나간것이다。

劇詩를 質로 分하야 (一)喜劇 (二)史劇 (三)悲劇 (四)假面劇 (五)모노로그(獨白劇?) 等으로 區分한다。劇의 內容과 풀랕 (Plot)을 달리 하는것뿐이다。

悲劇에 잇어서는 大體로 두가지 풀랕을 使用하는것이 通例이니 하나는 生으로 指示하는것이오 또하나는 죽엄으로 指示하는 것이다。이것을 따이아그램으로 圖解하면 아래와 같다。




上圖를 分解하면 序曲에서 始作하야 上昇動作(?) (Ascending action) 으로 클라이맑스까지 演出하고 다시 下降動作(?) (Descending action) 으로 終幕을 맺는다。

이제 有名한 劇詩 가운대서 그 例를 보자。 쉑스피어의『베스니의商人』을 圖解하면 앤토니오가 公債에 署名하는 곧에서 劇의 內容은 Incitement 와 같이 上昇動作으로 出發한다。 이것은 장차 싸움이 이러날 可能性을 품고 잇는 때문이다。 솨일락이 앤토니오를 投獄함으로써 上昇動作은 그 클라이맑스에 達한다 앤토니오가 장차 어떻게될까? 여긔에 클라이맑스가 오를대로 올라간다。

그렇나 포티오가 솨일락에게 向하야「그대가 한斤의 살덩이를 앤토니오에게서 베일수 잇다。그렇나 萬一 한斤이 더되게 베든지 못되게 베든지 또는 한방울의 피라도 흘리는 때에는 너를 死刑할것 이다」하므로써 클라이맑스는 下降動作으로 急轉直下하며 危機는 解決 (Concluding Cricis) 되는 곧에 이른다。劇의 進行은 全혀 포티오의 動作으로 옮아간다。다시 솨일락에게「너의 生命을 罰받든지 너의 財產의 一部를 贈物로 바치든지 하여라!」이것으로써 다시 第二 클라이맑스로 還本 (Retading point) 한다。

솨일락이 要求대로 財物을 내놓고「나는 滿足이다!」라고 하는것으로써 이 劇詩의 終幕 (Couclusion) 을 告한다。

劇詩에對한 풀랕은 一二가 않이다 。參考的으로 그의 一을 圖解하엿다。

假面劇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古代에 많이 流行하엿다。現代에 잇어서도 얼마간 流行하는것이나 그 表現形式에 잇어서 넘어나 古典的이다。

假面劇의 特徵은 戲曲的 (Dramatic) 인것보다 歌劇的 (Operatic)이다。藝術的 舞臺裝置와 背景으로써 매스크를 쓴 俳優들이 登場하야 詩보다도 노래 音樂 舞蹈等으로 表現하는것이다。

모놀로그 (Monologue)는 一人役으로된 獨白劇이다。詩人自身이 出演하야 動作도 하고 詩歌를 調子잇게 自吟하는것이 常例이다。

獨白劇으로 世界的 名聲을 가진 詩人은 으라벌트 • 뿌라우닝이다。그의 "My last Duchess" "The Patriot" "Saul" 等外 數篇이 傑作이다。

### (4) 小形詩歌 (Minor Forms of Poetry)

以上 三大部門에 類屬하지않은 小形의 詩歌를 指稱함이니 我歌等이 그것이다。質로 나누어서 諷刺詩等으로 區別하기로 한다。別로히 論述할것이 없다。

### (5) 戲曲 (Prose Drama)

散文으로 劇作한것을 戲曲이라고 하나니 現代에도 東西洋에 없이 流行함을 우리는 본다。

### (6) 에쎄이 (Essay)

에쎄이를 東洋에서는 大體로 隨筆이라고 譯名한다。其外에 隨想文이니 感想文이니 即感錄 片想錄 默想錄이니 하는 모든 形式이 다 에쎄이의 部門에 類屬할것이다。

에쎄이가 最初로 出現한것은 佛蘭西의 著述家 몬태인의 "Essais" 를 一五七一年에 出刊한것으로 비롯햇다。

에쎄이라는 말은 作者가 생각하는 무엇을「보혀주고자 하는」意味「말하고자하는」意味다

에쎄이는 散文體로 著述하나 그 文體에 잇어서 매우 情的이며 詩的인것을 生命으로 한다。그러고 內容에 잇어서 一定한 規定이 없음으로 없엇으므로 어떠한 事物에對하야서든지 作者의 觀照하는 바를 主觀的 立場에서 叙述한다。

人生에 對하야서던지 宇宙에 對하야서던지 作者 自己의 主觀的 論理를 藝術的으로 乃至 詩的으로 叙述한다。이때문에 에쎄이는 史的 叙事的 評論的 宗敎的 哲學的 等等의 內容과 性質을 가질수 잇다。

一言으로 말하면 科學的 論法보다 文學形式으로 取하야 쓰는것이니 詩와 마챤가지로 作者의 主觀的 情緖를 讀者에게 옴겨주는것이다。

大體로 詩人이나 小說家를 莫論하고 모다 에쎄이를 좋아하고 많이 쓰는것도 그 主觀的 論法이 가장 自由로운 때문이다。

散文體의 自由形에서 詩的形式을 取한 에쎄이는 또한 템(Theme)의 選擇을 自由로 하기때문에 에쎄이는 今日까지 多作이며 多數의 에쎄이스트가 出世한것이다。

英文學上에서 著名한 에쎄이스트를 들면— Bacon을 비롯하야 Addison, Steele, Lamb, Hazlitt, De Quincey, Macaulay, Carlyle, Ruskin, Thackeray, Arnold, Stevenson 等이며 現代 에와서 Benson, Chesterton, Van Dyke 等이 有名하다。

에쎄이를 읽는 맛이 가장 讀者의 興味 가잇다。우리는 그들의 에쎄이에서 그들의 高尙한 思想과 感情을 同感할수 잇는 것이다。

촬스램의 에쎄이를 읽는中에 "High thinking; Plain living" (高尙한理想 平凡한 生活)이라는 文句는 아직도 記憶하며 늘 생각하게 된다

### (7) 散文物語 (Prose Fiction)

散文物語中에는 (一)比喩小說(Frose Allegory) (二)Prose romance (三)冒險物語 (四)小說 (五)短篇小說 (Short Story) 等으로 區分한다。

(一)比喩小說　가장 劃世紀的으로 出世한 比喩小說은 一六七八年에 出刊된 뻔얀의 "Pilgrim's Progress" (天路歷程) 이다。

比喩小說은 作者의 現實感보다도 未來에 對한 想像을 더욱 重要한 內容으로 한다。

現代의 戱曲 小說等에서도 質로써 分하야 寓話 諷刺劇 諷刺小說等으로 區別할수 잇다

(二)散文로맨스　로맨스라는 形式은 韻文體이든 散文體이든 그 性質에 잇어서 武士의 戀愛等을 內容으로하야 쓴 物語를 指稱한다

散文로맨쓰는 散文體로 쓴 로맨스다。散文로맨스의 著名한 作品은 모—스의 "Utopia" 시드니의 "Arcadia" 等이다。十四世紀로부터 十六世紀까지 그 極盛을 보앗다。

(三)冒險小說　冒險小說은 主로 로맨스를 創作하는 곧에서 一步나가게된것이니 作者의 想像力으로 構想하야 創作한것이다。

世上이 잘 아는것으로 떼뽀의 "Robinson Crusoe" "Capitain Singleton" 等과 近代에는 투웬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스티뿐슨의 "Tresure Island" 킾플린의 "Kim" 等이다。

(四)小說　短篇小說等은 現代에 우리가 가지고 잇는 小說이다。

### (8) 雄辯文 (Oration)

政治 社會 學術等을 辯論하는 政治 演說 學術講義 宗敎演說 等等을 成文으로 著述한 文獻이다。

### (9) 散文雜錄 (Miscellaneous Prose)

以上 아웃라인한 部門에 들지 않는 散文形의 文獻을 말함이니 自叙傳 傳記 日記 紀行文 歷史 스켓취 쩌—널 書簡文 等等이다。

## 論　　尾

英文學上에 形式을 매우 簡單히 아웃라인하야 그 小旨나마 論擧하엿다。그렇나 紙面關係로 一一히 分析하고 論證하야 그 表現方法의 美學的 硏究를 加하지 못하는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

먼저 이 論題를 擇할때 다맛 英文學의 形式 一般을 아웃라인하는것으로써 끝지려고 한것이 않이요 各部門의 形式을 論究하야 朝鮮의 新文學形式과 比較硏究하려고 하엿다。그렇나 時間과 紙面關係로 밀우어두고 차라리 朝鮮文學家 諸氏에게 이 問題를 付托하려고 할뿐이다。

○

朝鮮의 新文學의 形式이 直接 或은 間接으로 西洋文學의 形式을 輸入한것이 많다고 할수잇으니 우리는 文學形式에 對한 一般的 硏究를 速히 힘쓸 必要가 잇다고 生覺한다。

○

例하면 朝鮮 或 日本에서「小曲」「散文詩」等等의 述語를 使用하는대 그것이 英文學形

式의 譯名이라면 그 內容에 잇어 相違되는 點이 잇을것이다。

三四行의 짧은 抒情詩를 「小曲」이라고 命名하는 사람이 잇으나 英文學上에서는 上論한 바와 같은 小曲의 固定的形式이 잇기 때문이다。萬一 東洋固有인 形式이라면 無關할 것이다。

『散文詩』 라는것도 誤謬的 文字이다。散文(Prose) 이 韻文(Verse)에 相對意라면 散文은 詩(韻)가 아닐것이다。차라리 「自由詩」라고 하는 것이 正當할가 한다。

○

朝鮮에는 아직도 에쎄이 作家가 稀貴하다

에쎄이는 大體로 一般이 좋아하는 讀物이며 또한 누구나 쓰기에 自由로운 形式이다

朝鮮書籍을 많이 對하지 못하지만 特히 에쎄이를 많이 읽을수 없는것이 遺憾이다。

梁柱東氏의 「文藝時代」에 실리엇든 『隨想錄』(?) 文藝公論에 실리엇든 『人生•藝術•雜感』과 李光洙氏의 『病語錄』『나의屬할類型』『默想錄』等은 二三讀의 興味와 價値가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쎄이가 詩와 같이 가장 우리 思想과 情緖를 高尙하게 하는것이다。그때문에 에쎄이스트는 高尙한 思想과 人格을 具備하여야 한다。

近來로는 카떼──모뽀──모껄等等의 에쎄이스트가 많이 나오나 그들의 思念과 關心이 좀더 高尙한 곧으로 들어 가기를 바란다。

○

에쎄이가 萬人萬讀의 價値와 興味가 잇는 形式이나 아직도 朝鮮文壇에 에쎄이 單行本이 一卷도 없음은 遺憾이다。文學形式上에서 에쎄이를 朝鮮文壇에 注文하나니 앞으로 많은 에쎄이스트들이 出演하야 「朝鮮心」을 노래 하기 바란다。

○

紙面關係로 이에 擱筆하기로 하고 文學形式 研究에 對한 萬一의 參考라도 잇으면 하고 바란다。 一九三二年夏休

──쀨래델쀠아 學窓에서──

(七十九頁에서繼續)

羅城 우리社會의 復興과 統一을 할者도 그들이며 敎會를 振興할者도 그들이며 實業을 旺盛케할者도 그들이다。

羅城自體의 名有한것과 羅城과 朝鮮人과의 關係의 有名한것을 말햇거니와 다시 羅城에잇는 朝鮮人自體의 有名한것을 쓰기로 하자。

첫재 菜蔬장사가 많기로 有名하며 둘재 處女들이 많기로 有名하며 셋재 黨派心이 많기로 有名하다。

大槪 紐育은 空中으로 建物이 올라가지만은 羅城은 地面으로 建築이 넓어진다。이것은 地質의 關係 幅員의 關係일것이다。늘어가는 羅城의 人口 發達되는 羅城의 商業 앞으로 世界的 都市를 말하는이도 잇다。世界的 都市는 羅馬에서 巴里로 巴里에서 倫敦으로 倫敦에서 紐育으로 紐育에서 羅城으로 羅城에서 上海로 옴겨갈른지도 모른다고 한다。現下 世界的都市인 紐育이 언제 羅城으로 讓步할른지? 上海는 언제나 世界的 都市가 될라는지 興味잇는 問題다。問題는 다만 年代問題 時間問題일것이다。

흐르는 時間은 벌서 내가 南國 羅城에 발길을 머문지 一年을 지낫다。轉々의 米洲生活은 東으로 西으로의 漫慢을 거듭하고 잇다。年々歲々花相似나 歲々年々人不同이라드니 羅城은 歲々로 花不同人不同일다。해마다 氣候의 變更을 따라 꽃도 같지않으려니와 世態의 바꾸힘을 따라 사람도 같지않을 것이다。올림픽公園에 가을빛이 깊어지니 蕭々한 落葉은 장차 누구의 心緖를 散亂케하랴는지?

(一九三二，一〇，一二 도헤니圖書館에서)

# 羅 城 雜 感

문 장 욱

羅城(로스안젤레스)는 여러가지 有名한것이 많이 잇다。棕梠나무가 많은것도 有名하며 氣候가 늘 四時長春인것도 有名하며 海水浴場이 많은것도 有名하며 自動車數爻가 第一 많은것도(人口에比하여)有名하며 東洋人 排斥을 甚히한것도 有名하며 附近 石油類의 生産이 많은것도 有名하며 全市의 幅員이 매우 넓은것도 有名하며 윌손山에 世界 最大의 天文臺가 잇는것도 有名하며 雄壯한 스태듸움이 잇슴도 有名하며 그보다도 男女 俳優가 많은것과 映畵界의 覇權을 잡은 할리우드가 잇는것도 有名하다。一萬五千名의 學生을 收容한 南加州大學도 有名하며 그리고 무엇보담도 第十回 올림픽大會를 마지하고 기빼하고 보낸것이 有名할것이다。이러한 有名한것은 羅城 自體의 有名한것이려니와 우리 僑留同胞들과 一般學友들에게는 如何한 關係를 羅城이 맺고 잇는가? 棕梠나무가 많기로 우리에게는 別所用이 없을것이 事實이다。種々 美觀을 더해줄것뿐이다。果實과 菜蔬가 많은關係로 在留同胞들의 菜蔬商을 經營하는분이 많으며 大部分 斯業에 從事한다。氣候가 溫和하기는 하지마는 昨年以來로 激變하는 狀態이며 五十年來로 처음 눈이 오는等 앞으로 四時長春을 못보리라고한다。海水浴場이 많은關係로 각금 海風을 쏘이며 海景을 賞준적이 많을것이다。數많은 自動車이지만은 苦學하는 우리들은 別로 使用할 餘裕가 없으며 다만 步行의 障碍가 될뿐이다。實業同胞들은 그래도 한집에 一臺以上의 自動車를 가진것이 事實이다。市街가 廣闊하고 市電의 敷設이 不便한 關係上 不得已 自動車를 두어야 할것이다。市街가 넓지만은 우리는 집을 가진이가 없으며 天文臺가 크지만은 우리는 利用하는이가 없으며 스태듸움이 잇지만은 우리의 所有가 아니다。東洋人에게는 집도 房도 아니빌려 주겟다고하는 羅城양키들이지만은 敎育을 本位로한 南加州大學에는 二百名以上의 東洋學生이 잇다。할리우드가 有名하나 우리 俳優는 하나도 없으며 映畵界에 參加한것도 도모지 없다。올림픽大會는 市民의 歡迎과 大衆의 趣味를 더해주며 따러서 우리 二世國民 그들에게 好個의 資料를 남겨주고 간것이다。

量的 質的으로 發展의 途中에 잇는 羅城은 年來로 在留朝鮮人을 吸收하며 現下 七百餘名의 多數에 達한다。하와이를 除하고 米國에서 第一많은同胞가 살며 따라서 많은 實業同胞를 가젓다。極少數를 除한 外에는 다 自營生活을 維持하는것이 米國 다른곧에 잇는 그들보다 다른點이다。

敎育上 經濟上 交通上 便宜로 羅城에 몰려드는 同胞가 해마다 만하짐을따라 各種團體들도 많음을 알수잇다。國民會 興士團 同志會 共同會 ××婦人團 女子靑年會 學生會 靑年會 二八클럽等이 잇다。長老敎와 監理敎의 두 敎會가 잇으며 國語學校 主日學校가 잇다。다시 羅城同胞의 實業狀況을 紹介하면 雜貨商이 約二十五 菜蔬商이 三十五 洗濯業이 六 自動車運送業이 六 料理業이 五 農業이 四 旅館業이 二 醫師가 二 勞働紹介業이 二 理髮業이 一이다。

이제 學生界를 살펴보자 南加州大學을 中心으로하고 널려잇는 大學生이 一九三二年에 二十二人의 多數에 達햇으며 팔리텍닉中學을 最高로하고 各校에 在籍한 中學生이 六十餘名에 이른다。中學生 全部는 此地出生의 朝鮮人인 米國人이지만은 大學生中에는 겨우五人이 米國出生이 잇다。그外 朝鮮서 건너온 留學生들이다。그럼으로 漸々 二世靑年들 大學生이 앞으로 많아질것을 믿으며 바란다。그들은 米國市民임으로 州立大學에 授業料의 免除를 받을수 잇고 다 自己 집에서 宿食하게됨으로 食과 住의 難關이 없다。뿐만아니라 米國生長임으로 英語의 困難은 조곰도 없다。멀리 太平洋을 건너온 苦學生과 比較하면 三倍四倍의 便宜가 잇지않은가? 그러나 그들의 大學在籍生이 적은것은 如何한 理由일가? 아직 年條의 淺薄한 까닭도 잇겟지만은 (一) 物質的 享樂을 조화하고 學術的 硏究를 싫여하는것 (二) 大學의學課를 어려워 하는것 (三) 目前의 便宜를 얻기 爲하여 商店 會社等에 就職을 希望하고 來頭 永久한 職業과 社會的地位를 顧慮치안는것 (四) 家庭敎育이 不足한것 等等일것이다。勿論 環境과 品格에 따러 다른 點이 많겟지만은 大體로 그들이 너무物質에만 注力한다 米國의 黃金勢力에 夢醉하여 四年동안을 더 學窓에 從事하는이보담 돈을 벌겟다는 것이다。小學과 中學은 米國의 强制的 義務敎育 임으로 맛처야만된다。以上은 大體로 말한것이지만 勿論 相當한 家庭에서 遠大한 抱負를 뜻하고 修學을 거듭하는 男女도 많을줄 안다。앞으로 더욱더욱 父兄들의 引導가 많기를바라며 따라서 二世靑年들의 覺悟가 넉넉하기를 힘것 企待한다。 (七十八頁에繼續)

# 時代意識과農民文藝

L. A. 醫科大學 李 廷 大

羅城에서 醫學을 硏究하는 君은 新興文藝協會 米洲社會問題 硏究會 米洲 黑風社等을 組織하고 盛히 同志를 糾合하야 將來할 조선의 新社會 건설運動에 多大한 誠意와 努力을 기우리고 잇다 한다。 ——編者——

時代意識이라함은 무엇인가 그 時代에서 要求하는 正當한 意識을 指稱함이다。따라서 우리 人生이 進行하는바 그 途程의 正路에 對한 意識이다。그러므로 決코 一時的 混雜한 狀態에 陷入한 行程으로서는 아니된다。무엇보담도 그 當代에서 適切히 要求하는 一般社會相의 時代的 意識에 對한 意識이다。

一般 社會相의 時代的 意識이라함은 但只 各時代相 即 各時代가 要求하는 特殊한 文明의 方式 特殊한 社會相의 描寫만을 指摘함이 아니다。各時代가 要求하는 理想要素 要求要素의 表現이 正當치 아니하면 아니된다。何故인가하면 人生의 進程에는 不絕한 變動이 發生되는 까닭이다。어떤 時代 어떤 社會生活에 잇어서는 一時的 固定狀態 一時的 休息狀態를 換起케되어 混頓狀態에 빠지게됩니다 이런때일스록 詩人 文藝家等은 그 時代相及 그 社會相의 理想要素, 要求要素에 注力하여 그 休息狀態及 混頓狀態로부터 當然히 正路를 指摘하여 進行치아니하면 아니된다。그進行하는 時代相의 理想要素에 對한 全任務를 다함이 비로소 그 時代相에 對한 適切한 時代意識이 된다。

時代意識에 對한 文藝家의 職務는 그 時代에서 要求하는 理想要素를 適切히 辯明하고 自我가 切實히 認識하여야한다。그것이 決코 個人的 立地로서는 아니된다。個人的 立地라하면 個人的表現과 個人的 行動의 自由에 不過하며 決코 文藝本來의 使命은 아니다。

그러므로 文藝家로서 眞正한 時代意識을 認識하엿다면 그 結果는 우리 一般이 가질바 現代社會에 對한 批評의 表現이다。則 現代社會의 明徹한 社會的 理想의 表現을 意味함이다。그것이 비로소 時代意識의 참된 理

---

## 米國留學生界 멍텅구리王國 巡禮記 (1)

### 破興된晩餐會

李XY君이 渡米한지 며칠후에 어느 敎授宅에 招待를 받어 晩餐會에 參席하게되엇다 없는 돈에 입든 洋服이라도 말숙하게 대려입고 定刻에 待命하니 豫想外에 이쁜 洋女 몇분도 同參하여 밥床에 둘러앉을 光榮까지 잇엇겟다。웬체 궐자가 조심성도 많거니와 수집은 村鷄 어마 어마한 만찬석에 앉엇으니 둥뒤에는 비지땀이 흘러 주체할수가 없어 몸을 조곰 움직이고보니 千만에 「냅킨」이 흘러 떠러질 危境이외다 한 손으로 슬적 革帶밑에 한조각 한끝을 집어 넣고 안심한 表情을 지어가며 무사히 저녁을 畢한후 자리를 옴기랴고 이러서자마자 왕그랑— 뎅그랑—밥상에 놓엿든 접시들이 땐스를 하며 땅바닥으로 떠러지면서 일만조각이 납니다 아서라 망신도 개망신이다 눈을 크게 뜨고보니「냅킨」이라고 꽂앗든 밥상보(褓)만이 원망스럽게 李君을 뚫어 오드라고

### 洪城森君의新式鷄卵

平壤外城兩班인 洪君도 미국와서는 모든 體面과 身分을 잠시 걸어놓고 行勢를 하기도 한두번이 아니엇다고한다 선생이 渡米하는 길이엇든 모양이다 하로는 시장이나 끄려고 西方 어느 洋餐館에 巨大한 몸을 나타냇엇다고 꽃 같은 洋女들이 주서섬기는 메뉴를 들엇자 하나 귀에 들어올 道理가 잇

想을 結果케한다。

何國이든지 最初 發芽期의 階段에 잇어서는 詩文이 先端이되여 詩人이 集中케된다。彼等은 先驅요 前衛者가 된다。아직 未成時代에 잇어서는 그 時代의 表現相이 劇이 主로되여 文藝藝術의 諸局面을 綜合케된다。그것을 組織的으로 具體的으로 다시 立體的으로 一個의 有期體를 만듦이 則 彫刻 繪畫 物語 批評 抒情詩 敍事詩 音樂 舞踊이된다。그리하여 이 藝術圈이 그 當代의 表現機關이 된다。이 表現機關은 大衆의 表白이 自由롭게 引導치 않으면 아니된다。

舊時 羅馬人等이 大陸의 南部를 征服하고 居住를 交換케되엇을 其間에 「로만스」는 彼等의 固有한 言語가 混雜케되어 純 라텐語는 없게되엇다。그 羅馬語로써 諸種의 物語를 著述케 되엇으니 그것이 則 「로만스」의 原始다 이 物語等으로써 巨人이 生生하여 各民族의 風習等을 記錄케되엇다。그 以後 文藝復興期가 發生되여 「로만스」의 代表는『돈•기프데物語』또는「프레」의『갈간지物語』等이엇다。近代에至하어 三大 「로만스」로써 指名함은 第一 「빅돌•유고」의 『레•미제러블』 第二는 「톨스토이」의 『戰爭과平和』 第三은「로만로란」의 『잔•그리스도』等이다。그리고 누벨이라함은 伊太利語의 「노베라」로부터 始作되어 「돌바돌」輩等이 새로운 事實 새로운 物語 또는 想像上의 事實 歷史上의 事實을 蒐集하여 趣興的으로 노래하엿든것이 到處에 傳播되기 始作하엿다。則 그의 「봇가지오」『十日物語』「말그릿드」女王의 『七日物語』等 作品은 近代初期의 代表的이라고 볼수잇다。十九世紀 以後로부터서는 그것이 所謂 新小說로 發達케되엇다。以上의 此二種類를 今日에 至하여 比較하여 보면 로만스는 一層 廣汎한 時代相 社會相 文明批評 民國性의 比較 그것을 包含하엿으며 누벨은 狹小한 個人心理의 交錯 個人身邊의 事象을 斷片的 또는 連續的으로 描出하엿다。則 前者는 衆人生活的 觀察이요 後者는 個人生活的 觀察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만스」와 같이 衆人生活的 觀察點인 時代相의 理想要素를 要求한다。 그것이 則 時代的 正確한 意識을 意味함이다。

우리는 時代意識에 符合한 新時代的 文藝表現을 要求한다。우리는 從來의 누벨과 같은 狹小한 個人心理的 描寫를 主로한 文藝를 埋葬하고 新時代가 要求하는 現代社會相의 表現인「로만스」와 如한 新興文學 則 大衆文學을 要求한다。이것이 則 時代意識에 對한 徹底한 大衆文藝다。

그러면 現下 朝鮮의 大衆文藝는 무엇인가?

---

옵니까? 잰나비 불기짝 같이 얼굴이 벌개서 앉엇으니 六月장마통에 맥없이 나리는 녀름비 같이 니마에는 구슬땀이 떼구르르!

光成학교를 다녀 英語字나 배운친구지만 하도 慈悲한 洋女들의 몰아치는 바람에 氣가 질려ABC도 생각이 안돕니다。사뭇 배도 고프거니와 「웨트레스」의 待令도 잇어最後手段을 쓰게되엇으니 독자여 勿驚하소서 氏의 新案 鷄卵은 까딱하면 못보는 요술 즉 코를 잡고 한손으로는 꽁문이를 탁탁치고 나니 명리한 洋女라서 생각햇든 삶은 계란 두개를 진상하여 及其他 科擧及弟가 되엇다고

## 鄭애경女史의報恩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언정 다른이의 身勢는 안지기로 이름난 鄭女史 한번은 世界的 大都市 뉴욕에 와서 슬마리아孃과 地下鐵道인「섭웨이」를 타고 「타임스스패어」까지 同行하게되엇다。 정거장에 가자마자 金양이 白銅錢 두分을 꺼내여 自動式 賃金內入機에 넛는것을 볼때 참으로 未安千萬 何如間 한점을지난후 豫定하엿든 곧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거미줄 같은 交通網地帶 어데가 어덴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는 번잡한 곧이라 金양을 다거서서 딸어가노라니 機會는 오는구나 처음에 보든 賃金收入機가 반갑게도 나타납니다 。이번에까지 金양이 車값을 내서야 體面에 되랴 어시호 주머니에서 五仙자리 두닢을 꺼내들고 다름질을 처서 두分을 뗑그랑하고 잡어넌후에 多少 安心한 낱으로 金양을 돌아보며 손짓을 하엿지만 아서라 失策이다 。나아가는 손님은 車쌊을 안내고 나아가는것을 發見하게 될때 픠하게 되엇다고 한다。

## 韓昇寅君의誤入

君이 洋國집 행랑사리하든 시절의 逸話라고나할까 却說 하로는 젊은 主人마님이 週末旅行을간다고 宣言하며 집이나 잘지키라고 下命한후 作別을 하엿다。학교를 다녀온君은 저녁을 먹고나서는

朝鮮人口의 七八割을 占領한 農業國인 農民文藝다。則 換言하면 朝鮮은 農民國인 同時에 農業國이다。朝鮮을 富强케함도 이 農民等이요 朝鮮을 貧弱케함도 이 農民等이다。우리의 歷代先祖等은 擧皆다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朝鮮의 三千里를 東으로부터 西로 南으로부터 北으로 方方 谷谷을 다 開墾하엿다 우리는 彼等의 敎訓下에 培養된 農夫兒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基本生活土臺인 農民文藝를 尊重視하여야 할것이며 彼等의 吟詩 頌歌를 硏究하여야 할것이다。그것이 則 農民環境에 適切 且緊要한 文藝일것이다。우리는 그렇한 文藝를 提供하는 同時에 彼等과 同苦同樂으로 生死를 같이하여야 할것이 現代 우리 文藝家等의 職務이다。簡言하면 一般文藝家等은 뿌르조아지의 利己的 産物인 藝術을 爲한 文藝及 其象牙塔을 떠나서 吾等 無產大衆이 要求하는 大衆文藝 特히 朝鮮에 處在하여서는 農民文藝를 要求한다。

農民生活이 文藝中에 現出되기는 數百年間이다。佛蘭西의 「졸•주」「산도」의 主情的 소시알리즘의 田園小說이 出世된 以來 或은 발작의 未完의 傑作『田舍者』(1844年)이 出世되엇으며 英國의「졸주•엘니엇•도마스『하이데』가 出現되엇다。露西亞에서는「툴게네프」「톨스토이」가 農民生活에 注重하엿다。「톨스토이」는 그의 晩年의 慰藉를 農民으로부터 求하엿다。眞實로 우리는 大自然을 相對로하여 勇敢하게 苦鬪하는 農民 勞働者의 眞價를 알수잇으며 그 眞價가 얼마나 高貴함을 알수잇다。

新天地는 田園으로부터 展開된다。따라서 新世界는 恒常 田園의 氣焰을 經過하여 完成된다。有名한 田園文藝作家「플데난•포풀」「프보이욘」「도리에•줄」「루날•또한루네」「바잔」을 不顧함은 彼等의 藝術價值보담 오히려 이것이 田園作家이엇든 까닭이 아닌가? 그리하여 佛蘭西文學이 都會文學과 같이 생각함은 都會病에 걸린 까닭이다。

田園은 都會의 革新을 完成시킨다。그리하여 그革新을 完成시키는 者는 田園人等이다 佛蘭西人의 自國의 誇語는 이것이다。「佛蘭西의 富는 田園에잇다」고。果然이다 우리 朝鮮의 富도 朝鮮의 田園에잇다。우리 朝鮮의 富를 우리 農民의 손으로 開拓하여 完成시켜야한다 우리의 新世界는 朝鮮의 田園에 잇다。우리 文藝의 新世界도 朝鮮의 農民文藝에잇다。

朝鮮의 農民藝術은 農民에 依하야 農民을 生活케한 新文藝가 아니여서는 아니된다。朝鮮의 우리 文藝家 諸氏는 現代의 時代意識을 잘 認識하는 同時에 現代 大衆이 要求하는 大衆의 特殊要件인 農民文藝에 注力하여야 할것이다。

---

밤이 늦도록 工夫해놓고는 元山親舊에서 片紙장까지 다 마치고야 침상에 갓으니 밤도 어지간히 늦은 時節이엇을것이다 未久에 總督府에 出入할일이 생겨 감기는 눈을 비벼가며 니러나 事務打合까지 한후 房으로 도라오는길 길은—— 三萬里 구름밖에 迷宮으로 들어 自己房이라고 들어가 無心코 다리를 걸처놓고보니 奇想天外 꿈이냐 現實이냐 짜르르한 ××에 精神까지 혼도될 至境이외다。벌덕 精神을 차려 도라보니 旅行갓다든 꽃같은 主人마님이 괴로한 몸을 담그고 꿈의 世界에 헤매는 所謂 「매담의 뻬트」엿다고 한다。에라— 젊은 氣運에 一時的 誤入이니 용서해주기로 하자。

## 李昌熙君의逢變

新渡生君이 加州에서 初학訓長노릇한 여먹에 돈百弗이나 꽁문에 차고 학교로 나려가는 길이엇다 하도 긴 旅行이라 과도한 괴로와 路毒으로 인해 萬不得已 어느 旅館에 들어 괴로한 몸을 안고 괴로운 잠에 쌓엿엇다 。

深夜三更 깊은 밤중 分明히도 「또아」를 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리 꿈나라 저—먼 世界에서 들려 옵니다。꿈인가 의아해서 다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아니나 다르랴! 또렷한 現實이요 자긔 房門을 똑똑 거듭다시 뚜다립니다 。

불이야 불이야 옷을 대강 주섬주섬 걸처놓고 門을 잡아제치니— 아서라 油頭粉面의 二八美人이 妖艶한 웃음을 먹음고 秋波만 넘기고 섯읍니다 。하도 어이가없이 멍—하니 바라보고만 섯으니 厥女는 일이 成功이나 된줄알고 밧작대들어 말하니 危急卒亡之秋가 臨하엿다。

原體 고집이 세기로 有名한 先生 우리나라 道學者 샌님式으로 女人을 붓들고 呼令하며 退場을 强要하고보니 일인즉 커젓다。별통을 침노한격이지 선생의 失策이다。해죽해죽 웃고섯든 厥女 今時에 怒氣보다도 殺긔가 등등하여 대들며 한바탕 해대랴고 時期를 엿보고섯다。하도 긔가 막혀 섯든 李君 厥女의 報讐戰을 하려고 攻勢를 取함은 態度를 制先하여 슬적 등을 멀리 내몰고 또아를 닫어매고 나니 등뒤에 선지땀도 땀이지만 밖에선 厥女의 욕사발과 저주의 洗禮에 정신까지 없엇다고 。

# 故友崔敬植兄을追悼하노라

뚝大學 盧 在 明

人生 百年도 오히려 쩌르다거든 未滿三十 青春으로 永別의 訃音을 傳하는 故崔友의 哀事가 웬일고! 君去의 悵然도 無比어니와 吾族의 大失이야말로 참으로 難測일다。『有生早死無生可, 欲說傷心勿說宜, 埋爾青春山猶惡, 奪人獨子鬼無知』라는 古人의 읊은 詩句가 今日의 君去를 如實히 哀悼함이 아닐고! 아! 참으로 알수 업는것은 人生이오 쉽게 헤아릴수 없는것은 運命일다 아직도 나는 故崔友의 延專 時節을 歷歷히 記憶한다。學班에 들면 沈着한 就課熱과 探究力을 보이든 일을 나는 어느때나 닞지안는다 球場에 나서면 活潑勇鬪하든 그일과 學生들과 어울려 眞摯多情하든 故崔友를 나는 닞은 적이 없엇다。又況 半十年의 긴 歲月을 하로같이 꾸준이 勞力奮鬪하든 故崔友의 留米學窓生活을 海外에서 目擊하엿음이랴? 君이 西北大學에 잇을제 미쉬간湖畔으로 나를 案內하며 該大學의 各般 設備를 說明하든 일과 시카고 市內로 나를 引導하며 該市가 社會學 研究의 中心地帶임을 說破하든일을 나는 다시금 回想하노라 君은 그처럼 社會學研究의 大必要를 느끼고 着實하고 有望한 篤學의 大勳을 쌓든 稀貴의 學究가 아니엇든가! 君이 건널든 미쉬간湖畔에는 青草만이 실음없이 우거젓고 시카고大市에 자욱히 덮힌 黑烟은 君의 누은 무덤 가으로 往往히 지나칠뿐이다。故國을 다시 밟지못하고 異域江山에 一墳土에 묻힌 몸이 이 웬일고! 아! 地下에 깊이 잠든 崔友이어! 어찌 그리 速한 거름을 지엇는고! 비록 人生은 苦海라기로 그다시 速히 떠날것이 무엇인고! 涙谷과 荒涯에서 좀더 참고참아 남어잇는 벗들과 손붓잡고 쌓든 塔을 마칠것이 아니런고! 나는 君의 마즈막 쓴 詩句를 읽고 몹시도 애처러워 울엇노라 君이 永眠을 짓기 몇날 前에 君의 病床에서 이런 글을 쓰지 않엇는가?

「외로운 房 病床에서
님조차 없으시니 千里萬里에 잇는
어머님이 그리웁다。
自手로 運命을 開拓코저
악을 써서 일한 結果
이 몸에 病을 얻엇으니
失敗냐? 成功이냐?
兵士가 戰爭에 싸우다가
負傷도 常事러니
나 어이 失敗라 自嘆하리오
• 義務라 勇士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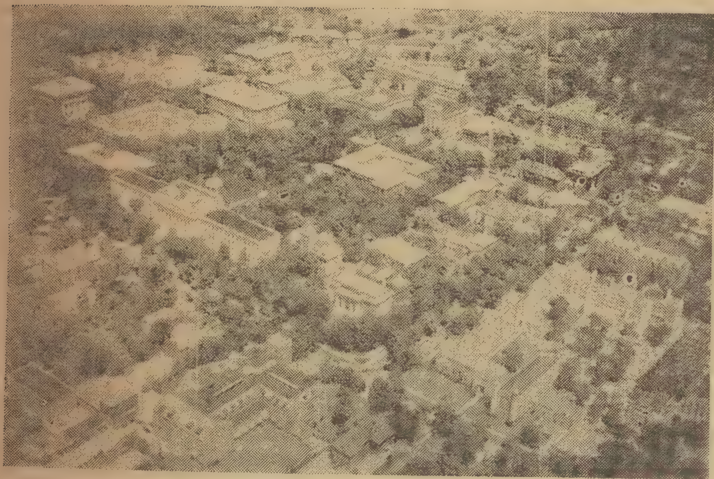
이처럼 눈물겨운 노래를 쓰든 그의 情景이 얼마나 가엾은고! 片母膝下를 떠나 萬里海外에서 最善을 다하야 奮鬪努力하든 君의 高貴한 理想과 實踐이 一朝에 虛事될줄 뉘알엇는고! 數十星霜을 애쓰며 쌓든 君의 공드린 塔이 霎時에 믈어짐은 너무도 앗가운일이다。君의 永眠은 各面으로보아 大損일다。生存하신 君의 慈堂끠 참어 못할일이오 남어잇는 君의 벗들에게 너무도 큰 失望을 느끼게하엿고 吾族期待의 大失을 지엇다。

이에 君의 靈을 追慕함에 눈물지을뿐이오 長恨과 短嘆으로 君의 急去를 애닯이 할뿐일다。苦海와 涙谷을버서난 君의 靈은 길길이 平安하고 塵世에 남어잇는 벗들의 안타까운 追慕를 달게받으라 君이여 平和로이 瞑目하라 吾族更生의 曙光을 爲하야 奮鬪하는 君의 두고간 벗들은 後日의 光明을 期約하고 君의 靈前에 이 쩌른 哀辭를 드리노라 (1932, 10, 16)

## 美國大學巡歷記 (4)

# 미쉬간大學 (The University of Michigan)

미쉬간大學 P 生



미쉬간大學全景

自動車王 헨으리 聖어드工場의 所在地로 이름난 떠투로잇 미쉬간에서 西便으로 約四十哩를 가면 여러 百年을 두고 자란 느름나무 숲속에 쌓여 조을고 섯는듯한 적은 都市가 잇으니 이곧이 미쉬간大學의 所在地로 알려진 앤아보이외다。

원치 大학을 中心하고 新興한 都市라 工場이 없는것이 特色의 하나요 다음으로는 언케나 淸新한 느낌을 주리만큼 都市가 정결한것이 두말할것없이 자랑의 하나일것입니다 學生의 긔관인 유니버시티 삘딍우에 올라가 四方을 굽어보면 왼都市가 욱어진 숲속에 한가히 잠자는 느낌을 주리만큼 詩的이요 도로혀 牧歌的 詩興을 던커줍니다。氣候는 우리나라 西北의 그것과도 흡사하여 寒暑의 差도 甚하고 自然의 美도 손색이 없읍니다。

이 미쉬간大학의 誕生은 1817年8月26日이외다。當時에 州立大學의 必要를 느꼈든 知事以下 有志들이 會合하여 이 大학의 設立을 보게 되엇으나 어린이 그 時節은 띄트로잇市에서 자라다가 1837年3月20日에 學校를 移轉하고 校勢를 擴張하여 그야말로 長足의進步를 보게되엇읍니다。

오늘의 一萬二千四百七十名의 男女學生과 八百三十三名의 大學敎授團을 擁한 世界的 學府 어느 方面으로 보나 嘆賞의 對象이외다。이제 今年度 財產調査表에 依하면 이 大學에 속한 不動產과 備品이 四千九百萬弗을 超過한다는것을 보아도 그 規模의 巨大함을 可히 推察하고 남음이 잇을것이외다。이 밖에도 每年州에서 支出하는 經常費가 八百五十萬弗 (여긔는 大學病院 經常費 二百五十萬弗이 포함되엇다) 과 學生에게서 받는 授業料가 一百二十萬弗이니 巨昌한 이 大학을 解剖할 必要도 느끼지 않습니다。

各科에는 무론 三四名의 世界的學者가 잇어 미쉬간大학하면 스칼라스틱 스탠딩인 學究的 標準도 남어서 사양치 않은것은 이미 남의 定評이외다。

이제 이 학교의 體育施設이나 하나 더 말하고 끝을막자 宏壯한 體育館과 그 施設이란 都是 나로서는 記록할수가 없읍니다。그커 한가지 말을 남긴다면 누구든지 時間의 여유와 뜻만 잇으면 身體를 단련할수 잇도록 가즌 文化的 施設이 잇음이외다。親切한 코취의 指導와 文化的 設備 이것은 미쉬간大學의 한 異彩 그것이라고해도 過言은 아니겟지요

언젠가 이 大學에 工夫하는 어느 親舊가 이 大學의 運動方法과 그 施設을 보고 경악과 홈모의 눈으로 바라보며 故國에도 이렇한 시설을 언케나 하게될까 하며 한숨지우든 그 親舊의 感懷가 언케나 記憶이 됩니다。

이렇한 世界的 學府에 우리나라 男女學生 六七人이 억개를 겻고 世界男女들과 배우는자리에 서게된다는것도 생각하니 즐겁습니다。

# 金正基의日記 (前號續)

任 英 彬

多年 北米 어사스州 딸라스市에 잇는 南監理教大學에서 宗教哲學을 專攻하여 榮譽의 文學士及 哲學博士의 學位를 同時에 얻은 우리 學生界의 重寶이외다。—編者—

七月 十七日

나는 전차에서 비률빈 학생 한아를 만나 이런 이약이 저런 이약이 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것을 들엇다。

"You'll never be happy here!"

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새 진리가 갑작히 해석되어진것 같은 느낌을 받엇다。그리고 무엇이라 형용할수 없는 슬픔과 호젓함에 쌓이고 말엇다。나는

"That's true!"

하고 머리를 끄덕이엇다。나는 이 짧은 대답속에 무한한 감개(感慨)를 풍기어 놓엇다。

나는 더 말할 긔운도 없어지고 더 이약이 듣고 싶은 흥도 나지 않엇다。나는 꺼저가는것 같은 침묵에 들어 내 과거를 집씹고 싶엇다。이런 정조가 깊어가자 그 비률빈 학생은 "Goodbye!"를 부르고 차에서 나렷다。

나는 한숨을 쉬고 그의 말

"You'll never be happy here!"

를 되푸리하고 생각의 연감개를 풀기 시작하엿다。

같이 농하고 웃고 뛰고 텀비어도 늘 한격지 막힌것 같은 느낌을 잊을 때가 없다。

그들의 태도나 나의 마음에 숨여드는 기운이 나가『우리는 같은 피가아니다』하는것을 소리친다。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강도를 들으면 말끔 천사들이 된것 같지만 예배당 문 밖에 나아오기가 무섭게『너는 우리가 아니다。』하는 눈총을 맞는다。

셰게형졔친목회원인가 하는데 갓다。그회가 끝나자 비가 드렵다 온다。한 움큼 되는 우리 외국 학생들은 예배당 문간에서 바정이는데 젊은 남녀들은 웃으면서 자동차를 몬다。나는 한 큰 자동차에 단 둘이 타고 가는것을 보앗다。그러나 우리——셰게형졔친목회에 액샘풀과 왓던우리——들이 이 문간에서 어정대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엿다。셰게형졔친목회와 비오는때 자동차에 태워주는것은 전수 달은 일이겟지? 비엇오는때 자동차에 태워주지는 않드래도 셰게형졔친목회 이유는 없을것이다。

그렇나 나는 엇전지 그렇게 분석해 보기가 싫엇다。그래서 오다가 떠드는것 뿐이고

"You'll never be happy here!"

라는 빛갈을 드리우게만 된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겟지。

어느 날은 뉘네집에서 목사서껀 점심을 먹엇다。점심뒤에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기엇다 목사는 자동차를 몰아 나 잇는 곧 앞으로 지나갈 경우이라。그래서 그 딸이 나를 차에 태워 가지고 가면 어떻냐하고 그 아버지에게 뭇는다。목사인 그 아버지는 눈을 찡긋하면서『어서 올라라。』하고 엔진에 기운을 준다。나는 홈자 걸어 내 방에 왓다。

목사님이라는것과 자동차 태워 준다는것은 퍽 다른것이겟지(?)—자동차 아니 태워준다고 목사 노릇 못할것이 아니고 자동차태워준다고 목사아니가 목사 될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어쩔수 없이

"I'll never be happy here!"

를 불이짖지 않을수 없엇다。

기집에가 금방 내 혀끝을 물고 몸서리를 칠것 같이 궁굴면서도——아니 몸서리를 치면서도 한시간이 채 못지나 언제 보앗더냐 하는듯이 시침이를 똑 뗀다。그야 기집 애라 그렇기도 하겟지! 그렇지만 어쩐지 나는 싸늘함을 느끼면서

"I'll never be happy here!"

를 부르짖지 않을수 없다。

사내녀석들은 제게 상관이 잇을때에만 와

서 얼쭝대다가 회게가 다차면 멋없는 헤로만 불으고 것돈다。

그녀석들 틈에서 일할때처럼『너는 나와 한피가 아니다。』하는것을 절실히 느낄때가 없다。내가 조곰 잘못하면 그놈들이 것창이에 찌여들고 나고 그놈들 가운데 한아가 잘못하면 씁쓸하다。도대체 그놈들은 나를 도읍는 다는 정신이 적다。

살을 비여 먹을것 같은 친구가 금방 쓴 오이가 되여버린다。그래서 나는 어리둥절 해지고 만다。살 비여 먹일것 같은 때에 그 사람이 참 사람인지 쓴 오이로 변해지는 때에 그 사람이 참 사람인지 분간을 할수가 없어서。

괴기는 물로 새는 뫼로 나는 내나라로!

............................

九月 五日

오늘처럼 그리운정이 강해서는 살수 없겟다。

보드러운 남의 몸을 꼭 끼어안엇으면 하는 충동은 주린 이리 보담도 더 세다。

팔은 뷘기운만 휘어앉고 혀는 쓸데 없이 입안을 허매인다。

우울(憂鬱)은 온몸을 휘감고 돈다。

긴숨이 저절로 나아온다。

온몸의 피가 말끔 한곧으로만 몰이이는것 같다。

나는 장에든 사자 같다。

풀풀 붙는 불이 나를 다 태우고야 말것 같다。

적적 하다는 말은 성(性)을 상증하는 말이다。

九月 八日

나는 지금 편편히 놀고 잇다。

오늘밤에는 공원에 가서 가만히 뻰취에 앉어 잇엇다。

돈도 없고 잘곧도 없이 몇칠을 굶고 이렇게 여긔 앉어 잇다하면 때 무엇할것이다

그래도 나는 저녁을 먹고 잘데가 잇다는 확증을 가지고 이렇게 여긔 앉어잇다。

갑작히 고마운 생각이 뭉치어 올라온다。그리고 전에 간얇게 생각하던것이 부끄러워저서 죽겟다。이렇궁 저렇궁해도 그들을 나는 흉볼수 없는것이다。

十一月 一日

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 같다。아니 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다!

내털을 뽑아 세상이 이로웁게 될지라도 나는 아니하고 날더러 털을 뽑아 나를 이로웁게 하라고 하는 나다!

남에게 대접을 받지 않는대로 남을대접하지 말아!

나무와 내 이마가 맞부드치면 나무가 내길에 방해가 되엇다고 짜징을 낸다。

그렇나 이기주의자인 내가 되게 납쁘다고 할른지 모르겟다。세상은 객관과 주관으로 일우엇다。그런데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소용없게 될것이다。

十一月 二日

오늘 오후는 어느 마나님 집에 가서 유리창 닦아줌으로 지냇다。

유리창을 다 닦고 나니까 그 마나님이 일불이십전을 준다。그것이 세 시간의 품값이다。품값치고는 매우 상당하다。

나는 쾌함과 피로를 느끼엇다。내 땀의 값을 받은것이 쾌하고 내 땀 흘린것이 피로하다。

나는 책 한권 고물서점에 가서 사기로 작정하엿다。전 토요일에 고물서점에서 내가 꼭 사고싶어하던 책을 발견하엿으나 돈이없어서 그 때는 못삿다。지금은 이 일불이십전이 잇으니 그 책을 넉넉히 살수잇다。

나는 그 책이 어서 사고 싶엇다。그러나 오늘은 넘어 늦어서 못사겟다。내일 오후까지 기다릴것을 생각하니까 매우 안달이 난다。

이 곧이니까 이 천비님이 일도하고 돈도 얻고 하는것이다。고마운 노릇이다。

그런데 ㅎ긔서는 돈이면 아무것이나 다 상관없다。그것이 얼른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돈 그것을 얻기위하여는 일의 고하(高下)가 없다。

돈만 지지면 누구던지 내로라! 할수 잇을것이다。그렇나 그 까닭에 배금주의가 되여서 어느 정도의 해독을 받게 되니까 나쁘다는 말이다。 一九三二•九•〇

## 따르는강물

허 연

청드린 강물이라
어이 아니 따르리만
"A" 성 지나나신
이별인줄 알엇드니
서으로 굽어 돌아
다시 한번 보여주네

강물이 님의 정인가
가는 나를 매고 도네
따르다 못및으면
피어나 白雲될걸
秋風이 뜻잇다면
저산을 넘겨주리

(뉴욕을 떠나 西으로
向하는 길에 헏슨江을 보고)

## 가을빛

秋草는 산머리에
白髮이 다 됏는데
버들은 시내 가에
아즉도 젊엇어라
몸이야 늙엇기로
맘못 젊어 볼것가

산에 찬 붉은 빛을
바라봄도 그윽커늘
석양은 무엇하랴
타는 닢에 불을 놓고
바람이 구름을 몰아
지는 해를 가리더라

(1932, 10, 13)

## 쉬카고 (CHICAGO)

韓 黑 鷗

「쉬카고」는 나의 둘재 故鄕!
거기에는 나의 동무가 잇고
조국을 위하야 싸우는
내 동포의 숨길이 잇는 곧

湖水 가에는 公園과 「호텔」
「캐시노클럽」으로 가는 자동차들
이 곧에 혼자 나와 앉어
수심하는 동무의 낯이여!

「클락 스트릩」 건너 西편에는
百년 늙은 헌집속에 몬지 뎁이
밤 늦어 이 골목으로 들어 가는
동모의 무겁게 숙어진 머리

「쉬카고」는 나의 둘재 故鄕!
거기에는 「애리스토클랩」의 밤이 잇고
「룸펜」의 배 곺은 아츰이 잇는 곧
그리고 그릇나르고 얻어먹는 밥집이어!

「쉬카고」는 詩人을 미치게하엿고
社會學者를 잠못자게 하엿고
「캐폰」의 銃대는 「호텔」문을 잡그고
市長은 「캐폰」의 祝杯를 들엇도다

돈 많은 사람의 노래터!
藝術에게 리혼 당한 畵家의 술노래!
音樂歌의 엉뎅이 춤!
그 속에도 내 동모들의
무겁게 느러진 머리!

「쉬카고」는 나의 둘재 故鄕!
쌈 많은 그 곧 술 많은 그 곧

돈 많은 그 곧 그러나
일자리 없는 사람들!
그중에도 내 동모 그러고
머리 긴 동모들!

동모여! 「쉬카고」여!
그 곧은 世上에 둘도 없는
現代人의 手術室이어니——
우리들의 手術室이어니——

굶고 헐벗어도
그 곧마는 우리의 手術室!
아! 나의 둘재 故鄕 쉬카고!
동모와 그 곧이 그립구나!
(1932, 5, 1 「필라델피아」에 와서)

## 목마른묻엄

님이어!
내가 만일 죽거든
님의 이슬을
나의 묻엄 가에 나리소서

世上에 묻엄이
많이도 누엇지만
아! 나의 묻엄 같이
목마른 묻엄이
어데 잇으리까?

山과 바다를 건너
떠단기는 내 몸은
죽을 때까지 님을 못뵈올까
목이 타고 타고 탑니다。
(1932, 9, 필라델피아서)

## 등잔밑에孤客

뉴뿌大學 종 환

「유니벌스」는 벌서
암흑 속에서
헤매이고 잇—고
아우성 치든 년(F) 놈(M)들
꾸—ㅁ 속에서
고히 자고 잇것만
외로운 객(客)의
쓰라린 그 몸마는
쓸어저 가는
한 줄기 불 밑에서
앞날을 위해
조을—고 잇느냐?
꾸—ㅁ 꾸고 잇는가?
× ×
그렇지 않으면
땅 우에 살고 잇는
그 못된 년(F) 놈(M)들을
문질러 없앨
「풀낸」(Plan)을 하고 잇는가?
(1932, 10, 2 夜 뉴뿌大學寄宿舍一隅에서)

## 不平客

李 廷 大

내 마음이 기쁜 때
萬象이 기쁘것만
이 내 몸 不平이매
님도 또한 不平이라
님도 不平
이 몸이 또한 不平이며
가는 곧 不平이며
보이는 곧 不平이라
× ×
不平에서 난 不平客이니
生覺한들 무엇하며
嘆한들 어이하리
以往이면 나선 길이니
묵은 決心 도리켜
이 몸이 재되고
가로 될 한이 언정
힘 차다 나아가리 —끝—

# 編 輯 後 記

◇新凉이 入郊하니 弛緩되엿든 우리의 神經이 緊張되기 시작하며 解弛되엇든 筋肉도 또한 새로운 氣力을 내여 活動의 가을一 분투의 時節인 燈火可親期를 맞이한다。

◇가을! 또가을! 平凡하게보면 平常한 가을이엇만은 때가 어지럽고 生活이 괴롭은 時節인만큼 남달은 壯圖와 弘志를 품고 소위 辛酸한「天堂生活」에 시달리는 三百 새 조선 졂은이들의 安否가 몹시도 그리워진다。

◇新秋 九月! 우리는 이 六號를 故國의 讀書子에 보냄을 즐거워한다 。비록 定期的으로 刊行은 못할망정 題號「우라키」山의 高潔無垢하고 優雅莊嚴한 그 氣象과 그 永遠한 氣韻과 不變의 象徵 또한 無限과 神秘의 쉼볼을 본받어 우리는 이 나그내 땅에서 우리의 眼光과 蘊蓄을 키우려고 남는 여가를 배여 우라키를 編輯하게된다는것도 讀者의 理解를 請하는바다。

◇이번號에 실은 「後進學友에게 보내는 메씨이지」는 과시 海內外를 不拘하고 明日의 朝鮮社會에서 活躍과 奮鬪를 꾀하는 조선 青年에게는 一大金文字라고 생각하고 一讀을 勸하기에 주저치안는다。

◇北米苦學生活 百鏡集은 美國留學生 生活의 受難을 如實히 文字化한 貴한 文獻이다。海外遊學을 뜻하는 동모들의 失望과 落心의 씨(種子)나 되지않을가하는 杞憂도 없지가 않지마는 우리의 生活相을 앎이 또한 그들의 計劃에 一助가되고 남음이 잇으리라고 믿어진다 。

◇李묘묵박사의「國際聯盟의 過去 現在及將來」도 萬人必讀의 好論文이려니와 高황경孃의 「米國移民歷史와 將來의政策」 崔奎南박사의 「카스믹레이」도 貴한 研究와 文獻이다。그外 世界올림픽大會의 總決算的 報告인 李 文 爾氏의 寄書도 果然 半島數萬 運動젠의 快文字가 아닐수 없다。
「金마리아論」에 나타나는 氏의 崎嶇多難한 亡命生活의 受難記도 愛讀者諸賢으로서는 看過치못할 貴한 글이 아닐찌도 모른다。

◇이번號에 실기로 뜻하엿든 「海外亡命家訪問記其一」은 萬不得已한 事情으로 記載치 못하게된다。

◇編輯을 畢하고나니 心算대로의 成果를 걷우지 못한 空虛感 即內容이 充實치 못한것이 생각된다 그러나 後日의 活躍과 期待가 잇을것을 約束해두자。

◇이六號 編輯方法은 在來 우리나라 雜誌 편즙法에 巨彈的 革命이다。尖端的 方式을 取하여 全部 橫書하엿다。두밀할것 없이 우리한글을 가로쓰는것은 科學的이오 現代的인 까닭에 우리는 이 方法을 본뜨는 所以然이다。

◇이번號 編輯에 際하야 直接間接으로 多大한 援助를주신 朱요한 오천석兄과 李哲源皇甫익준 諸氏의厚意를 여긔에 감사한다 。 一(일형)一


昭和八年三月 八 日 印刷
昭和八年三月十一日 發行
(定價三十錢)

著作兼發行人 吳 天 錫
京城府堅志洞三二

印刷人 金 鎭 浩
京城府堅志洞三二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

發行所 우 라 키 社
京城府堅志洞三二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二
電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米洲販賣所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 A.
182 FACULTY EXCHANGE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U. S. A.

# 基督教朝鮮監理會 總理院教育局發行書籍目錄

**基督教史**
奇怡富 柳瀅基 共譯
定價 布衣洋裝 一圓二十錢

**主日學校組織과管理**
金俊玉 牧師 著
定價 三十五錢

**主日學校禮拜指導方法**
金俊玉 牧師 著
定價 三十五錢

**救主聖誕祝賀式順序**
裵德榮 牧師 編
第一輯 定價 二十錢 (一九三一年度)
第二輯 定價 十二錢 (一九三二年度)

**秋收感謝節順序**
裵德榮 牧師 編
第一輯 定價 十錢 (一九三一年度)
第二輯 定價 十錢 (一九三二年度)

**宗教의本性**
柳瀅基 譯述
定價 布衣 五十錢 紙衣 三十五錢

**兒童期의心理**
金鍾萬 牧師 著
定價 三十五錢

**現代教會와宗教教育**
柳瀅基 譯述
定價 三十五錢

---

**一千九百年後의예수**
柳瀅基 譯述
四六版 二百餘頁 定價 洋裝版 七十錢 普及版 十錢 郵費四錢

**예수의생애와교훈**
吳天錫 柳瀅基 共譯
四六版 二百餘頁 定價 洋裝版 七十錢 普通版 五十錢 普及版 十錢 郵費 四錢

**基督教神學의概要**
都伊明 譯
定價 半布衣 壹圓

**어린이락원**
정성용 譯
定價 堅布衣 壹圓

**하나님의선물**
教育局編纂
定價 堅布衣 六十錢
이는 普通學校 三四學年 及 主日學校 幼年部에서 使用할 聖經教材다

**壯年部組織과管理**
教育局編纂
定價 堅布衣 七十錢 半布衣 六十錢

**主日學校教授原則**
金俊玉 牧師 著
定價 堅布衣 五十五錢 紙衣 三十五錢

---

**現代科學과基督教**
柳瀅基 編
定價 布衣 五十五錢 紙衣 三十五錢

**基督과實際問題**
柳瀅基 譯述
改正版 定價 布衣 七十錢 紙衣 五十錢

**聖經十講**
柳瀅基 編
定價 紙衣 三十五錢

**基督教의眞髓**
柳瀅基 譯述
定價 堅布衣 七十錢 紙衣 五十錢

朝鮮基督教界에 오직하나인教養雜誌
宗教 文藝 修養
月刊 **新生** 一部 十錢 一年 一圓

基督教朝鮮監理會 機關雜誌
月刊 **監理會報** 一部 五錢 一年 五十錢

京城府鍾路二丁目九十一
基督教朝鮮監理會 總理院教育局
電話光一三四九
振替京城一六七〇八

昭和八年三月十日印刷

昭和八年三月十三日發行

定價三十錢